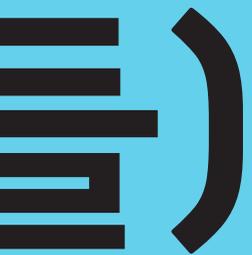


대회화 (문)

ISBN 978-89-92678-62-9

대화(들)

2021 인천문화포럼이 남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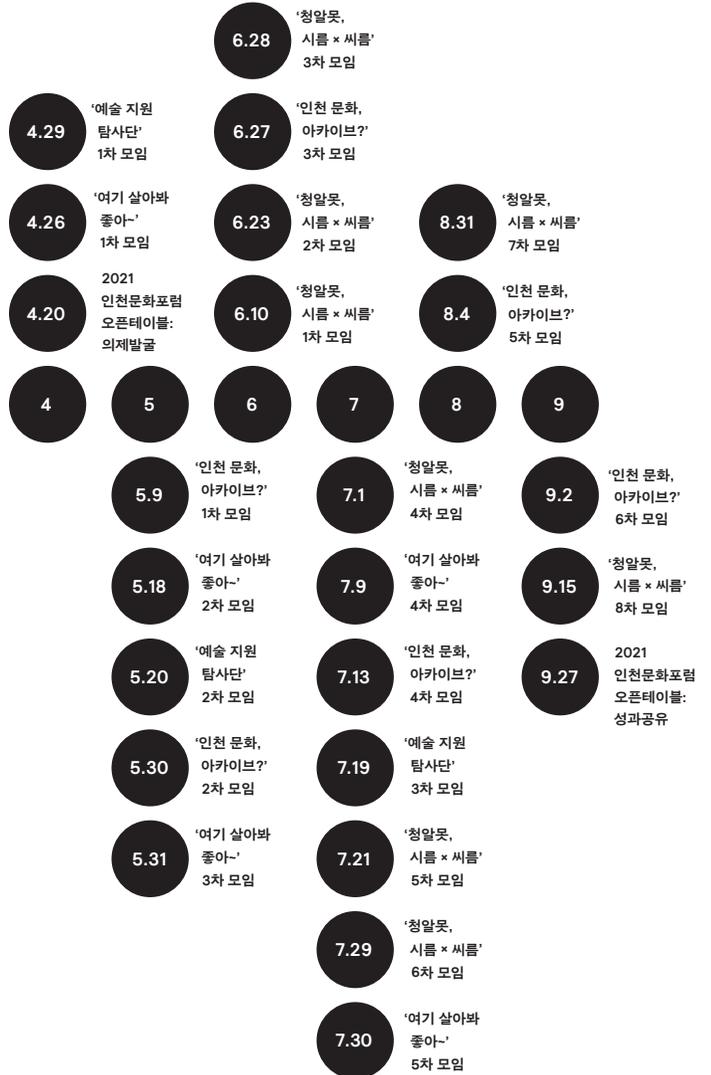
이 책은 <2021 인천문화포럼> 과정을
보다 많은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출판되었다.

편집 노트

전시, 프로젝트 제목은 <>, 단행본 제목은 『』, 글 제목은 「」로 표기했다.
문장 안에 쓰인 강조어 혹은 강조문은 ‘, 인용문은 “ ”로 표기했다.
인명 지명을 비롯한 고유명사와 예술용어의 외국어 표기는 국립국어원
외래어표기법을 따랐으며, 관례로 굳어진 것은 예외로 두었다.
필자가 쓴 원고들은 최소한의 오타자 표기만 수정해 그대로 실었다.

6	프롤로그
8	2021 인천문화포럼, 어떻게 구성했나
14	2021 인천문화포럼
16	오픈테이블: 의제발굴
32	여기 살아봐 좋아~ 인천 특성과 시민문화력
88	예술 지원 탐사단 (생활)예술 지원정책
158	인천 문화, 아카이브? 문화예술조사와 아카이빙
216	청알못 시름 × 씨름 인천 청년과 문화예술
286	22번의 대화가 남긴 질문들
294	오픈테이블: 성과공유
304	2017 - 2020 인천문화포럼
316	참고자료
318	에필로그
320	(불)가능한 대화(들)을 기록한다는 것
323	참여자 소개

2021 인천문화포럼 진행 과정



프롤로그

2021 인천문화포럼, 어떻게 구성했나

지역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 전문가가 함께 소통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에 큰 의견은 없을 것이다. 한편, 인천광역시와 인천문화재단은 지역문화가 활성화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시민들 스스로 문화 향유와 창조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여겨왔다. 이런 배경에서 인천광역시와 인천문화재단은 시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소통을 통해 문화를 활성화시켜보자는 취지에서 2017년 ‘인천문화포럼’을 구성하였다. 200명 넘는 인원이 참가한 때도 있었으나 평균적으로 100명 전후의 시민과 전문가, 예술가 등이 분과를 나눠 토론하는 행사가 2019년까지 연례적으로 진행되어왔다. 포럼 위원들은 매년 새로 구성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2020년 상반기는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사업이 연기되고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리는 국면이 지속되었다. 결국 전지구적 팬데믹(pandemic)의 지속으로 2020년 하반기에 포럼 자체는 평상시처럼 지속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소규모 회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결론 내렸다. 그리고 이 기회에 그동안 인천문화포럼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앞으로 운영 방향을 다시 설정해 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포럼위원의 경험을 갖고 있던 4인, 인천문화포럼을 밖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던 전문가 1인, 인천광역시와 인천문화재단 관계자 각 1인이 회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4차례의 연속 회의를 통해 문화포럼의 성과와 한계, 바람직한 민 관 거버넌스 사례, 2021년 인천문화포럼 운영 방향 등에 대해 토의하고 의견을 정리하였다.

회의 결과, 문화포럼에 참여하는 의의, 취지에 대해 참여자가 능동적 자세를 갖되 그 과정에서 책임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즉 포럼 위원 각자가 포럼에 참여하는 의지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포럼은 한 번에 많은 사람을 모으는 구조보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분들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데에도 의견을 함께 하였다. 토론의 내용이나 의제 발굴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의제에 따른 분과를 자율적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해서 2021년 인천문화포럼에 참여할 위원을 내부 추천과 당사자 동의를 거쳐 21명으로 확정하였고 2021년 4월 20일 한국근대문화관 다목적실에서 ‘인천문화포럼 오픈테이블’을 개최하였다. 오픈테이블에서는 위원들의 자유토론으로 의제를 도출하였고 의제에 대한 관심사에 따라 분과 참여를 확정지었다. 위원들의 제안과 난상토론으로 인천문화포럼이 앞으로 토론해야 할 14개의 의제를 도출했는데 이를 놓고 추가 토론을 거쳐 의제를 통합, 조정, 삭제하여 4개로 최종 정리하였다. 인천문화포럼 오픈테이블에서 최종 확정된 4개의 의제는, ‘인천 특성과 시민문화력’, ‘(생활)예술 지원정책’, ‘문화예술조사와 아카이빙’, ‘인천 청년과 문화예술’이다.

첫 번째 의제인 ‘인천 특성과 시민문화력’은 포괄적인 성격의 의제인데, 인천이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인천의 특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인천 시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해보기로 했다. 두 번째 의제인 ‘(생활)예술 지원정책’은 인천에서 그동안 진행되어온 예술가 지원, 생활문화 지원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기로 하고 의제를 설정하였다. 세 번째는 ‘문화예술 조사와 아카이빙’으로 최근 들어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문화 자원이나 자료의 조사, 기록화 작업, 보존과 정리, 정보 제공 등의 문제를 화두로 논의를 이끌어 가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천 청년과 문화예술’은 최근 화제가 되는 청년 문제를 인천의

시각으로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제안되었다. 인천 청년 일반의 문화 및 청년 예술인들의 고민을 다 함께 포괄하여 문제를 도출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렇게 제안된 4개의 의제에 따라 분과를 구성하고 포럼 위원은 각각 하나의 분과에 참여하여 세부토론을 하는 것으로 포럼의 운영방식을 결정하였다. 분과별 자율적인 내부 토론을 하되 한 달에 한 번씩 분과별 대표들이 모여 논의 과정 전체를 공유하는 과정도 병행하였다.

2021년 9월 27일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다목적실에서 ‘2021 인천문화포럼 성과보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의제별 각 분과의 그동안의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소개하는 행사였다. 토론회는 분과별 대표 발표자들이 각각 토론된 내용을 소개하고 다른 분과의 포럼 위원들도 토론에 자유롭게 참여하였다. 아울러 기존 포럼 위원 이외에 의제 별로 한두 명의 외부 지정토론자를 초청하여 토론 내용에 대한 코멘트를 받았다.

이 책의 내용은 지난 1년간 이와 같은 인천문화포럼의 활동을 총괄 정리한 것이다. 인천문화포럼은 전문가들이 특정 문제에 대해 학술적 토론이나 조사, 연구를 통해 빼어난 성과를 제출하는 자리는 아니다. 오히려 시민의 눈으로, 예술가의 눈으로 인천의 지역문화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두루 제기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데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책자의 형태로 인천문화포럼의 토론 과정을 묶어 출간하는 취지도 여기에 있다. 부족한 형태로나마 인천문화포럼의 토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보고한다. 인천문화포럼은 이곳을 기점으로
논의를 축적해 가고자 한다.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2021. 10. 12.

인천문화재단 정책협력실

2021 인천 문화포럼

저는 처음에 '인천문화포럼'이잖아요. '인천의 문화는 대표적으로 뭐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10년 살이, 10년 차이기 때문에(웃음). 그래서 딱히 느껴지는 게... 뭐랄까 딱 뽀족한 건 없고 그러면서 되게 다양하긴 하고 인천 하면 떠오르는 축제나 인천문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있나, 그걸 떠올리게 됐어요. 답은 아직은 못 찾아봤는데. 그냥 여기서 인천문화포럼이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뭐 공공적인 어떤 거대 담론이긴 하고 인천을 굳이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이왕 저희가 포럼으로 모였으니 인천문화란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 인천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인천에 산다 뿐이지 대부분의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은 서울에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인천은

진짜 잠을 자는 공간이어서 그 분들한테는 사실 인천이 자기가 사는 동네임에도 서울보다 멀게 느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쨌든 인천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모여 있지만, 사실 인천에서 문화예술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되려면,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인천에서 직장생활까지는 아니라도 문화예술 활동을 한 번이라도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가 저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300만 명이나 산다고 하는데 대다수가 여기에 속해 있으면, 300만 명이 살아도 저희가 뭔가 프로그램을 할 때 할 수 있는 대상이 좁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향유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그런 활동을 하는 창작자나 뭐 직업인에 있어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더 많이 서울이 아닌 인천에서 뭔가 최소한 퇴근 후나 주말에 생활이라도 더 많이 향유할 수 있게 하는가가 좀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 저는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인천이라서 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청년들 전체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듣다 보니까 어떤 사업체, 정착해서 일할 수 있는 사업체라는 것 자체가 문화예술교육에서 가능할까라는 물음표가 생기는 것이... 결국 저희는 공모, 국가의 예산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문화예술영역의 대부분의 사업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품을 찍어내는 생산이랑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인문학적이고 문화적인 사업들은 대부분 정부 지원사업에 많이 기대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지속할

수 있는 기업을 길러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고를 수 있는 선택지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 저는 진짜 그 서울의 위성도시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가지고 있는 의문이고, 지금 이 포럼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중의 하나도 이 서울의 위성도시로서의 인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차라리, 저는 이제 시각 예술 분야다 보니까 갤러리만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정도까지의 거리 격차가 생기면, 있어요. 지역의 화랑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인천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벌어지는 가장 큰 문제가 외부에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서울에서 전시를 하고, 인천은 그야말로 순수히 기금에 의존해서 전시를 할 때나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제대로 된 갤러리라 부르기 어려운 그런 공간들만 좀... / 조사 연구 필요한 것 같다. 어쨌거나 청년들이 결합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다시 한 번 인천문화포럼에 청년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달라. / 계속 step by step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년문화정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코로나19와 상관없이 갈 수 있는 문화영역과 시대적인 상황에 발맞춰가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인천이 서울하고 아주 근접하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지역적 한계가 있다고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서울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향유 공간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냥 좀 전철타고 나가서, 차타고 나가서 서울로 많이 가는... / 상충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도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정책에 반영되는 큰 틀을 만드는 건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끼리 의견 자체가 다들 상충되면 당연히 정책화될 수 없는 거죠. 실제로 이전 포럼에서 나온 것까지 좋은 제안들이 꼭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이전 포럼에 대한 비판은 한편으로는 타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가능하죠. 이제 그 구조를 바꿔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하고 여기서... / 코로나19 이후에 프리랜서 지원금 받고, 지역에서 예술가 지원금 받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오히려 예술가 개인을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를 이렇게 지원해줬던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 코로나19 이후 지역에서 개인의 예술가를 좀 더 주목하게 되었을 때 공공을 조금 더 열고 지역의 예술가랑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조금 더 찾아낼 순 없을까. / 어떻게 하면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여기에 산다는 걸 자부심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이게 되게 궁금해요. 그런 도시의 분위기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 인천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인천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생활예술 분야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정책이 됐든 시스템이 됐든 생태가 됐든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게 실은 어떤 면에서 조금 더 넓히면 예술가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어서... /

선정이 되더라도 계속 과정이나 정산을 증빙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 예술이나 표현을 순수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그 다음에 향후에 다시 선정이 되기 위한 그런 보여주기 식의 결과물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19를 겪고 나서 중요한 게 뭔지, 그동안 조금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아진 순간이 와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 지금은 외지인의 비율이 높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접근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의 흐름들이 인천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어쨌든 바다의 가장자리에 있고 지금은 서울이 모든 중심에 와있지만 다 인천을 통해 흘러 들어간 것이다. 진실이든 아니든 그 순간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 후배 세대와 선배 세대 간 문화예술영역에서 터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이 처음엔 불편하더라도 인천문화포럼을 처음 이렇게 같이 토론 할 때도 심정적으로 세대와 세대가 만나는 포럼이 문화라는 그 영역 안에서 시작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예민한 부분들이 문화라고 하는 하나의 틀을 이용해서 조금 더 서로가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좀 뭔가 이렇게 협력, 사용, 화해? 어떤 표현이 적당할진 모르겠는데, 간극을 좁혀갈 수 있을까. / 지역과 예술가를 결합시키는 방법. 지역은 예술가에게 예술가는 지역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시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활동, 시민의 문화 자치력을 넓혀주는 활동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문화적인 시민 활동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

심리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기억이 많을수록, 그런 경험이 쌓일수록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낮아진다고 하잖아요. 개량적인 평가가 아닌 정성적인 평가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문화라고 보거든요. 그게 문학이 될 수 있는 거고, 연극이 될 수 있는 거고, 미술이 될 수 있는 거고.

재단의 역할 자체가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게 거의 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술가들의 지원이 가장 큰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시민문화라고 하는 부분도 시민과 예술가 사이의 접점을 만들어준다. 그니까 재단 자체가 굉장히 기획자적인 마인드에서 자기네들이 사업도 잘 짜보고 만들고 추진해주고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 그게 사실은 공공영역에서 해야 되는 거죠. 빈 집에 대한 고민인거니까. 유희공간에 대한 의견은 민간에서 주되,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는지. / 사실은 우리가 동네에 어떤 생활문화공간이든 예술문화공간이든 크게 있는 것뿐 만 아니라 도보 5분 10분 거리에 작은 전시장도 있고 작은 공연장도 있으면 좋겠고, 작은 작가들의 스튜디오나 서점이 있어야 하는데 인천에서 도시개발이나 아파트개발을 확 해버려서 공간이 없으면 결국에는 민간 유희공간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계속 구도심에 유희공간으로만 너무 또 다 이게 몰려있어서 결국에는 다양한 문화공간이든, 예술공간이든 동네에 여러 군데 다양하게 있으려면 유희공간을 너무 물론 이제 공공영역에서의 유희공간도 되게 중요하지만 민간의

유휴공간도 있지 않으면 이 안에서 불균형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 경험치로 움직이잖아요. 사업으로 해볼 만 한, 그래서 2단계까지 해보고,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안 하는 거지. / ‘레벨업’ 방식이 있어요. 5단계로 지원을 해서 수행을 해본 사람은 그 위 레벨을 지원할 수 있더라고요. 못 내려오고, 역으로. 그러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니까 아카이빙 된 사업을 모아서 기획서 써서 내고 이거에서 정산 다 끝났으면 다음 레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독점을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청년지원정책의 문제를 우리가 다각도로 분석하고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고.... / 유휴공간에 관한 활용도 조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지원방법이라든가 다각도의 제안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는 청년지원정책 문제인데요. 지금 안 좋은 사례들,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문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책정할건지 하는 문제. 정책적인 실험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고. 맨 마지막에는 전체적인 지원제도인데, 생활문화와 예술 같은 경우에 정산 외에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 생활문화 같은 경우에 아예 선정했을 때 이해 당사자들 다 개입시켜가지고 함께 선정하는 방식. 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비평이라든가 평가 같은 것이 다 첨부돼가지고 사업이 마무리 되는 방식으로 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 지역에서 공공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어서 그 기금을 받은 예술가가 본인의 활동을 개인적인 활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들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받는 것들을 고민을 하긴 해야 돼요. / 영향을 사후로 줄 수 있어야 협력을 선택을 하지. 설게 문제예요. / 다른 지역에서도 선정 결과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선정 방식을 바꾸고 있거든요. 공정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선정 제도를 바꿔야 해요. / 정보를 공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보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불만이어서. 알아야지 이 돈을 받고 어떤 전시를 했는지 가서 보고 이 전시가 정말 그런 의미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너무 가려지고, 이렇게 잡고 저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찾아야 하나...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라고 봤을 때 좀 많이 갈려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삶의 문화죠. 해양을 중심으로, 바다를 중심으로 공동체 문화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또 거기에는 역사적 연원들도 있고 / 특히 해양 쪽으로의 관문이 되는 이런 접근과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인천이 갖고 있는 역사적 특징을, 지리적 특징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잘 발전시켜 나가자. /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천광역시도 청년문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청년문화가 중요하다. 왜? ‘청년이 누구야?’ 청년 예술가 혹은 청년 문화활동가 혹은 대학생? 논의에서 어떨 때 청년문화 얘기하면 청년 예술가 이야기를 하다가 구월동 이야기를 하다가 포인트가 헛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떤 의제를 던져서

논의의 진도를 뽑으려면 청년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 다 모았으면 좋겠어. 해답을 거기서 끌어내야지. 청년문화예술의 문제라고 한다면 관심 있는 청년 예술가들을 전체 네트워킹 해가지고 이들의 의견과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 지속적이고 장기적일 수 있는 청년 예술인 소통플랫폼으로 의견을 모아내고 정책화시키고 할 수 있을지 이 메커니즘을 만들자는 거지.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 떠들고 놀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의제설정부터 모여서 하고 시행해보고 평가까지 하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가게끔 제공해주는 것이 기성세대나 정책단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 단위별로 아카이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개인별로도 하고 집단별로도 하고 매체별로도 하고 계신데 아카이빙과 거리감이 있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문화자원이다. 그러면 문화자원의 범주를 공감하고 정의가 다양하잖아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정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마치 문화자원은 행 같은 것을 하나 만들자는 건데 그런 플랫폼이 없거든요. 없는데 말은 또 다 아카이빙은 한다고 그러니까 산발적 소모적이면서 결국은 문화자원이 남지 않고 콘텐츠만 남는, 그래서 무한 반복되는, 이런 일이. 인천에서는 재 활용 가능한 문화자원 원형들을 한 곳에 모아보는 노력을 해보자 요지는 그거입니다. / 모아놓은 곳이 있다. 근데 활용을 하지 않는다. 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모아놓은 자료의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하는

정보를 알고 싶은데, '여기 가면 있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건 사실이거든요. / 재단이 됐든 시가 됐든 공공기관에서 문화자원을 품고 가는 문화자원 아카이브를 공공기관에서 담당해주는 것.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 나아가 민간에서 하고 있는 아카이빙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목록 공유하는 거. 민간은 상업적으로 서비스할 수도 있고, 공공으로 서비스할 수도 있거든요. 자원의 교집합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게 첫 번째 일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있는데 2006년에 개정되면서 광역특별지자체는 연구기록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들이 잘 안 지키는 거예요. 2018년에 경남, 2019년에 서울만 만들어지고. 다행히 인천광역시도 준비는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천도 아마 기초연구는 들어갔을 건데. 이게 문화아카이빙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지역의 문화와 시민들의 삶까지 다 기록하는 의무를 갖게 되거든요. / 인천이 해양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 해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해양적 사고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육지적 사고가 아니라 바다의 접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환경도 맨날 육지 쓰레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다 환경도 중요한 건데. 다른 지역은 몰라도 인천만큼은 해양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킬 필요가 있다.







- 의제 1 유휴공간 활용도 조사
- 의제 2 청년지원정책 문제
- 의제 3 공모제도 선정방식 개선
- 의제 4 청년문화정책 연구조사
- 의제 5 인천문화지표 조사 시기 단축 필요(2년)
- 의제 6 인천문화포럼 청년문화분과 필요
- 의제 7 재난상황에서 예술의 지속가능성과 극복방안
- 의제 8 지역과 예술가를 연결하는 정책
- 의제 9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정책에 대한 시의
- 의제 10 코로나19 이후의 지역과 예술-예술가 개
- 의제 11 인천 시민으로서의 자부심
- 의제 12 인천시민 해양인식제고와 해양문화교
- 의제 13 아카이빙 데이터의 플랫폼 구성과 활
- 의제 14 인천 예술인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인천 문화포럼

여기 살아봐

좋아~

인천 특성과 시민문화력

인천에 바다가 있어?

34

210426 15:18

☞ (해양과 관련된) 범도 만들어졌으니

인천시민들에게 해양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야죠. 교육과 연결 지을 수도 있고 혹은 문화예술통해 인천시민에게 미래의 해양과 바다에 대한 인식을 건강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우리의 바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여기서

순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일단

내륙 쪽으로는 바다를 통해서 외세가

쳐들어왔잖아요. 특히 개항은 ‘열 개(開)’자에

‘항 구(港)’인데, 강제로 항구를 열게 된 거예요.

외세에 의해서. 그래서 바다는 무섭고, 나쁘고,

싫고, 강제로 뭍 만들고, 침탈하고.... 이런

예술가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인천시민이 보다 더 많이 바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바다를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을 새롭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는 것이 인천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하나의 영역으로 쪽 밀고 나갈 수 있는 장기 계획이 필요해요. 의식의 변화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의 문화 정책상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삼아야 된다는 게 저의

인천에서 오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권기영, 안희석, 차광운, 한상정

의제 발굴 배경과 목적

우리 본과의 주제 영역은 ‘인천의 특성’과 ‘시민문화력’ 두 가지이다.

인천의 특성이라는 주제는 ‘인천국제공항(Air-Port), 인천항(Sea-Port), 송도정보화신도시(Tele-Port)를 잇는 트라이 포트(Tri-Port)’ 같은 규정이 시민의 실생활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인천의 특성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했다.

특성을 논의하는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분명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살아가갈 사람들이 지속 가능하고, 발전적이고,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고, 삶이 더 풍부하고 풍요해질 수 있는 그런 지향성의 관점에서 공동의 관심사로 기능한다면, 특성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

☺☺☺ 또 하나는 조선시대 때 섬 공도 정책을

펴면서 섬은 유배 가는 곳, 육지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가는 곳. 이런 의식이 있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섬이 청정지역이다 보니

바람 쐬기 좋고, 관광 가기 좋고... 그런 정도?

조금씩 그래도 사람들이 섬의 매력에 대해서

느끼는 것 같아요. 인천 3대 트로이카가 송도,

영종, 청라잖아요. 이 경제자유구역들이

실제로는 다 바다에 인접해 있어요. 근데

경제자유구역청 계획을 보면, 바다는 없어요.

육지에만 이 계획이 있어요. 결국 인천광역시의

사업정책을 짤 때 육지에만 한정하는 점. 예를

들어, 만약 송도가 갯벌이랑 연결이 된다는가

영종 경제자유구역이 주변에 있는 갯벌이나

바다하고 다 연결이 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도 즐길 수도 있고 산업적

부가가치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바다나 해양에 관한 것은

인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어요.

☺☺☺

인천이 바다를 가지고 어떤 가치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당장은 모르죠. 다만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중요한 점은 바다를

미래지향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인천다움'을 가질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인천은 기존에 바다가 있었고 거기에는 안

좋은 것도 있고, 아플도 있고, 다 있지. 그러나

또 기대하고 만들어가야 될 바다도 있는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필요하다. '인천의 특성'이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인천의 다양한 성격 중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더 깊이 연구하고 여러 정치, 경제 등의 차원과 연계시키고 시민들과 일상의 다양한 차원에서 경험하게 만들면서 중요하다는 공감대의 확장을 통해 점차 단단한 정체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인천의 특성으로 꼽을 수 있는 또는 꼽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는 분명 인천의 과거사와도 상관적이겠지만 현재에도 분명 존재하며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기존에 제기되었던 '확장도시'로서의 인천이라든가,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차원에서의 '디아스포라(diaspora)', '한대의 도시' 이런 키워드들도 각자 인천의 중요한 특성을 보여준다. 이들은 또 이들대로 발전해나가도록 하더라도 현재의 지점에서 주목받고 있지 못하나 사실은 중요한 인천의 성격을 논의해보려고 한다.

두 번째 주제는 '시민문화력, 인천시민의 문화적 역량'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이다. 문화정책은 크게 두 방향, 즉 예술지원과 시민문화 지원의 두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화예술이라는 복합적인 단어 대신 문화와 예술이라고 구분해서 본다면 오히려 더 인천시민의 문화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더 잘 고민할 수 있다. 문화란 한 공동체의 생활양식이라고 보았을 때 시민문화력이란 타자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생각과 행동의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거잖아요. 또 반대로 육지에서 바다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다에서 육지를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시각의 전환도 필요해요. 그 안에서 어떤 가치를 발굴해내고 어떤 점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낼지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지속적으로 바다에 관한 인식을 다양한 측면에서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절로 되는 것들은 아니니 때로는 어린 아이들에게 해양친화적인 교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예술가가 잘 기획해서 바다를 놓고 다른 예술가와 일반 시민들이 만나는 접점을 만드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고요. 인천에서만큼은.

순순순 어태 의제 발굴 할 때 분야별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인천만의 권역이나 지역별로 특성도 있잖아요. 인문 지리적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권역? 그런 구분도 추가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순순순 예를 들면, ‘해양문화 권역’ 이런 걸 수도 있고, 부평 혹은 미추홀구라든가 권역별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 특성도 다룰 수 있으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양해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순순순 지역별로 구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게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인천에 기초재단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각자가

시민이 예술을 창작하고 즐기는 역량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과의 다양한 접촉을 통해 공동체의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게끔 하는 역량을 지칭한다. 물론 인문학도 과학도 스포츠도 시민문화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감성과 감각을 다루는 예술이 그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다. 문화적인 도시는 문화적인 시민이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면, 문화적인 시민이 되기 위해 즉 시민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일까.

이 두 주제 영역에서 크게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인천의 특성으로는 해양성을, 두 번째 시민문화력의 확장이라는 주제에서는 우선 인천광역시 행정의 차원에서 ‘문화예술과’ 한 과가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제를, 그리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문화매개자의 전문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제를 추출했다.

인천의 특성: 인천에 바다가 있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육지를 바라보면 또 다른 인천이 보인다. 육지 중심적 사유가 아니라 바다 중심적 사유가 필요하다. 우선 인천이 가지고 있는 바다라는 문화적 자원을 발굴하고 공유하고 공감하고 콘텐츠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인천이 바다를 자기의 주요한 기반으로 삼고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고, 이게 과연 총괄
논의가 가능할까. 뭐... 필요하긴 하죠.

순수순 기초문화재단은 자기 쪽만 관심을 가지는데,
실제로 보면 시민의 문화생활권이 그 기초
안에서만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권역별 공통 사항이 있으면 묶어서 논의를
하면, 기초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묶어볼 수도
있고.

순순순 권역별 논의가 필요한 건 인정해요. 공동으로
논의해야 될 주제라든지 의제를 중심으로 각
권역들이 같이 고민하고 타 권역과 연계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틀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과 기초 권역만 나눠버리면 굉장히
이상해져요.

순순순 저는 포럼에서 인천 '해양문화'에 대해서 혹은

'해양문화력'에 대해서 앞으로 포럼에서 계속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다른 파트보다도.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평이나 계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산이라는 중심으로 이미 그쪽
지역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문화들이 계속
시민들에서부터 그렇고, 전문 예술가, 장르 다
떠나서 예술가들이 다 같이 뭔가 이렇게 계속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문학산 중심으로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인천시민들이 분명히 여기가 해양 도시인
건 알지만 오히려 해양문화에 대해, 인천의
해양문화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 아는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말씀 주신 어떤 권역별에 대한

예술, 교육, 과학, 산업, 관광, 환경 등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규모로 확장해왔다.
시의 경계가 넓어지며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유리함과
편리성을 원하는 많은 이들이 이주해 와서 터를 잡았다.
원인천 지역의 인구보다 새로 구성한 도시에 인구가 더
많다. 그래서인가, 전체 접촉면만 보자면 분명 바다와
접해있는 면이 많은데도 이상하게 바다에 대한 고민은
그다지 드러나지 않는다. 현재의 미추홀구,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네 개의 기초자치단체는 바다와의 접촉면이 없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4개 구와 강화군 옹진군은 바다와
접해있거나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말이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물론 시민들의 일상에서 바다를
접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상당수의 바다가 산업시설로
숨겨져 있거나 철조망으로 시민들의 접근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바닷가에 사는 시민들을 제외하면
바다 자체를 일상적으로 접하는 이들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보자면 부산시도, 포항시도, 강릉시도 내륙 쪽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바다를 매일 만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보다는 타 해양도시들이
좀 더 해양성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송도해수욕장이 있던 송도유원지가 쇠락할 즈음부터
시민들과 바다가 맺고 있었던 직접적인 관계의 힘이
약해진 걸까. 하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이 데이트를 하거나

어떤 이해도가 높아져야 되는지는 저쪽으로
 동의하지만 그거는 좀 한참 뒤에 일일 것
 같고, 만약에 당장 내년에 대해서 뭔가 제안을
 한다면 인천의 해양문화에 대해서 좀 이제
 길게 논의해서 이게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굳이 과거가
 아니더라도 근대 혹은 현대에서부터의 지금의
 인천, 지금의 모습까지 어떤 인천 해양의
 문화, 저희 첫 모임에도 말씀 주셨던 과연
 이게 인천이 뭐든 어떤 동북아시아의 글로벌
 허브의 도시냐, 해양의 도시냐, 이런 모든 거를
 좀 이렇게 천천히 심도 있게 나누는 어떤 그런
 포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인천은 해양문화의 대중화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너무 관심이 없으니. 그리고 그게
 인천의 도시 정체성, 미래의 비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존의 ‘육지적 사고’가 아니라
 ‘해양적 사고’를 하자. 인천이 가지고 있는
 해양의 문화적 자원을 발굴하고 공유하고
 공감하고 산업화도 시켜야겠다. 인천이
 항구도시니까, 바다를 중요한 기반으로 삼고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 예술, 환경 등 이런
 것들로 연계하는 것이 인천에서 새롭게 그려질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거죠.

☞ 인천경제표시가 있잖아요. 그걸 바꿨으면

엠티(MT, Membership Training)를 가고 가족들끼리도
 놀러가는 을왕리 해수욕장도 있다. 강화군이나 영종
 신도시로 갈 때 건너는 다리들은 명확히 바다 위를
 지나간다. 월미도 근처도 마찬가지이다. 접근 가능한
 바다들은 꽤 존재한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바다의 존재를
 잘 알고 있으나 오히려 교육이나 정치, 행정이 해양성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사실상 인천광역시 확장축의 중심은 분명히 바다였다.
 [그림 1]의 지도를 보면, 6-70년대, 80년대, 90년대 별로
 인천이 확장한 지역들을 색으로 표시해주고 있다. 현재의
 중구와 동구 지역을 중심에 두고 내륙으로 확장된 측면도
 있지만 그 보다는 매립이나 경계 조절을 통해 바다 쪽으로
 확장된 부분이 훨씬 더 광대하다. 바다를 두고, 바다를
 중심으로 커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다는 가장
 ‘인천다움’을 내보일 수 있는 가치자원 중의 하나이다.
 인천의 미래를 생각하면 무척 중요한데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다. ‘인천에 바다가 있어?’라는 문장은 인천이
 바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현상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이 바다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조사한 바 없어서 어떻게 알 수 없으나, 교육이나 문화예술
 또는 정치나 행정의 영역에서 바다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건 분명하다.

좋겠어요. 인천경계표시 할 때, 육지하고 영종, 옹진군 구 해서 표시하거든요. 이 경계표시 지도가 바다를 잃어버린 인천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대륙봉 200m까지는 완전한 영토거든요. 이 섬들을 기준으로 해서 200m까지는 다 묶어서 바다를 포함시키면 인천의 내륙이 없애 이렇게 있고요. 인천의 중심이 바다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 바다 어디까지 넣어줘야 되는데요?

수수수 백령도 이런 큰 섬들 있잖아요. 섬부터 대륙봉 200m까지는 완전 영토기 때문에...

수수수 200m가 아니라 200헤리 아니에요?

수수수 이 기준은 확인해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지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인천의 새로운 지도를, 인천이 항상 지도 만들 때 육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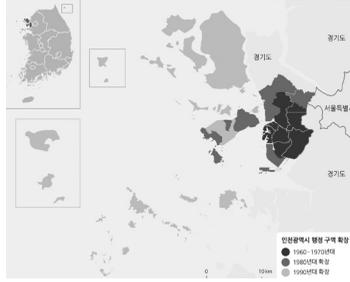
중심으로 해서 영종도까지 하고, 옹진군을 꾸겨 넣고, 강화를 막 여기다가 꾸겨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수수수 내 말이 그거예요. 예전에 해수부에서

‘거꾸로 보는 세계지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세계 지도를 거꾸로 막 놓으니까 다 바다야. 그렇게 보여요.

수수수 저는 솔직히 여태까지 이 생각은 한번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옹진군, 백령도, 연평도 이런 섬을 옆에다가 네모 칸 쳐서 해 놓은 지도에 익숙하죠.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보는 것만으로 완전히 생각을 바꾸네요. 해안에 관해서... 이 지도 하나로 일단 모든 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 설명이 필요 없겠네요.



[그림 1] 인천광역시 표기 방법. 바다를 자르고 있음!



[그림 2] 백령도까지 포함하고 바다를 살린 지도?

[그림 1]과 [그림 2]는 상징적으로 인천을 표기하는 대조적인 방식을 잘 보여준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첫 번째이다. 육지를 중심으로 서술할 뿐 바다는 잘려있고, 백령도나 연평도는 네모 칸 안에 별도로 등장한다. 이런

- 1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1권, http://nationalatlas.ngii.go.kr/pages/page_1837.php, 2021.10.18.
- 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GIS 플랫폼, <https://smart.incheon.go.kr/arcgis/home/webmap/viewer.html?layers=b3d61594a4904b7e9e0e2231b7cb3701>, 2021.10.18.

문화부시장이 필요해!

210426 14:05

↓↓↓↓

저번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재미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인천의 정체성’ 있잖아요. 클로벌, 하늘, 바다... 그게 정말 맞는 한 건가. 예를 들어 ‘바다’ 이러면 세월호가 떠오르고, ‘하늘’ 이러면 코로나19가 있는데 하늘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식의 부정적인, 실제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하면서, 인천을 규정하는

지도를 반복적으로 계속 보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육지는 중요하지만 바다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의식이 생겨나지 않을까. 설사 매일 바다를 접하더라도, 이 바다는 저 내륙에 비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가치가 적은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바다에 마시던 페트병을 던지고 모래사장에 담배꽂초를 버리는 것일까. 그래서 인천 근해에 각종 사용하던 그물 같은 어구들을 그냥 던져버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일까.

두 번째는 그냥 객관적인 자료로써의 지도이다. 인천의 모든 육지와 섬과 바다가 포함된 이런 지도를 별로 본 적이 없다. 왜 그럴까. 보다시피 인천의 육지와 섬을 모두 자연적으로 표기하려면 [그림 1]과는 달리 북한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어쩌면 그렇게 바다를 잘라 왔던 이유도, 북한을 표기하지 않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마치 인천이 남북 접경지대가 아닌 것처럼, 일촉즉발의 사건들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분단의 엄혹한 현실을 숨기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보자면 인천의 지도에서 바다를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현존이 공포가 되지 않도록 인천의 바다가 평화의 바다가 되어야만 한다. 인천의 해양성은 남북의 평화와도 밀접하게 엮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두 지도의 바다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대조적인지 알 수 있다. 시민들이 매번 장기적으로, 앞의 지도를 통해 바다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와 뒤의 지도를 통해 바다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사실 이는 인천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의

일이 비현실적이다.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정치에서 그렇게 제지하는 거 아니다.

210426 14:10

☞ ‘인천’이 근원대의 역사적 경험과 지역은 있지만 ‘인천은 이런 지역이야’라고 할 것도 딱히 없다면, 오히려 미래지향적으로 인천의 정체성 혹은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고, 관련 활동을 해서 점차 공감을 얻어 나가면서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죠. 막연하게 좋은 것 같다가 뚜 때어놓고 인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식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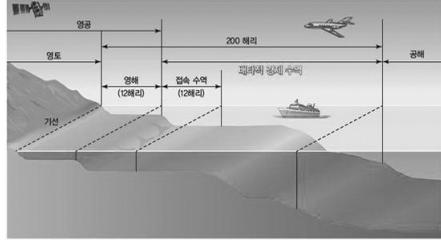
문화에 속 혹은 인문학적으로 계속 고민을 하면서 가능성을 잡아내고 시민과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나.

JJJJ

글로별이니 해양이니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얘기한 것은 이게 정치권의 논리와 더 가깝고 우리의 일상과 별로 상관없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하고, 공동체와 관련이 있고, 우리의 삶이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인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 거기서 조금 보태면, 굳이 시민들이 ‘인천은 이런 곳이다’라고 알아야 살아가는 것인가? 그건 아니지만 여기는 ‘인천문화포럼’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예술로

지도 유형은 인천시민만이 보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이 접하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바다 전체를 인천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바다 한 가운데가 인천의 중앙이다. 달리 말하면, 바다야말로 인천의 핵심축인 것이다.



[그림 3] 기선,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³

게다가 인천의 백령도와 연평도, 덕적군도는 대한민국의 해양국토(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그림 3 참조)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해는 육지의 해안선만이 아니라 외해로 돌출한 섬들을 연결한 ‘기선’에서 12해리4까지의 바다공간인데, 배타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와 완전히 동일하다. 접속수역(영해경계선에서 12해리)은 영해 같은 주권을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자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할 수 있는 공간이고, 배타적경제수역(기선에서 200해리-

3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재단, 해양교육포털 <https://www.ilovesea.or.kr/eduGarden/eduTemplet.do?menuCode=010203>, 2021.10.18.

4 1해리는 약 1.9km를 의미한다.

여기에 접근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문화예술의 측면에서 인천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 이런 것들에 대해 좀해서 구체화하는 게 맞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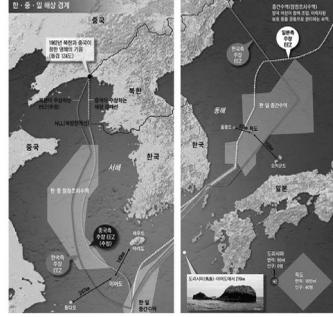
JJJJJ 문화예술의 접근 방법이 라고 하면...
 ㄷㄷㄷㄷ 인문학적 접근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지역발전과 지역의 경제력이 올라가는 것에 목표를 맞추면 산업단지 만들고 경제적인 것에 계속 초점을 맞추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서는 문화예술인이 생각하는 지역의 미래상, 문화 측면에서의 지역발전, 그것이 가진 의미, 이런 것들에 집중해야죠. 인천이 나아가 할 부분에서 그것이 정체성이라는 시민의식이라는 향후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나아가 의제를 도출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계가 어떻게 해야 될까.

210426 14:20

JJJJJ 인천의 예술영역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더 말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ㄷㄷㄷㄷ 예술뿐만이 아니라 문화 전반, 그러니까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JJJJJ 저희가 개념부터 정리를 하죠. ‘문화’, ‘예술’과 ‘문화예술’을 어떻게 쓸 것인지.
 ㄷㄷㄷㄷ 저는 ‘문화’의 개념을 폭넓게 이해하자는 데 동의할 해요. 생활문화, 청년문화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다만 굳이

약 370km)은 외국선박의 운항, 통신의 자유보장, 외국 항공기의 운항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실상의 영토이다. 달리 말하면 인천의 섬이 대한민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을 더 넓게 만들어 주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림 4] 한중일의 배타적경제수역 설정 논란⁵⁾

그렇기에 바다 너머 마주 보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의 설정은 치열한 싸움이며 아직까지도 합의를 내지 못하다(그림 4 참조). 배타적경제수역을 확장하기 위해 중국은 바다에 있는 암초 위에 인공섬을 만들고, 일본은 산호초와 바위로만 이뤄진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주변국들이 바다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비하면 우리의 경우는 그다지 커다란 역할이 눈에 띄지 않는다. 물론

5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팀, 「中, 한국에 “인구·국토면적 비례해 서해 EEZ(배타적경제수역) 정하자” 일방 논리」, 조선일보, 2012.8.18, 정치면.

개념으로 얘기하기보다 경제, 사회, 군사, 정치 등등 이렇게 구별했을 때의 '문화'영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천문화포럼이 만약 무엇을 실천하더라도 문화예술계와 관계된 사람 혹은 그런 분야가 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인천문화포럼에서 지역을 내세우고 가기보다 문화예술계에서 앞으로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인천의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많은 활동가와 예술가와 함께 이런 것들을 해보고 하는 정도까지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겁니다.

JJJJ

저는 자꾸 '문화'와 '예술'을 섞는 게 오히려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예술대로 지원을 제대로 못하고, 문화도 문화대로 고민도 못하고 있다. 예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올 수 있는 영역이라고 규정을 하고, 문화는 시민의 삶 자체가 조금 더 고양되는 것? 이것을 문화의 영역으로 보는 게 논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해요.



지금 하나의 축은 결국 시민의 문화력

확장이예요. 시민의 문화능력, 자치능력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다른 한 축은 예술인 지원이죠. 작품 지원이 아니라 예술가의 삶을 지원하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예술이라고 할 때는 명확하게 '예술', 그리고 문화는 훨씬 포괄적인,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남북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인천 앞바다, 특히 서해5도는 분명 인천에 존재하지만 해양수산부, 통일부, 국방부 등 다양한 중앙부처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처지이다. 그러니 어떤 한가지의 의제도 다 함께 조율하여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이러한 행정상의 어려움도 해양성에 대한 고민을 하기 어렵게 만든 하나의 요인일 것 같다.

이런 상황은 인천 행정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예컨대 '국제비즈니스의 중심지, 글로벌 기업들을 위한 최적의 경영환경'중의 하나인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영종, 청라 이 세 지역 모두 바다에 접해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의 그 어떤 계획에도 바다가 없다. 경제자유구역청만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주로 육지나 육지와 근접한 곳만 행정의 주요 고려대상에 들어간다. 마치 바다가 없는 것처럼.

물론, 개항-'열 개(關)'자에 '항 구(港)'-한 도시로, 외세에 의해 강제로 항구를 열게 된 것 때문인지, 바다에서 오는 것에 대한 '무섭고, 나쁘고, 싫고' 이런 무의식적인 배제가 있었는지 모른다. 섬 역시 오랫동안 유배지였기에 섬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거주민도 상대적으로 적다. 투표권자가 적다는 말이다. 최근엔야 섬이 청정지역이고 경관이 아름답다는 이유로 조금씩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지고는 있으나 의식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인천시민의 바다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확대시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인천에서 예술을 활동하고 한다는 예술인들조차 문화적으로 혹은 예술적으로 인천에 대한 정의라든지 혹은 인천에 대한 의미를 생각 못하고 살아왔고, 또 찾으려고 막상 봤더니 보통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도시 정책을 내놓는 이런 자료 외에는 크게 알고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과거는 일단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예술계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라는 점에서 되게 고민을 혼자 많이 했었어요.... 지원사업도 일몰 사업이게 될 뿐더러 이제 관에서 하니까 개량적인 성과에만 너무 치중이 되다 보니 자신들의 삶과는 괴리감이 있는 거죠. 자기들은 정말 축제를 생각하는 건데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개량적인 성과를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동안 이런 비슷한 문제 제기들이 많았지만, 저도 여기서 최소한의 방향성과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결론까지 가고 싶어요.

210426 14:43

JJJJ

생활문화 지원사업 대부분의 예산은 다 동아리 강사 지원사업이었거든요. 공간 지원하고 강사 지원.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문화가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강사 지원, 공간 지원 외에 정말 시민의 문화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 철학? 접근방식?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도의 교체는 그 고민의 작은 실천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서해5도가 남북의 접경지역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인천의 바다는 그 어떤 바다보다도 평화의 바다이어야 한다. 전쟁이라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천의 미래가치를 위해서라도 바다에 시선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분명 안 좋은 것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기대하고 만들어가야 할 바다도 있을 것이다. 생활적인 측면이든 산업적인 측면이든, 철학적인 측면이든 바다에 대한 것들은 인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를 위해 가장 먼저 육지에서 바다를 보는 육지적 사유만이 아니라, 바다에서 육지를 바라본다고 하는 해양적 사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인천이 바다를 자기의 주요한 기반으로 삼고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문화, 예술, 관광, 환경, 산업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을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인천이 가지고 있는 해양의 문화적 자원을 발굴하고 공유하고 공감하고 또 콘텐츠화하고 산업화도 해야 한다.

만약 바다가 인천의 중차대한, 하지만 오랫동안 잊혀졌던 특성이 맞다면, 내년 포럼에는 아예 해양문화와 관련된 분과를 별도로 꾸릴 필요가 있다. 오랜 과거에서부터 근대를 거쳐 오늘날까지의 인천이 어떤 바다와 함께 있으면서 어떤 삶의 양상을 만들어왔는지 어떤 전환적 시선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위해서 말이다.

☞☞☞ 우리가 시민문화력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핵심 과제가 인천의 문화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생활과 문화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참여할 수 있을까. JJJJJ 시민문화력을 넓히기 위해서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인천 예술가들이 얼마나 활동을 잘하게 할 것인지 일까요? ☞☞☞ 아니죠. JJJJJ 왜냐하면 시민문화력을 확장시키는 방안은 기존의 문화나 예술 분야를 뛰어넘는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치를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담론이라는 것을 기존의 문화예술로만 제한시키지 말고, 도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해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확장시키지 않으면 실제로 시민문화력에 대한 고민이 자꾸 생활문화 쪽으로 축소될 거라는 거죠.

☞☞☞ 동의해요. JJJJJ 문화도시가 그냥 문화예술인의 도시 개념이 아니라 시민들이 문화적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시민문화력의 확장은 사실 도시적 차원에서의 고민이다. 문화를 따로 분리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예술의 분과를 뛰어넘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시민문화력에 대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도시발전방향의 출발점과 지향점의 중심 키워드로 문화를 놓고 보고자고 하는 거거든요. JJJJJ 그 게 핵심이라고 봐요.

시민문화력 ①: 문화부시장이 필요해!

인천시민의 문화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문화를 예술 단위에서만 사고하는 게 아니라 도시의 전반적인 발전방향과 비전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정치와 행정 모두 문화적 시선으로 도시를 보는 차원까지 끌어올리지 않는 한, 문화적인 도시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적인 도시’는 시민들이 예술을 좋아하는 도시 같은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성숙한 시민들이 살아가는 도시이다. 문화적으로 성숙한 시민은 시민문화력이 높다는 의미이다. 시민문화력은 시민 각자가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힘을 뜻한다. 지속가능한 공동체, 말 그대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소멸하거나 사라지지 않고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소중히 하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줄여나가는 공동의 가치를 함께 만들고 행동하는 것이 아닐까.

시민이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인간적으로, 생태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으려면, 문화력을 키워나갈 수 있으려면 그러한 환경은 기존의 문화관광과 산하 문화예술과의 노력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

물론 훌륭한 예술작품을 감상하거나 가슴을 뛰게 하는



말로만 다 그러죠. 국가의 비전은 문화에 있다. 도시의 경쟁력은 문화를 통한 창의력에 있다. 말로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균형 발전을 위해 문화 부시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체를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가져갈 수 있는 높은 단위의 구조가 필요해요.

210730 10:26



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아니라 경제와 정치를 다 포괄하는 것이라는 걸 계속 설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의제로 내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그저 내는 걸로 끝낼지. 아니면 추진 방안까지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지.



추진 방안을 내기가 쉽지 않겠죠. 시민문화력에 대한 부분을 자꾸 예술과 붙이면 논의가 축소가 될 거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선 예술가만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시민 전체의 삶이 바뀌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교육, 언론, 모든 것이 다 변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안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인천의 문화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예술 단위의 사고에서 벗어나 도시 전반의 발전방향과 비전 안에서 그 중심에 문화를 두고 생각해야 한다. 문화 중심의 사고를 해야 한다.

문학작품을 읽거나 또는 직접 고민하며 창작을 해보는 것이 그 다른 어떤 향유나 실천보다도 시민문화력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 예술이 우리의 감각과 감정, 지각을 자극하고 확장시키기 때문이다. 많이 읽으면 많이 보이고, 많이 보면 깊이 보이고, 많이 들으면 구분하여 잘 듣게 된다. 시각과 청각과 촉각을 활성화시켜 뇌기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너무 바쁜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주변에 대해 돌아보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던 예술작품이 문학작품이었던 시실, 사회성이 짙은 『올리버 트위스트(Oliver Twist)』나 『소공녀(A Little Princess)』, 『레 미제라블(Les Miserables)』 같은 소설들이, 또는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던 ‘플란다스의 개’와 같은 애니메이션들이 당시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분명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런데 왜 문화예술과의 역량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일까. 왜냐하면 담당부서의 주된 업무영역인 예술가와 예술지원사업은 시민들의 일상으로 보자면 아주 적은 부분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집을 나와서 학교로, 직장으로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 외출했다가 점심 먹고 집안일하고 산책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주말이라서 함께 집밖으로 만나 잠시의 여행을 즐기고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에서, 만나고 접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를 형성한다. 학교, 직장,

문화매개자는 이슬만 먹고 산다.

60

210531 14:12

☞☞☞ 인천광역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문화를 강화시킨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진 매개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첫째, 매개자와 예술가. 이건 전문영역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연계가 안 돼요.
서로 간에. 둘째, 매개자가 생각하고 있는
생활문화의 개념 자체가 다 달라요. 따라서

매개자도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역량을
강화해야 하거든요. 셋째, 매개자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안 돼 있어요. 서로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도 잘 몰라요. 이들이 정말로
진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토론도
하고 혹은 좋은 사례 있으면 서로 벤치마킹도
나눠도 주고... 넷째, 인천광역시가 됐든

인천문화재단이 됐든 생활문화를 육성하고
확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보자 혹은 예산을 배정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분배해 줄 건지.
예술실천을 하는 사람과 일반인은 다르단
말이에요. 또 달라야 하고. 이들의 활동을
통해 시민들도 기본 인식과 사고의 틀을 깨고,
넓히고,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들을 계속

여기 살아봐 좋아-

61

도시, 식당, 지하철, 도로, 가로수, 길가 쓰레기통, 주차나
주행방식, 각종 미디어, 공원, 교량, 바닷가... 즉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아무리 멋진 미술관, 훌륭한
공연장에서 좋은 예술작품을 만날 수 있어도 이 순간을
제외한 모든 일상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인간의 안전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는 문화가 팽배해있다면, 사회역사적
가치가 충분해도 오래됐다면 싹 밀어버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깨끗한 고층 오피스텔로 채우자는 분위기라면,
과연 문화도시일까.

인천광역시가 문화적인 도시로 변해가려면 도시
전체적인 층위에 문화적 시선이 입혀져야만 가능하다.
7-80년대 시민문화와 오늘날 시민문화를 비교하자면,
오히려 전자가 더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웃과 인사
나누는 골목 문화도 있었고, 이웃의 고통을 나누려는
마음도 있었고, 적어도 일하다가 비정규직이라서 또는
육체노동자라서 쉽게 죽음에 노출되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대놓고 말하진 않았다.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가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자살률 1위라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최근 웹툰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장르물이
이른바 로맨스판타지인데, 이 장르의 핵심은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요'라는 정서이다. 그래서 환생하고,
새로운 화려한 삶을 살아간다. 10대와 20대가 이런
정서에 익숙하다. 가상의 삶이 현실의 삶을 대체하는 것,

6666 민들어줘야 돼요. 그게 문화도시 아닌가요?
 6666 예술가하고 활동가하고 매개자가 별개라고
 단정하기 좀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예술가
 중에서도 활동가와 매개자 역할을 겸하시는
 분들도...
 6666 아, 그렇죠.
 6666 맞아요.
 6666 일상에서 문화체험이나 예술체험을 하고
 싶는데, 이게 그냥 공놀이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 이끌면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전문가도 연결하고, 그런
 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활동가이자
 매개자인 거죠. 그런 면에서 활동가와 매개자의
 역할이 중요하단다. 그런 동의해요.

6666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매개자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그들의 역할을 키우기 위한
 방안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정리 못했지만, 매개자 개인의 능력이 아닌
 환경의 한계가 명확한 게 뭐냐 하면, 끊임없이
 관에서 이들에게 공무원들처럼 계량적인
 성과 보고서를 내게끔 해요. 그렇게 되니까
 매개자로서 활동할 시간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단지 보고서 작성에 매몰되기 쉬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생활영역에서
 활동해 온 매개자들은 영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천이고
 서울이고 전국적으로 매개자를 지원해 주는

메타버스⁶의 열풍이 이런 분위기를 더 강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한쪽에선 공동체를 복원하겠다며
 마을활동가를 키우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예술가를
 투입한다.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며 성장보다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여전히 이익창출을 위해 바다를 막고
 고층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짓는, 공동의 자산을 파괴하는
 사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한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의
 문화를 높여야 한다는 것은, 이런 상호 모순적인 행정부서의
 정책과 사업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물론 작은 규모에서 작은 단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이는 자생적
 영역이지 정책의 영역이 아니다.

시민들이 인천에서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함께
 행복하다고 느끼게 만들어가려면, 미세먼지도 적어지고
 감염병에도 안전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려면, 초록의
 물결이 넘치고 깨끗한 바다가 있고 식물과 동물이 편안하게
 사는 곳이 되려면, 이웃의 편안함이 우리 모두의 편안함이
 되어가려면, 그래서 소멸하기는커녕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되려면,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변화에 정말 동의한다면,
 그 지향점의 핵심에 이러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시민들이

6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와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를 합성된
 용어. 추상적인, 즉 현실세계가 아닌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도 포함한다.

사업이 점점 없어지지 않아요.. 활동비 지원에 대한 성과가 지속이 되지 않고 한계점이 보이니까 매개자들에 대한 지원이 점점 사라지고 차라리 시민에게 직접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솔직히 지원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정산하기 편하고 좋으니까요. 강사비의 경우 그냥 예산 주고 원천징수 해버리면 되고, 발표회는 대관비랑 홍보물 제작비만 지원해 주고 끝내면 되니까요. 지역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끝나는 건데, 실은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매개자의 역할과 역할이 커져야 돼요. 생활예술을 이 매개자, 활동가 중심으로 끌고 나가면 좋겠어요. 문제는, 현장에서는 생활영역이 영역도 다양하고 매개자들의

역량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 중간을 잡기가 너무 힘들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210531 15:04

JJJJJ

시민문화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일종의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는 건 어떨까요. 매개자 인건비를 포함해서요. 개인을 지원하는 게 아닌 결국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고, 프로그램 성격은 명확하게 시민문화력 확장을 목표로 하는 거죠.

☹️ 오케이. 그건 되게 중요한 지점이네요.

JJJJJ 인천에서 이린 프로젝트 한 10개쯤, 아니

20개쯤 운영을 해보는 거예요. 1년간, 또 2년간, 3년간, 다년 사업으로. 선정과 평가의 근거를 잘 설계해야겠죠. 시민문화력이 확장되었다고

많아지는 것을 놓아야 한다.

시민들이 우리를 둘러싼 극단적인 이기주의적 사회의 분위기들을 조금씩 바꿔나가게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문화적인 도시의 지향점이 인천광역시 전체에 녹아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하려면 문화 부시장 정도는 되어야, 문화관광국이건 원도심재생이건 해양환경국이건 도시계획국이건 도시 전체를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문화라는 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순으로 옮겨가는 하나의 단위가 아니라 사실상 정치와 경제와 사회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계속 설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선 시민 전체의 삶이 바뀌는 방법밖에 없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보는 것부터 접하는 것까지 천천히 바뀌어 나가야 하니까.

사실상 이런 이야기는 문화예술영역의 전문가들이 언제나 주장해왔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언젠가는 문화적인 관점이 있는 정치인들이나 선출직 행정 수반들이 늘어날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지만, 여전히 김구 선생님의 발언만 반복해서 언급할 뿐 실질적인 변화의 폭은 넓지 않다.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후 반세기 동안 경제발전만이 우리 사회의 가장 커다란 목표라고 상정하고 살아왔기 때문일까, 아직까지도 그 지배력이 여전히 확고하고도 강하다. IMF(국제 통화 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금융규제사태 이후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요.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잘하면 정말 좋은 매게자와 좋은 시민 단위를 하나 가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하나만 있어도 엄청난 거죠.

JJJJ 10개 중에 하나. 또는 20개 중에 하나. 3년 뒤.

사실 엄청난 평가죠.

☞ 그게 나중에 확산되는 겁니다.

☞ 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걸 재단의 역할로 하자고요?

☞ 네. 그걸 재단의 역할로 하는게... 이미 재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요.

☞ 아니면 멘토링 해결 예술가를 따로 모집을 할 수도 있고요.

☞ 어쨌든 재단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시민의 문화 역량을 육성하는 것이 재단의 고유 역할이기 때문에 그걸 잘해야 되는 거죠.

재단이.

☞ 그렇죠. 그렇죠.

JJJJ 멘토링을 예술가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예술가로 제한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붙어야 한다는

210531 15:10

☞ 저는 여기서 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재단에는 이미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파악하고 있는 예술가나

예술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서 아예 멘토링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재단에서 연결해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면서, 주변에서 보고 듣는 뉴스들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청년이, 한 집안의 남편이자 아버지가 기계에 끼어서 또는 건물에서 떨어져 죽는다. 처벌과 규제를 강화하고 감시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은 재벌의 힘과 재벌의 성장을 대한민국의 성장과 동일시하는 정치인들에 의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흡수저로 태어나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저런 위협에 처한다는 사회적인 경고 메시지 앞에,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경쟁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것 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옆 친구를 끌어내려야 자신이 올라갈 수 있는 경쟁사회에서 무슨 공동체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문화적인 자치단체장이 나올 수도 있고, 언젠가는 문화적인 기초자치단체 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많아질 수도, 그래서 문화적인 대통령과 문화 부시장이 당연한 날을 꿈꾸면서 말이다. 해외의 정치가들은 예술에 대해서도 아주 풍부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부러워하는 언론 보도들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를 실현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이것도 역시, 이런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아져야 가능할지 모르겠다.

앞으로의 추진 방안에 대한 고민도 쉽지 않다. 예컨대 도시계획위원회의 민간 위원 22인 중, 문화 전문가가 포함되기 시작한 것도 송영길 시장 시절부터이다. 내년엔 선거가 있으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 의제로

것이죠.

JJJJJ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민문화를 확장시키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는 기획자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개인 돈으로 실현하기 힘든 상황이야.
하지만 아이디어가 되게 뚜렷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
시민이든 대학이든 혹은 학생이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같이 창출하고 공유하고
다들어보기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아까
말씀하신 평가기준 문제. 만약 시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평가기준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어서
문화 혹은 예술적인 기준으로 개발해야 돼요.
관과 문화 전문가들이 합의하면 신뢰하며 가는
거지.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가보자. 그게
문화다. 이렇게 설득시키면서 가야죠.

JJJJJ
나중에는 동아리 차원을 지나 조합이
만들어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
아우. 그러면 가장 이상적이죠.
JJJJJ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이 지원 없이 스스로
필요한 자원을 모아서 어떤 문화 향유를 할 수
있게 되는가. 결국 그런 경험을 쌓아보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210730 10:05

JJJJJ
뒤 저희가 정리했던 거는, 인천의 시민문화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매개자가
활동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매개자가 프로젝트를 실행해 볼 수 있는 1년
단위 예산을 좀 큰 규모로, 10개 팀씩? 그렇게
몇 년간 계속 해보다 보면 성과가 나지 않겠다.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다른 영역보다 힘이 약한
문화영역으로서는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9월 16일에
있었던 <2021 인천광역시 문화예술분야 예산정책
토론회>에서 인천광역시의 실질적인 문화예술영역 예산이
전체 예산의 1.24%로, 7개 특별·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았고
그 평균보다 0.82% 낮으며,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 평균 대비 1.01%가 낮은 상황이다. 예산이 정책
중요도를 반영한다고 보면, 인천광역시에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도가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아마도 지금으로서는, 인천광역시 전체에서 어떻게
문화적인 색채를 입혀나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선 예술과 예술가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도시 전체를 포괄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수밖에 없을 듯하다.

시민문화력 ②: 문화매개자는 이슬만 먹고 산다.

시민의 문화력을 높여나가기 위해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문화매개자의 활동 지원이다. 문화매개자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제의식이나 욕구를 느끼도록
하고 이를 이끌어서 다음 단계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다. 이들과의 접촉을 통해
시민은 자기의 기본적인 인식과 사고의 틀들을 깨기도
하고, 넓히기도, 심화시키기도 할 수 있고, 창작도

☞ 어떻게 하면 인천의 시민문화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의제 중 하나잖아요. 교육의 측면 외에도 문화 활동가 매개자가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것을 통해 문화 매개자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

210730 10:40

☞ 하나만 더 얘기하면 결국은 문화예술정책 대부분이 정부의 예산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체적인 힘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 관련 예산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사실 지금 더욱 문제가 되는 건 집행 방식 아니에요? 이것을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바꿀 수는 없나?

JJJJ

☞ 그러니까 같은 돈인데 왜 문화예술영역의 집행 항목이 다른 산업의 영역하고 같은지..... 인건비 책정, 기획, 문화예술이 가진 일종의 실험성. 이런 실패를 가정하고 가는 건테도 예산 집행에서 정산 그리고 결과 보고까지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의 특성에 맞는 집행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별도로 안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는 변할 것 같은데, 예전에는 문화예술의 경우 시의 예산과 국가의 예산이 결합되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주로 중앙정부의 방식을 따라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지자체에 예산이 통으로 내려오잖아요. 항목별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

경험해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지원은 너무 미미하고 그러기에 성과란 더욱 미미하다.

시민은 자연스럽게 문화시민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시민에서 문화시민으로의 전환, 또는 제대로 된 시민력을 키워나가려면 문화매개자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전문가, 활동가, 기획자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이들은 다양한 예술영역과 시민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때로는 예술가가 직접 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다양한 예술영역이란 미술, 음악, 연극, 만화, 미디어나 융복합 같은 예술영역만이 아니라 창작이나 향유, 교육이나 체험, 프로젝트 수행 같은 모든 활동영역을 포함한다.

현재 문화매개자의 상태는 어떠한가. 문화매개자의 역량도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상호간의 네트워크가 잘 보이지 않고 각자만의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이 전체적인 방향의 내용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서로 간에 토론도 하고 혹은 좋은 사례가 있으면 서로 나누기도 하면서 상호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기회는 커녕, 활동 자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현재까지의 지원사업들은 대부분 한계가 뚜렷하다. 제대로 인건비나 기획비를 책정하지 못하는데다 비현실적이고 계량적인 계획서와 성과 보고서를 내야 한다. 게다가 공모와 선정과정,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까지

실은 지자체에서 의지가 있다면 중앙의 방식을 바꿀 수 있죠. 과거에는 중앙의 방식을 따라야만 했지만, 이제 예산의 항목을 정하고 집행하고 지원하는 모든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 왔으니까요.

☞ 그래서 나는 그런 용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인천 문화예술 관계되는 사람들 혹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던 사람들을 모아서 예산 항목과 집행 방식의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210730 10:51

!!!! 인천 출신이긴 아니긴, 인천을 떠났긴 아니긴,

인천에서, 또는 인천으로 다시 돌아와서 활동을 하게끔 여건을 만들어줄 것이지 인거죠. 크게 보면, 그게 사실 돈만 준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것인지, 이걸 먼저 고민해야겠지요.

감안하면 실제 사업시간은 1년도 채 되지 않는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그 성과가 몇 개월 만에 나오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서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잡무에 시달리게 되니 매개자로서 활동할 실질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진다. 실제로 문화매개자 자신도 활동 경험과 영역이 제한적이다 보니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힌다. 결국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지원기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어도 자신들도 평가와 감사의 대상이다 보니 이런 유형의 지원사업이 적절하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당연히 성과물은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 점점 매개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비판적으로 보자면 지원기관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가장 편할지도 모른다. 가장 많이 요청하는 강사비는 입금하고 원천징수 해버리면 되고, 발표회는 그냥 대관비나 홍보물 제작비만 지원해 주면 큰 비판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화매개자는 이슬만 먹고 산다’라는 문장이 등장했다. 문화매개자들이 제대로 활동하게끔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실질적으로 시민의 문화적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문화매개자들의 활동이 정말 필요하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을 활용한 프로젝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지원사업 설계가 필요하다.

물론 처음부터 전체 지원사업들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극복해보려는 시도들이 있어왔다. 부천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청년예술가 S’는 시상금 형태로 정산이 필요한 300만원을 지원한다. 겨우 이 정도 시상금에 정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국에서 많은 젊은 창작자들이 지원을 했다. 그만큼 정산이 없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매력의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의 ‘청년기획자 활동지원사업’의 경우, 기획자에게 5개월간 80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고(활동일지를 써야하지만) 사업비를 년차에 따라 1,5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했다. 3년차 계속 수행을 하는 경우, 활동비 400만원에서 사업비 2,500만원까지, 최대 2,900만원 규모에서 움직일 수 있다. 상금, 활동비 등으로 방법을 찾는 것이다.

문화예술계의 예산 집행 구조가 산업계의 용역하고 똑같다는 문제,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실험성을 부정하는 문제들은 사실상 어제의 문화예술계가 제기하고 야기한 질문에 대한 답인 부분도 있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업비 정산, 문화예술계 내부의 형평성에 대한 요구 등이 만들어낸 부분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깔끔한 정산과 형평성이 문화와 예술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이러한 실험을 해왔고 그것이 그다지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부분을 설득해야 한다. 다른 영역도

그렇겠지만 문화예술에는 특히 실험 정신이 있어야 하고, 실험성은 원래가 실패를 가정하고 가는 것이다. 만약 문화예술이 실험 정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없다면 산업계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심지어 산업계도 실험과 혁신을 추구해야 오래 살아남는다.

인천광역시 공무원이나 인천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이 직업 이런 제안을 하기는 어려울테니, 토론회 같은 공론의 장에서 제안해서 받아들여지게 하는 방식이 유용할 것 같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문화매개자의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자들과 함께 사업의 설계, 예산 항목과 집행 방식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하면 제대로 실험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모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볼 수 있는 유형으로는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문화매개자에게 시민문화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10개나 20개쯤 다년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을 고민해볼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후연구과정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 단년차도 있고 다년차도 있다. 1년에 인건비로 3,000만원 가량 책정하고, 지도교수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겠지만, 결과평가는 논문 1편이다. 물론 선정되기 위해 계획서, 끝나고 나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하지만 그에 대한 별개의 평가과정은 없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논문이다. 가만히 뒤도 열심히 쓸 수밖에 없다. 자신의 평가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원기관의 평가가

아니라, 학계가 알아서 평가한다. 이러한 자정기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몇 년 정도 하다 보면 좋은 결과물과 그렇지 않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예를 들어 10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면, 2-3개 정도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온다면 성공적이라는 지표를 제시해주어야 한다. 공무원들은 10개를 주면 10개가 다 잘 돼야 하는 구조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개인 평가도 또 받고 부서 평가도 잘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구조 밖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문화매개자 지원사업은 매번 제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예산 책정 혹은 예산 집행 방식, 정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 실질적인 사례나 근거들이 차츰 쌓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실험성과 실패를 감안하다는 차원에서, 아무래도 일정 정도 청년층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특히 인천의 경우, 지속적으로 예술대학의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유치나 인천대학교에 음악대학의 설립 같은 비현실적인 방안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엄청난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도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대학의 설립 대신, 인천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타 지역의 예술대학이나 다른 대학을 졸업하고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게끔 만들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다. 이들이 귀향하게 만들 수 있다면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이익이 된다. 만약 부모님의 집에서 함께 살 수 있다면 더 이상 비싼 월세 고민을 하지 않고 거주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서울 경기권보다 주거비용이 줄어든 것이다. 인천으로서는 새로운 기획자들이 유입됨으로써 더 풍부한 예술적, 문화적 인적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예술가나 기획자가 인천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성장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나 청년, 시민들의 문화력을 키워낼 수 있는 실험적이고 다채로운 프로젝트들을 실행한다면 인천광역시로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할만하지 않을까.

물론 문화매개자를 제대로 활동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에 청년만을 고려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나 참신함, 실패 경험에 대한 인정, 이런 것을 설득하기에 좀 더 유용하다는 점에서 고려해볼직하다. 여하간 실험성, 참신함, 실패경험에 대한 인정, 그리고 사업지원의 안정성, 최소한의 보고서, 판단에 따라 사업기간의 연장, 사업이 끝난 이후 활동영역의 확장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고민과 연구, 토론 이후 궁극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에 맞는, 문화매개자가 제대로 활동하고 그를 통해 자신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과 예산 집행 방식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문화매개자도 밥은 먹고 살아야 한다. 참이슬도 마시겠지만, 밥도 먹어야 하고 자신도 가정도 돌봐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자신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실행하고 그것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면 언젠가는 지원사업이라는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매개자들의 역량도 키울

수 있고 매개자들 사이의 네트워크도 만들 수 있으며, 운이 좋다면 이를 통해 자신만의 회사를 만들어 내거나 협동조합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질지 모른다. 이런 역량 있는 문화매개자가 인천광역시에 늘어나면 그만큼 인천광역시의 문화적 잠재력이, 역량이 풍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매개자들이 안정적으로 시민문화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인천 곳곳에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성장한 시민들이 스스로 삼삼오오 모여 자신들의 힘으로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들을 모아서 사회적 문화실천을 하게 된다면, 그런 시민들이 많아진다면 인천은 점점 더 문화적 도시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보면 문화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바꿔나갈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

이승원(송도 2동 주민자치회)

이애향(민중의 집)

최경숙(문화 바람)

Q1

생활문화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애향: 몇 년 사이에 '다양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저는 생활문화라는 게 누구나 하는 것이 문화고 생활에서 끌어내야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결국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자기의 무엇인가를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것을 접하는 것'이 생활문화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최경숙: 모여서 이 장르를 잘하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이걸 배워보고 싶다는 조금의 호기심. 막상 가서 하다 보니까 일종의 성취감을 느끼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기고, 그 관계 안에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각을 하고,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승원: 저는 문화적 범주를 넓게 보면서, 다양한 분야를 포용하면서 가기 위한 주체들의 활동을 ‘문화’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것이 결국 문화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 교육 이후로도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무언가를 배우고, 또 배움에서 그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신을 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생활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겠죠.

Q2

문화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최경숙: 단순하게 혹은 단기간에 마련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소위 행정에서는 1년 단위로 끊어서 성과를 측정할 하다 보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온 사회가 같이 노력해야 한 10년, 20년 후에 뭔가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며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너무 이상적으로만 들린다는 게 문제예요. 꾸준히 바라봐주는 일치된 시선이 없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이승원: 결국은 다양한 행정의 이름들이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부서를 나눠놓고 직무들을 나눈 거죠. 결국 그 수혜자는 국민, 시민, 주민이거든요. 이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해요. 그리고 단년도로 하는 것들은 차년도 효과를 볼 수가 없다. 저는 문화적 혁명의 시기라고 봐요. 결국 문화적 일자리 창출 그리고 문화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순환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이라는 게 별거 있나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라가는 거고요. 끝나면 그저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단발적으로 굿즈만 주는 그런 거 말고요. 최소한의 생존이 가능할 수 있도록 투자를 사람에게 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매개자 역할을 하고 그 이상이 역할을 하면서 많은 마을 사람들을 연계시키거든요.

Q3

정성적 평가로 변환할 시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최경숙: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성적이죠. 다만 어느 정도 활동을 했으면 정량적 성과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성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요구는 해야 되겠지만 저는 정량적 평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원: 좋은 논문은 양적 연구만은 아니잖아요. 질적 연구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고, 요즘은 복합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 자체도 참여한 사업에 따라 질적 평가가 더 중요한 것도 있고요. 탄력성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저는 정성 평가 항목은 결국 ‘주민 수용성’이라고 봐요. 시 단위에서 하는 것은 시민들을 얼마나 받아들였는지도 평가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게 단순히 참여율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그걸 지지했는지를 평가 지표로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의 다른 공동체, 동아리, 기획자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평가해준다는 지지를 받아내는 것 자체가 정성적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4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천의 지역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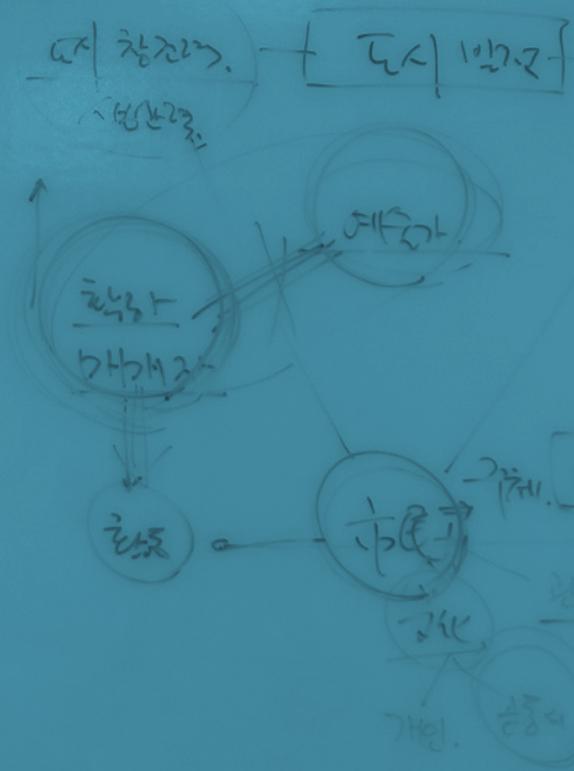
최경숙: 인천만의 특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인천은... 특성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워낙 과거부터 타 지역에서 몰려 들어와서 구성된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지금은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서 사실 특성은 잘 모르겠어요.

이승원: 제 대답은 “없다. 그걸 만들면 안 된다.” 예요. 인위적인 건 항상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동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문화가 되는 것이지, 자꾸 행정은 뭘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을에다가 권한을 줘야 된다는 얘기는, 탁상머리에서 어떤 걸 만들어낸다고 되지 않아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차기 정부에서는 문화권을 잃었으면 좋겠다. 권한을 행정이 갖고 있지 말고 내려줘라. 그러면 된다. 그걸 제도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원력. 지양자녀



행복. 삶의 것.

구체. [한미. 가림]

관공. 정. 창간자...

예술 지원

탐사단

(생활)예술 지원정책

문화공간 탐사일지

210429 15:25

- 실제로도 오래 하시지 않으셨어요?
- 오래 하긴 했는데 이런 지원사업 같은 건...
- ♫♫♫ 저는 2013년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7-8년차? 임승관 대표님은 전에 공간까지 운영하셨기 때문에... 이게 다 공간이 된다는 게 신기하긴 해요.
-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관심을 주는 것

같아요.
공간뿐만 아니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유희공간이나
다양한 문화공간과 관련된 정책도요.
♫♫♫ 지난번에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공간 얘기가 나왔어요. 이번에 15개의
공간을 개설을 하는데, 마을기업 장게서 거기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 하드웨어만 있고, 소프트웨어가 없어요.(웃음)
♫♫♫ 그니까요. 공간은 있어요. 각 자치구에 몇
개씩 만들어요. 그런데 막상 “뭘 해야 될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 운영 주체가 없나보죠.
♫♫♫ 그럼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 건물부터

예술 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권은숙, 우사라, 이강민, 이민하, 임승관

의제 발굴 배경과 목적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차별화는 그 지역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과 방법에 따라 크게 영향 받으며 형성된다. 하지만 정부에 의한 지원과 정책 생산 독점은 한계에 이르고 있다. 현대 사회는 점점 이질적 가치를 추구하고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복잡하고 중첩된 상호작용으로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점점 다양한 가치가 출현하고 여러 세계관이 함께 존재하는 사회는 새로운 기득권 구축과 소수자 배제와 같은 갈등 해결도 정책 결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기존의 정책 결정 방식으로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낮추고 통제력을 감소시키는 원인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실효적인 거버넌스(governance) 시스템을

공간부터 만든 건가...

●●● 그런 곳 꽤 많아요.

♫♫♫

유희공간이 많아요. 새로 짓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제가 느끼는 건 비어있는 텐데

자치기구가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약간 시민들한테 문화복지

형태가 됐든지 아니면 예술가한테 좀 오픈해서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부시별 칸막이도 여기서 작동을 많이

하는데요.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서 공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경기장마다 방들이 꽤

많거든요. 그거 통아리나 뭐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생활체육이 다 선점해서 예기도

못했어요.

같은 문화에 예술체육과인데도 여기하고

저기하고가 달라요.. 저것도 아마 무슨 복지

관련된 부서에서 다 확보해놓고 고민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게 문화예술로 넘어오려면

칸막이를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하는 메타컨트를 센터가 아쉬워요.

♫♫♫ 그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면 뭘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냥 년지사

얘기를 했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쓸 사람을 구하시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뭘 해야 될 지만 얘기를

해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카페를

운영하는 경기장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 지금

안 쓰잖아요. 엄청 좋은 공간이거든요.

♫♫♫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생활문화 쪽 공모사업으로 인테리어 해놓고 문

모색하고 실행하는 것도 과거 산업사회와 달리 중앙과 지역 정부가 행정력만으로 늘어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일부 전문가가 독점하던 정책 생산과 실행 순위결정도 점차 지역분권과 문화자치, 주민자치 개념으로 분산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들의 노력은 좋은 정책을 기대하거나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정책 결정권은 정부에 있으며 본질적으로 ‘제재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누가’ 정책 결정자가 될 것인가만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정치권이나 정부가 들어와도 현장에서 이론 성과와 경험이 안정적으로 전수될 수 있는 체제(system)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가 가능한 반영하는 노력은 거버넌스가 아니다. 시민은 제안하는 권리를 갖지만 그 책임은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시민이 지역문화자치에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책임도 나눌 수 있는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

본 논의는 구성원들이 현장에서 느낀 다양한 문제점과 그 원인을 찾아 정리하였다. 초보적이지만 문제의 중심 고리로 여겨지는 해결방안도 제시한다.

답았어요.

■■■■ 코로나19 때문에 답은 거예요?

■■■■ 네, 일단 적극적이지 않아요.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 하는 사업이지요.

■■■■ 원래 생활문화 공간인데 A4용지에 ‘북카페’

적어서 붙여놨어요. 커피 이런 건 없죠. 사람도 없으니니까.

■■■■ 기획을 다 해줬어요.

■■■■ 저희가 기획을 해줬는데, 그대로 안

만들었어요.

210719 14:30

■■■■ 저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공간

지원 실태를 통한 유희공간 및 문화 공간

지원 정책’을 고민 해봤는데, 그 대상을

인천광역시의 ‘친개 오아시스’, 인천문화재단의

‘동네방네 아지트 사업’, 인천문화재단의

‘점점점 프로젝트’, 연수문화재단에서도

공간 지원사업으로 ‘우리 동네 문화 동네’가

진행되고 있고, 구 단위에서는 동구청이나

중구청에서 청년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비교분석을

210429 15:32

■■■■ 유희공간 사례 조사도 한 쪽지 넣겠습니다.

■■■■ 네. 공간에 대해 관에서 원하는 건 자생했으면
해요. 활성화도 되고, 근데 방식에 문제가

1. 늘어나는 공간 지원과 줄어드는 운영자 지원?
다양한 문화 공간 사업은 늘어나는데 그 공간을
운영하는 기획자, 예술가는 점점 어려워진다.
지원사업의 문제와 원인은 무엇인가?

2. 지원 공모 선정, 경쟁에서 협력으로 바꾸면
어려나는 일?

전문 선정위원이 당락을 결정하는 기존 지원제도는
갈수록 공정성과 신뢰에 대한 의문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원자들을 은근히 경쟁 관계로 대하게 해
연대와 협동 의욕을 방해한다. 지원자가 선정과정에
함께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3. 예술, ‘지원’을 넘어 ‘투자’로 바꾸면?

매년 반복하는 동일한 지원 항목과 예산 규모로는 그
사업을 발전시키거나 확장할 수 없다. 지역 단체들의
수행 능력과 경험에 맞는 단계별로 올라가는 지원
시스템이 있으면 성공하는 문화 산업도 가능하지
않을까?

4. 우리와 다른 지역 지원제도를 비교하면?

타 지역에 좋은 정책사례가 있으면 도입이 좀 더
수월하다. 전국 예술지원제도에서 참조할 만한 정책을
찾아보자.

해보려고 합니다. 나아가 정산 방식까지. 여러 지원사업들이 차별화가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간 지원사업에 대한 차별성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지원을 통해서 유희공간이나 개인공간을 내주는 방식이잖아요. 거기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공간 운영자와의 미팅을 통해 사례를 모아보고, 이것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지원 영역을 더 넓으면 해요. 인큐베이터나 창작 실험들, 개인의 생활 속에서 새롭게 해보는 거잖아요. 새로운 거에 대한 지원이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과 제도적인 것을 어떻게 사업에 창작시킬 수 있을까. ‘천개 오아시스’ 같은 경우 시작한지 3년이다 되었고 더 이상 지원이 없다. 그래서 어느 기사에도 나오듯이

“지원이 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대안들이 계속 이야기는 되지만 어떤 제도나 서류로 보장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 연개, 네트워킹, 이런 것을 제도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또 공간이 주로 지역으로 구분이 되지만 유형별 공간도 조사를 해서 이것들의 차이점을 만들어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아가 생활문화공간이나 예술공간의 지원 방식을 찾아보고 싶어요. 공간 지원, 프로그램 지원, 실험적인 연구 지원. 이렇게 세분화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보고 싶기도 하고요. 특히 실험적인 것들을 더 많이 해볼 수 있는 지원 방식을 공간

1. 예술 정의의 확장과 다층화

기존의 예술지원정책들이 결과물 생산과 발표에 치중되었지만 최근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등을 중심으로 실험이나 과정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예술의 정의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예술가는 하나의 작품을 독자적으로 창작하는 입장이었다. 현재는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나 창작 과정을 경험하며 유형의 결과물이 없는 방식 등 다양한 행위 자체를 예술로 보면서 예술의 범주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과거에는 회화, 조각 등 유형의 작품이 완성되어 화랑을 중심으로 작품을 판매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지금 시각예술가들은 미술관 커미션(commission)을 통한 작품제작,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개별 프로젝트 진행, 강연이나 유튜브 활동 등 다양한 연계활동을 통해 유·무형의 결과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활동 전반을 자신의 작업으로 삼기도 한다.

2. 실행 기간의 문제

모든 지원은 공무원 예산 체계에 맞춰져 매해 11월 말 혹은 12월 말까지 사업 집행을 마감하고, 다음해 3월 이후부터나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주요 사업이 아닌 경우

지원정책에서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게 되면 지원 방식과 지원 기준, 지속성, 성과, 참여자의 의견을 취합해서 대안 및 제안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추가해서 설명하실

게 있나요? 지금 공간 지원사업은

인천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았나 봐요. 시에서.

그래서 설문지 검토해 달라고 한번 왔었어요.

◆◆ 설문지 좀 부실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좀 부실하다고 썼어요.(웃음)

◆◆ 네. 이 설문 항목을 통해서 ‘그래서

도출하고 싶은 결론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참 보고 한참 봐도... 이게 ...

그렇더라고요.(웃음)

 저는 제일 맘에 들어온 건 ‘임장’ 문제였어요.

그 설문지를 보면 “행정이 어때요?,” “정책이 어때요?” 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수혜자인 공간운영자들에게 설문을 받는 건데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지금하고 있는 이 정책이 어떤지,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에 쏠려 있더라고요..

열어놓고 더 다양한 입장에서 질문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설문을 통해 공간 운영자들의

상황도 알 수 있고 역할도 알 수 있고, 바라는

점도 알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정책을 바꿀

수 있었을 텐데, 자꾸 정책 효과만 물어요.

공간 운영자는 평가 비교 대상이 없는데. 계속

아까도 말한 것처럼 10년째 비슷한 지원만 받기

때문에 떠오르는 상상력이 없는 거죠. 다른 걸

해봤어야 비교를 할 텐데.

6월, 8월에도 공모를 한다. 이 경우 실제 수행 기간이 3개월 이내로 무척 짧다. 이 경우 짧은 기간 내 사업수행이 가능한 가벼운 형식의 작품이 선정되거나 이런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 제기는 미술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다. 다년지원이 신설되는 성과 외에는 없었다.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일부 사업 공모는 전년도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당해 상반기에 진행하고 하반기에 실시하는 체계이다. 이 방식은 전시공간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관에 의존하는 공간의 경우 하반기 스케줄이 각종 공모사업 전시로 바쁘다. 또한 늦게 공모되어 선정된 작가들은 전시공간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하반기에 시작해서 다음해 상반기에 마감할 수 있는 사업이 불가능한 이유는 집행 담당자가 바뀌어서 인수인계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 매해 예산을 수립과 정산을 마쳐야하는 기획재정부의 요구 정도 일 것이다.

3. 무정산 방식의 실험

예술분야 사업 집행이나 정산을 다른 지원사업들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 실험은 가능한가? 전년도 하반기에 선정된 팀의 예산이 다음해에 지급되거나 아예 정산 하지 않는 방식은?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정산은 중요하다. 그러나 예술가 사례비를 책정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예술가의 생활이 안정적이지

공간은 시민자산화 개념이 퍼지고 있는
 거랑 연관될 수 있어요. 지속할 가능성도
 계속 지원만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체
 펀딩이라든가 자산을 늘려가며 스스로 나갈
 수 있어야 해요. 그제 시민자산화 방식인 것
 같아요. 서구에 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턱이 너무 높아요. 중소기업 지원하는
 거랑 같은 수준이에요. 이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평가 합니다. 경영 평가를
 하죠. 경영차원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활동과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생활문화공간이라든가 문화공간 같은 경우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네. 혹시 추가 설명할 거 있으세요?

이 정도로 조사와 자료를 준비해도 되는지...
 네. 인터뷰도 하실 거잖아요? 제도 점검과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모순점이 드러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원 방식, 기준, 지속성,
 성과, 측정 방식이 제도 입장이 아니라 공간
 운영자 입장에서 제언이 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않으면 리베이트(rebate)에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시상금 방식의 집행(무정산 방식)과 그
 실험 결과를 미술계 내외부의 다양한 시각으로 정당하게
 평가하는 방식 도입은 어떨까? 상금(비용)을 지급하고
 2-3년 뒤에 결과물을 발표할 수도 있겠다.

4. 인천광역시내 발표 현황의 데이터화

아카이브의 문제다. 위와 같은 새로운 방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통계 자료가 근거가 된다. 매년 지원
 받은 예술가들은 작품사진, 리플렛, 포스터, 결과보고서
 등을 지원기관(문화재단 등)에 제출해 왔다. 그렇다면
 지원기관은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들의
 실시 기간, 실시 장소 등의 통계자료를 시각화하여
 공개하면 어떨까.

인천문화포털 아이큐의 문화공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동공간들의 내역들을 살펴보면, 시각예술의 경우 발표
 장소가 동인천에 집중되어 있다. 중구 이외의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관망이 어려웠을 것이다. 이유는 작가들이
 전통적으로 '중구'를 선호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구에 적당한 발표 장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최근에는 부평구, 서구, 연수구 등에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지도상으로는 전시장이 확대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인천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은 동인천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일어나고 있다.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표 장소의 부족과 편중을 해결해야 한다.

선정,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210429 14:32

『공모사업』은 공적 자금을 쓰는 건데, 공모사업이 일반적인 심사에 의해서 선택된다는 것도 취지랑 안 맞잖아요. 공적인

어른? 참여를 끌어야 하는데

○○○ 그런 사실 쉽지는 않죠.

『』 심지어 방송사 경연 프로그램만 봐도 심사위원이 점수를 매기지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점수도 공개적으로 합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 저는 미술의 사례이긴 한데...

『』 저는 사업을 맡쉴드린 거예요.

○○○ 예를 들면, 시에서 하는 공공미술 사업

아이디어를 내면 온라인상으로 시민들이

보고 투표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조금

수박 겉핥기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대중이 한번 참여했다는 걸로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공무원들이 약간 면죄부를 받는다는

지점도 있어서 대중참여 영역은 사실 제도를

개선하기가 쉬운 영역은 아니에요.

『』 그러면 예술을 하지 않는 일반 시민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은 결국엔 시민들이

심사를 보게 되면 시간을 낸 거에 대한 보상을

5. 인천 갤러리 환경과 미술시장

한국의 미술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중 하나는 작품 판매다. 화랑협회 등의 반발이 있었지만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미술인들이 직접 작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작가장터 사업을 시도했다. 작품판매는 작가가 직접 거래하는 경우와 달리 갤러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판매 수수료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거래 증빙, 적절한 가격 형성 등 중요한 역할을 갤러리가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갤러리와 동행은 작가 입장에서 필요한 일이다.

외국의 경우 다양한 수준의 갤러리가 존재한다.

신진작가의 경우 지역에 위치한 작은 갤러리로 시작해서 점차 성장하면서 주요 갤러리로 옮겨가 세계적인 무대에 소개되곤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중간에 속하는 갤러리가 턱없이 부족하다.

주요 갤러리들은 한국 신진작가에 투자해서 외국에 소개할 경우 위험 요소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미 입지를 다진 외국작가를 역으로 수입해 국내 컬렉터에게 소개하고 판매하는 일에 더 흥미를 느낀다고 한다.

인천의 경우에는 전시지원을 받아도 전시장이 마땅치 않다. 인천에는 대안적 공간들은 있어도 작가의 성장이나 작품 판매를 함께할 상업 갤러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 전체를 봐도 미술시장의 규모 특히 국내작가의 작품을 구매하는 규모는 작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미술인들은 전속화랑 없이 각종 기금에 의지해 작품 활동을 이어간다.

준다고 제치세요. 메리트 있고, 지역에 관심이
가지고 활동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당신이
활동하는 것의 가치가 이정도예요.”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접을 해준다면 저는 공론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원에서 배심원을 보면 무작위로 랜덤으로
선정하잖아요. 범정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 인천문화재단도 지역문화재단도
몇 곳에서 그렇게 배심원처럼 써요. 관심 있는
사람 쪽 앉혀놓고 이 사람들 한 40% 선정에
기어하게끔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전문에 술영역은 시민들의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는 걸 말씀하신 거죠?

●●●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이 더 수월한 영역도
있고, 사실 쉽지는 않아요.

아, 유명한 사람에게 아무래도 마음이...

210429 14:52

■ ■ ■ ■ ■ 배다리는 이미 공간이 많으니가 경쟁구도
말고 이 안에서 같이 해결할 수 있게 해 달라.
마을에 작가가 유입되고 원하는 작가와
협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 식이 아니라 인천광역시에서 지원 받는
방식으로 해서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단계별 협업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술가들끼리
연대해야 양질의 문화에 술활동이 생겨나요.
하지만 옆에서 같이 하는 사람을 경쟁자로
인식하게끔 만드는 지금의 선정제도는 그런

최근 인천연구원에서 인천형 아트옥션 도입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후속 작업의 움직임이 보인다.1
인천광역시가 옥션 같은 펀딩을 추진하려 했다. 갤러리를
통한 작품 판매가 1차 시장이라면, 경매는 작가 손을 떠난
작품이 화랑이나 컬렉터에 의해 소비하는 2차 시장이다.
1차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인천 미술계에서 2차 시장의
성장은 기대하기는 힘들다.

6. 인천문화재단 창작 지원과 공개 시스템 문제점
많은 지원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니터링이 아쉽다.
선정된 사업들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2에서 주최하는 ‘예술과
기술융합’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공개된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원사업으로 수행한 작품들을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공개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지원사업의
수혜자가 예술가에만 머물지 않고 그 예술작품을 향유하는
일반 시민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예술가 복지를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3이
설립되었다. 이는 다른 예술지원사업도 복지 개념으로

- 1 민경산, 「인천형 아트옥션 도입방안 연구」, 인천연구원, 2020
- 2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문화예술진흥기금) 및 동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을 목적으로 2005년 설립되었다.
- 3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2012년도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 활동을 하면 할수록 자꾸 경쟁자들이 늘어나니까요.

210429 15:10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민주적인지 혹은 공정한지에 대한 문제가 좀 더 커져야 하고요. 생활문화라든가 지역사회공동체 관련된 거는 정말 참여심사제도 해도 무난하거든요. 예술가들은 다르죠. 저작권 문제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발표를 한다는 게 안 되더라고요.

●●● 여러 명에서 하는 지역 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는 아이디어 도용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공개하기가 어렵죠.

오히려 비평 쪽으로 해서 간접평가를 받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참여심사제도를 안 했을 때는 서로 막연한 경쟁관계가 되는 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서로 지켜보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210520 14:00

다양한 공모 사업의 선정 과정. 이전 생활문화도 마찬가지로인데, 비평이나 평가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측정 기준이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나이가 들면 원로가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작가들 내에서 평판이 작용할 수 있어서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 같 것인지 아니면 비평의 역할을 강화할 것인지.

보는 오해를 일으킨다. 예술가 스스로도 주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식의 풍토가 생기기도 한다. 시민들은 예술인을 뭉성한 존재로 보기도 한다. 복지사업과 예술지원을 구분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서울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장애예술가의 예술표현 활동 지원사업 도입은 평등한 시민문화권 실현 차원으로 도입돼야 한다.

공개된 플랫폼과 같은 시스템이 필요한 다른 이유는 지원자들이 중복되는 사업을 피하기 위한 사전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카이브가 없으면 다음에 선정된 작가들이 다시 처음부터 자료조사를 해야 하거나 짧은 기간 표피만 훑고 마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일반공개를 통해 해당 사업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시민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들을 종합적으로 누적하면 이를 바탕으로 예술가 업적에 대한 공정하고 올바른 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엽적인 지원사업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예술활동이 공개된 플랫폼으로 인문문화예술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해결해 보기를 희망한다.

생활문화 지원정책의 개선 방향

왜 시민들의 생활문화를 지원해야 하는가. 10년이 지나도 멎있는 답이 없다. 시민의 문화적 감수성 향상과 여가생활, 취미활동, 예술적 기량 습득 등 민생에 절실한 것도

그런데 비평은 서로 아는 지역 사람들이하기
필드러워할 것 같고 그건...

(문열고 들어오는 소리)

다같이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생활문화 쪽은 참여심사제도가 있죠.
제가 다른 지역에서 '협력적 참여심사제도'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선정을 해놓고 보니
전체 합계가 기존 예산보다 초과가 되니까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스스로 깎았어요.
총합이 예산 안에 들어올 때까지 집에도 못
가고 계속 깎는 거예요. 그런데 두 방식으로
했어요. 하나는 큰 강당에 사람들이 꽂
앉아서 “자, 지금부터 깎아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팀당 45만 원을 깎아야 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절대 안 깎는 팀이

세 네 팀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 개별 킵막이가
되어있다 보니까 시간은 가고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지고 그랬어요. 반대로 그다음 날은
5명씩 모둠을 지어줬어요. 삼각형의 테이블에
5명씩 앉고 각 모둠마다 매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
다른 거죠. 웃는 소리가 나고 일어나서 명함
주고받고, 왜냐하면 자기 사업 설명하다 보니까
얼굴이 가까워졌잖아요. 마음이 좀 열리는
거야. 한 곳은 이해를 못하시는 어르신들
나머지 사람들이 설득하고, 친철했고, 친절히 설명하고,
오해가 풀리면서 거의 다 해결이 되었어요..

이런 팀도 있어요. 여기는 애초에 씨넨 금액이
적어서 이 팀은 건들지 말자고 합의할 한 곳도
있고, 어디는 n분의 1로 하자고 하는 데도 있고,

아니고 활동이 비생산적인데다가 시급성도 없어 보인다.
문화공간뿐만 아니라 생활문화, 시민문화활동분야가
모두 그렇다.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강력한 의미를 찾아
밝혀야 한다. 코로나 시대 가장 먼저 하지 말라고 하고 가장
늦게까지 소극적으로 고려된 분야가 시민문화 활동이었기
때문이다.

1. 공간 지원, 사적 영역에서 공적 가치를 만드는 생활문화 공간들

시민의 문화 역량 성장에는 다양한 생활문화공간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해소하는 공적인
기능은 오히려 사적 문화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자생적 생활문화 공간 지원은 민관 협치, 즉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의미의 공간이다.

마을이 점점 어두워진다고 느끼는 것은 상권이 침체해
가는 구도심에 저가의 임대료가 형성되며 외국 노동자를
포함해 낮선 주민이 늘었지만 낮에는 유동인구가 없어 전과
달리 활기를 잃어가는 마을을 의미한다. 2019년 생활문화
공간 ‘가정집’과 ‘서유당’, ‘야곱의 눈물’⁴을 운영하는
활동가는 생활문화공간들이 침체한 마을에 활력이 되고
있었다. 문화공간 프로그램 시작으로 근래 교류가 없었던
주민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면서 시작됐다. 가볍게

4 생활문화공간 ‘가정집’(서구), ‘서유당’(연수구), ‘야곱의 우물’(연수구)은
2019년 인천문화포럼 인천생활문화공간 조사사업에 참여한 자생적인 민간
문화공간이다.

어쨌든 총액이 맞았으니까 해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웠죠. 물리적으로 가까운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각자 혼자 있다고 느낄
 때보다 나은 선택을 하는구나. 이걸 근거로
 해서 인천도 협력하며 기본 좋게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심사비겠죠.

000

▶ 많은게는 8시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식사 나가야
 되고, 심사비만 딱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만 극복될 수 있으면, 나아가 이게
 온라인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를 하면,
 저는 심사위원의 권력이 굉장히 축소되고
 최종 결정하는 정도만 개입을 하고 나중에는

아예 그것마저 뺄 수 있는 사업분야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210719 14:45

▶ 저는 전문예술이 아닌 생활문화에서의 지원
 방향과 문제점, 지원 기관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생활문화
 관련 지원, 예술지원이 경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정성이 근거인데요.

▶ 보통 선정 심사위원으로 가면 사업의 이해도,
 기획력과 행정 시스템 활용 같은 전문성,
 의지와 활동 역량이 심사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지역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연대,
 네트워킹, 자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성장 요소가 항목에 없어요. 그저 돈을 주는

다양한 취향 강좌 강습들이 열리면 낯선 주민들이 모인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서로 알아가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 공간을 오가는 젊은 사람들의 모습도 마을에 새로운
 에너지가 되었다. 희망적이지만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로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일어난 지역도 많이 있다.

2. 양질의 프로그램은 능숙한 기능 전수에 머무르지 않는다.

▶ 공간에서 진행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은 공간 운영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된다. 경험 많은 강사와 프로그램 기획자는
 주민들에게 기능 전수뿐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공동체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기 때문이다.

▶ 대부분 문화공간들은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프로그램은 낯선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계기가 된다. 처음부터 우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의제나 어려운 과제는 없다. 처음 모임 참여의
 목표는 그냥 나 자신이다. 공식 프로그램 이외 즐거운
 비공식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참여자들은 상대방에 대해
 색다른 성향과 특징을 발견하며 서로 더 잘 알아간다.

▶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면 관계가 지속되면
 처음에 낯선 사람이라도 선입견은 점점 없어지고 친밀감과
 신뢰감을 느끼게 된다. 자율적인 협동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 행동 경제학 ‘최후통첩’ 게임이론에 따르면
 반복적인 대면과 편안한 수다만으로도 모르는 상대방에

입장에서 말을 잘 듣고 기대 효과에 도달할 수 있는지가 지원의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심사 주체와 지원 주체가 모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생활문화 정책 자체는 연대와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제도 자체가 그것들을 방해하고 혹은 제거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론과 학문적 근거에서 경쟁 방식이 협동 방식보다 결코 우월하지 않다고 하는 지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경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살아나가는 사람에게 공적인 유대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제도 변화가 없다. 그다음에 경쟁식 선정제도

자체가 전국적으로 점점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무엇보다 알 수 있느냐, 계속 정보 공개 요청을 해요.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확인한다거나 그 기록을 보여 달라고 하거나,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선정이 된 사람이 지원받은 예산을 자기 것으로 인식하는 배타적 소유 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쟁취한 거기 때문에 이긴 내 거인 거예요. 경제학에서 지원 예산을 따져보면 공유 자원이예요. 배제성과 경쟁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경쟁으로 지원금을 따다 보니까 사회적 재화가 아닌 사적 재화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후 킨실팅 혹은 정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구를 할 때 불만이 늘어나는

대한 이타적이고 협력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러한 친밀 공동체 형성은 앞으로 구성원들이 느끼는 주변 현안이나 개선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합의를 위한 수평적인 토론이 가능한 환경에 이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잘 모르거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 주민이라는 정체성 정도로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는 어렵다. 이유는 자기 생각을 잘 전달하기 위한 논리적인 표현 능력은 많은 경험 없이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혹시 그 정도는 가능하다 해도 내 의견에 대해 남들이 느끼는 평판이나 사회적 체면을 고려해서 망설이거나 침묵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특별한 사회적 지위나 능력, 역할이 있어 모인 것이 아닌 취향이나 관심사가 같은 주민 자격 정도로 참여한 생활문화 공간 프로그램 안에서는 그런 지위와 같은 위계에 대한 부담은 크게 줄거나 아예 일어나지도 않는다. 수평적인 소통과 자율적인 협동이 이루어지는 관계조건이 이루어져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 단계를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토대로 생각한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가 표현한 타자를 유용성이나 필요 여부로 대하는 즉, 남을 유용한 ‘수단’으로 받아들여 교체 가능한 관계가 아닌, 남을 자유롭게 유일한 존재로 대하는 공동체,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교체가 불가능한 인간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와 닮았기 때문이다.

진 당연합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사실 알기 때문에 심사위원 선정 절차를 까다롭게 바꾸고 심사위원 풀 제도도 운영하고 있어요. 정산 절차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 공개... 저는 이런 걸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얘기할 건 제밋는 건데, 1인 1표제의 문제점이예요. 1인 1표제는 다수의 후보가 가능합니다. 즉, 많은 표를 얻으면 그 의제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다수의 호응을 얻으려고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가능해요. 덧붙여서 참여자가 얼마만큼 지킬 좋아하는지에 대한 강도가 측정이 안 됩니다. 한명에게 한 표만 주어지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소수가 절실하게 요구하는 의제는 선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1인 다표제'입니다. 소위 '계급 투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한명에게 주어진 표 개수가 약 50개예요. 2만큼 좋아하면 2x2 해서 4표를, 3만큼 좋아하면 3x3해서 9표를 사용해야 돼요. 얼마만큼 좋아하는지, 적당히 좋아하는지, 조금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표수를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의제에도 반대표를 던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면, 1인 1표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단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A를 밀어붙이기로 한 데는 A에다가 많은 표를 붙일 텐데, 그만큼 B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도 표를 분배를 해야 되고 B를 원하는 곳도 B에 투표를

3. 자생력과 협력을 부돋는 지원제도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정책은 문화공간에서 일어나는 공익적인 주민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을 '비영리'사업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예산 사용 범위를 주민을 위한 사업 실행에 한정하게 된다. 그 결과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한 기획자의 고민이나 노하우, 마음과 노력에 대한 비용은 사유재산 취득, 즉 영리 수익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협동하며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유공간인 문화 공간은 지역문화자치를 이루는 토양이라는 면에서 인천이 지키고 복돋아야 하는 문화자산이다. 각 공간의 소중한 경험과 역량을 살려 자율적인 연대와 협력으로 경험을 공유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 지원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

4. 지원제도 문제의 원인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문화자치정책은 지역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다. 사회구성원과 협동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결국 정책의 수혜자 정책 생산과 실행 평가에 참여하여 함께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어야 가능하다. 그래야 인천 특성에 맞는 문화 생태계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다.

생활문화 정책은 예술로 시민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결과나 성과 보다는 오히려 소통과 협력 과정에 성공 지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과정이나 성과 보다는 정산이 유일한

하지만 A도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투표가 다 끝났을 경우에는 반대표와 찬성표가 상쇄가 돼서 오히려 편편적으로 대부분이 좋아하는, 가장 선호하는 그런 의제가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처럼 공모 제도를 우리 모두가 일정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면, 그 제도에 대한 주민 의식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얘기할 것은 지원 기관의 문제입니다. 문화재단을 예를 들면, 지금 구조가 저렇게 돼 있어요. 위에서 결정을 내리는 구조예요. 과업 지시가 내려오면 사업 담당 부서에서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즉, 시민 참여형 문화정책처럼 사업의 계획, 집행, 평가 이 세 단계로 나누게 되면 사업 담당자는 집행하는 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평가와 입안은 위에서 하거나 다 같이 하죠.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일단 완결된 직무를 담당자 스스로 조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고요. 사업 담당자들은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대중과 만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순발력 있게 혹은 상상력을 가지고 제도를 변형하거나 지원제도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순발력 있는 대응도 불가능하다. 만약 정책을 만들 수 있고 집행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담당자에게 주어졌을 때 창조적이고 효율성 높은 정책들이 나타나고 실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민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 단조로운 노동에서 상실된 의욕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

측정 기준이다.

배다리 경우 책방이 많다. 어렵지만 각자 의미 있는 사업으로 서로 의지하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면서 서로 경쟁관계가 되기도 한다. 지원사업 공모가 개별 문화 공간을 대상으로 당락을 결정하여 알려주기 때문이다.

원하는 공간들이 자유롭게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원하여 자유로운 공동 사업이 가능한 지원 틀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2-3곳이 함께 하며 사업에 요령을 익히고 자신감과 요령을 터득하면 좀 더 규모를 키워 실행할 수 있는 단계별 상승 지원 형태도 좋겠다.

새롭게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안전한 시범사업(Sandbox)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창조 역량을 지원할 수 있다. 공간·시설 보강 지원, 프로그램 지원, 실험적인 가능성 지원, 조사나 연구 지원 등 해야 하는 사업 보다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사업을 융통성 있게 세분화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이 있으면 좋겠다.

제한한 당사자들이 책임 있게 사업을 하려면 지혜를 모으고 합의하고 협력하여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예산에 대한 느낌도 모두의 '공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상과 규모, 성격에 따라 정산 방식도 달라야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 지원자가 참여하는 심사제 의미
'공모사업'은 공공 자금을 사용하는 공익사업이 목적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지원 기관, 특히 생활문화 팀 정도는 의사결정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0719 15:03

●●● 선생님 이거 예전에 혹시 정리해 두신 건가요?

●●●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제곱투표는,

전자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한 대만 디지털 장관 오드리 탕의 책을 읽다가 이 사람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책 『레디컬 마켓』에도 제곱투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들에게 선정 권한을 넘겨주자고 했을 때, 관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단합의 위험성이예요. 그런데 제곱투표는 단합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쉬운 언어로 만들어서 효과를 보면 다른 지역으로까지 번져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네.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공부가 많이 됐어요.

공유지의 사용을 이용자들이 모두 함께 모여 합의하여 결정하듯이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 방식도 좀 더 공공에 의해 선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즉, 사업 수혜자가 이해당사로서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이다. ‘시민참여심사’로 부르는 이 제도는 인천을 포함하여 몇 개의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실험 단계라 안정적으로 지속하지는 못하고 있다.

문화예술 또한 지원제도의 공정성은 ‘경쟁’ 논리에 의존하여 설계하였다.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업 이해도와 기획력, 행정 시스템 활용 가능성, 사업 추진 의지, 활동 경험과 역량 등이다. 공통점은 행정 입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사업 대행 능력과 같다. 선정심사의 공정성은 경쟁 방식 외에 공모 기관과 지원 주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전문가에 의한 평가 위탁이다. 결국 지원제도는 ‘남과 경쟁하여 이기는 방식’이거나 ‘남과 상관없이, 어떤 관계도 맺지 않고 선정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6. 예술, 지원을 넘어 투자로

2010년도부터 해서 2021년도까지 거의 10년 동안에 지원에 대한 그런 변화가 전혀 없다. 지원자들이 매년 연도만 바꾸고 약간 그 안에 콘텐츠를 조금 바꾼 다음에 계속 그 지원금을 노리는 (지원금 헌터) 경우가 많아지는 이유다.

행정에서만 지원정책을 설계하고 결정한다. 담당자가

예술, 지원을 넘어 '투자'로

있더라고요.

210429 14:15

11/11

처음 해보는 사람들에게 주는 지원이 필요해요.

증빙을 적게 해도 된다는지, 더 자유롭게 풀 수 있잖아요. 더불어 연속성은 있는데 스케일업이 안 되고 있는 축제가 있으면 발굴해서 좋은 제안이 나오면 하게 하고, 서로 엮어줘서 협업도 하게 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매년 똑같은 축제가 계속 나오곤 하잖아요. 결국 레퍼런스를 많이 잡아놓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획서에서 연도랑 이름만 바꿔서 계속 낸다는 거죠.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사업은 아예 사업으로 가야하는 건데, '지원'하고 '사업'이 붙었잖아요. 그니까 '지원사업'이 저는 말이

210429 14:07

●●● 벤처창업이나 창업진흥원의 공모설계를

보면 재미있는 점은 실패를 용납해줘요. 근데 예술분야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공모가 대다수이고, 영수증 증빙이 되어야 하죠. 오히려 벤처창업분야의 지원이 더 유연해서 낮은 액수인 300-500만원 정도는 영수증 증빙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포상제도가

바뀌어도 인수인계로 이어간다. 수혜자 입장 반영이나 참여도도가 필요하다. 벤처창업이나 창업진흥원의 공모설계들을 보면 다르다. 실패를 용납한다. 그러나 예술분야 시스템은 가시적인 결과물 생산을 목표로 지원 공모가 설계 되어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을 사용과 사용 내역은 영수증으로 증빙이 해야 한다.

300-500만원 규모의 저예산이라도 증빙 없이 실험과 모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타 지역의 경우 기획서를 포상하는 형식으로 무정산 공모를 시행 중인 곳도 있다.

매년 반복하는 2,000만 원짜리 축제 사업, 1,500만 원짜리 콘서트 사업의 반복하는 공모의 경우 좋은 어떤 아이템이 나와도 매년 같은 규모와 수준만 요구하는 지원으로 파일럿 수준의 사업을 반복한다. 성장 없이 반복만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충분하게 그 다음 단계로 성장을 시도할 수 있지만 못 하는 문화사업들이 많다.

지원을 반복해서 받는 경우 연속성은 있지만 성장 없이 반복하는 문제는 결국 기획서를 많이 써서 레퍼런스가 충분하면 이를 바탕으로 연도랑 프로젝트 명만 바꿔서 계속 지원서를 낼 수 있다. 일종의 적응이다. 매년 같은 형태의 공모 사업이 나와 그 기준에만 맞춰서 사업을 하는 단체들은 대부분 지원금에 종속 된다. 결국 못 벗어나고 자생적인 성장도 힘들다.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모아 아이디어나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할 수 있는 단계의 지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증빙 필요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지원'과 '사업'을 분리할
 하고 지원이 정말 필요한 곳에는 초기지원금,
 중기지원금, 그리고 아예 연속지원으로
 가야하는 것을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되게 중요하고 재미있는 얘기네요.

●●●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 '사업'의 개념이 헷갈려서 그런데 사업을

'경영'으로 바꿔야 되나요?

☞☞☞ 제가 생각하는 '사업'의 개념은 돈을 버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 수익적인?

☞☞☞ 네, 수익적인 부분이에요.

☞☞☞ 경영은 비즈니스죠.

☞☞☞

그런데 지원은 비즈니스랑은 안 맞잖아요.
 예술 경영을 한다고 하면 그 예술에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술가하고 협업하는 것이
 경영인 거죠. 근데 지원금을 받아서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이 경영은 아닌 것 같아요.

210429 14:26

●●● 다 중요한 얘기인데, 시각예술분야에서

부가설명을 해드리면, 미술관은 검증된 작업을
 보여주는 장소고, 갤러리는 팔리는 작업을

보여주는 장소잖아요. 지원금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전시들은 각 시기에 맞춰서 새로운
 실험을 할 때 지원금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어느 정도 레벨 업이 되면 받으면 안돼요.

근데 문제는 계속 지원금을 타가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성장단계에서는 예산을 키워 지역에 문화로
 정착할 수 있고 계승되어야 한다.

이 과정은 전문 컨설턴트가 돕고 중간 전문 매개자도
 밀도 있게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기획 추진과 경영 컨설팅을
 유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비영리활동을 위한 지원과 수익사업을 위한 지원을
 구분해서 목적에 맞는 지원을 구분해야 한다. 수익을
 보장하는 지원은 인건비와 정당한 기획비 지출이 가능한
 근거다. 선정된 단체나 사업자 구성원이면 인건비 지급이
 어렵다. 결국 프리랜서 자격으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이는 사람을 모아 협력하는 전문단체 구성을
 망설이게 한다.

예를 들어 총 사업비에 70% 정도는 사업 운영에
 사용하고 30%는 수행단체 수익으로 하는 것이다. 단체나
 회사 입장에서는 내수가 생겼기 때문에 비로소 자신의
 사업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비영리활동을 위한 지원과 수익사업을 위한 지원을
 분리 하고 '지원'이 필요한 곳은 초기 지원금, 중기 지원금,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업은 연속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7. 문화, 투자로서의 지원 근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는 산업사회에 적응하며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경제 시스템에 의한 '소유 욕구'를
 선으로 여겼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인간적 유대를 통한

있잖아요.

♫♫♫ 저도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그렇게만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게밖에 안하는 사람들이 문제인거죠.

●●● 그죠. 어느 정도 자기가 성장했다고 생각하면 사실 더 큰 무대에 가서 발표하고...

♫♫♫ 그런 무대가 인천에는 더 없긴 하죠.

●●● 양심의 문제만도 아니고 인천에 건강한 미술 생태계가 만들어졌는지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죠.

♫♫♫ 사회적 기업도 문화 쪽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요. 왜냐면 문화 분야는 기업 형태가 아니잖아요. 반면 사회적 기업은 기업 활동이기 때문에 매출같은 정량적인 평가를 굉장히

많이 본다는 거죠. 공연 단체들도 따지고 보면 다 적자예요. 활동 자체도 '기업 활동'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볼 것인지의 기준도 나뉘어야 하고요. 예술도 결국 '지원'으로 가야되는 곳이 있으면 지원을 더 명확히 해주고, '지역 활성화'나 '경영사업'으로 볼 것이면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명확히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은 이쪽에서만 서로 경쟁하면 되는 거잖아요.

210429 14:45

♫♫♫ 제가 재미있는 이론을 본 게 뭐냐면 '비용'하고 '투자'예요.

♫♫♫ 맞아요. 투자가 필요해요.

'존재 욕구'를 더 중요하게 느낀다. 지식사회라 부르는 현대는 개인의 지적 능력과 경험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공동체적인 유대감을 통해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지식사회에서는 자본의 역할은 콘텐츠, 상상력, 남다른 경험과 지혜, 즉 지식이다. 그래서 산업사회에서 경제 시스템이 중요한 만큼 지식사회에서는 인간적 교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사회 시스템'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가 재정을 동원해 다양하고 다층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개인의 지적 능력과 경험의 확장과 향상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는 가족과 지역 공동체와 같은 '사회 시스템'과 함께 만나야 비로소 사람들의 '사회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 공동체적 유대감으로 충족되는 사람들의 사회적 욕구는 공공 서비스 제공이나 복지roman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시민들의 '사회적 욕구'는 정부의 공공 서비스를 받을 때보다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 협력으로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했을 때 비로소 충족된다. 정부의 재정이 사회 시스템과 효과적으로 융합해야 하는 이유다. 생활문화활동을 문화감수성 향상과 기능 숙련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해 시민들의 사회적 욕구 해소를 위한 '사회 시스템'으로 보아야 한다.

지원할 때 쓰는 걸 ‘비용’이라고 그래요.
없어서는 안되지요. 하지만 그것도 가치가
있으니깐요. 반대로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구현하고 있고, 사회적 저변을 만들어내고,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에 지원하는
건 ‘투자’여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이 망하면 투자를 하거든요.

값으라는 소리도 정산도 안 해요. 왜냐면
일 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가치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해도 된다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분야도 ‘투자’ 개념을 뒤서
만약 시민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늘어나면
투자효과가 나는 거죠.

●●●

네. 맞아요.

♫♫♫

그러면 공모 사업을 공적자본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민간자본을 같이 엮어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술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됐든 간에 좋은 평가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데를 기업과 매칭해 주고 후원을
받게 하든지요.

●●●

메세나같은?

♫♫♫

그런 게 인천문화재단 안에도 한 영역이

설립돼서 계속 투자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걸
알아봐주고요.

●●●

약간 그런 거네요. 중앙에는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영역의 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

그런 컨설팅은 재단에서 받아야 하는 거예요.

후원이나 투자를 받아서 매력적인 아이템들을
계속 키워줄 수 있도록. 그게 결국 나중에는

	산업사회	지식사회
사회 운영	경제 시스템	사회 시스템(NGO, COOP)
시민 욕구	경제적 소유 (소유 욕구)	인간적 유대 (존재 욕구)
생산성 요인	물적 자원	지식 자원
	성실한 근로	공동체적 유대감
복지 방향	(시혜적) 공공 서비스	공공 서비스 외 사회적 욕구 해소

8. 생활문화의 ‘사회 시스템’ 역할 요인

‘생활문화’는 낯선 사람들과 취향을 매개로 자발적인
모임을 구성하여 부담 없이 서로 알아가며 친숙해지는
기회를 만든다. 정기적인 대면과 소통 기회는 낯선 신입도
선입견을 줄여 유대감과 신뢰도를 높인다. 구성원들은 함께
이루고 싶은 크고 작은 행사와 사업을 누구나 제안하고
평화롭게 논의할 수 있다. 생활문화 공동체에서 다루는
논의 주제가 대부분 특별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즐거운 생일 파티나 소풍 기획부터
정기공연 일정과 장소, 복장과 대관 비용마련 방법 등 하고
싶고 즐거운 의제들이다.

자신의 의견을 남이 이해할 수 있게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는 사회적 참여나 배제
요인이기도 하다.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하면서 구성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되먹임을 주고받으며
응원과 비판에도 익숙해진다. 구성원들의 의사소통과
논리적인 표현 기술은 이 과정에서 향상된다. 이렇게
누구나 평등하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논의에 참여하여

축제가 될 거고, 지역에 엄청난 경제 활성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저는 각 지역마다 그런 아이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활성화 시키는 것처럼 좋은 기획이 인천에도 많이 있어요. 좋은 기획자들 엄청 많은데, 인천 청년들 중에서 기획 좀 한다고 그러면 서울 금방 가니까 서울에 가가지고 기획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서울, 경기도...

●●● 조금만 나가도 예산의 규모가 다르니까요.
스펙트럼이 달라요.

210520 14:07

지원은 없어지는 건데 ‘투자’는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인프라가 생기기 때문이죠. 기획 지원과 경영 지원을 분리했으면 좋겠고, 경영 지원 파트에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죠. 더불어 예산이 적은 경우에는 ‘무정산 지원제도’를 했으면 좋겠대. 이진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동시에 실험이기도 합니다.

210520 14:12

‘결과 중심 창작 지원 다변화 모책’이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 아, ‘결과 중심 창작 지원 다변화 모책’이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술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전시 지원은 대개 만들어진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공적 기금으로 도와주는, 결과 중심으로 지원금이 책정이 돼 있는데,

함의에 도달하는 역량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토대다.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 생활문화의 속성도 중요하다. 공동체에서 느끼는 소속감은 바깥 사회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전기지(secure base)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과 함께 이룬 작은 성공의 반복은 지역에 크고 작은 문제 해결에도 도전할 수 있는 자부심을 키운다. 협동 과정에서 느낀 타인에게 인정받는 공적인 유대감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더 자유롭게 새로운 문제를 탐구하고 모험에 도전할 수 있는 자존감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내 경험이나 지식이 타자나 공통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무기력, 외로움을 겪은 사회적 배제 문제를 공적 존재감 회복으로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한다.

생활문화는 이런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존감을 높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몸으로 익히는 즐거운 공동체 마당이다. 부수적으로 생활문화공간 프로그램을 통해 오가는 젊은 사람들은 마을에 새로운 에너지가 된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환경 변화와 에너지가 실질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다.

개인의 지적 능력과 이를 자유롭게 주고받는 공동체적인 유대감은 지식자본이 중요한 현대 사회의 특성이다. 경제 시스템이 중요한 산업사회와 달리 현대 사회는 가족과

최근에 중앙에서는 계속 '과징'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도하고 있어요. 새로운 형식 실험, 리서치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그 결과물을 꼭 전시, 공연처럼 완결된 형태로 낼 필요가 없게끔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과징 중심형 지원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 중심보다는 과정 중심이 맞는 거네요.

과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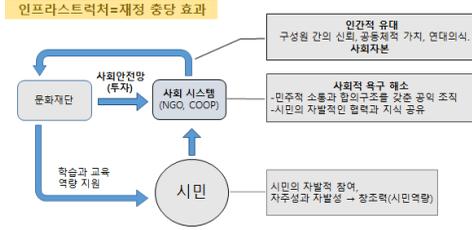
두 개가 혼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무정산 지원 포함’도 그 사업에 담겨야 하는 사람들이 분류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오. 몇 회 이상을 했던 팀들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업 지원사업이 있어서 그죠. 예.

몇 회 이상을 못했던 사람들, 처음인 사람들은 따로 분류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시키고요. 콘텐츠는 이미 있는데 유지가 되지 않고 지역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데가 있으면 스케일-업 지원을 해주고요. 어떤 단체는 기업이든 문화 관련돼 있는 사업이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의 문화가 심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역할을 하는 중간-매개자를 붙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역 공동체와 같은 ‘사회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다.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개인의 감성과 지적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다층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해도 그것은 ‘사회 시스템’과 함께 이루어져야 작동하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사회적 욕구 또한 재정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보다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더욱 충족된다. 이를 위해 정부 재정과 사회시스템은 효과적으로 융합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욕구를 위해서는 가족과 지역공동체,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 같은 ‘사회 시스템’이 필요한데 사회 시스템에는 공익사업을 펼칠 만한 재정이 없거나 부족하다.



[인간적 유대]는 신뢰, 공동체적 가치, 연대의식, 사회자본

행정하시는분들에게 제안을 하면...



이게 안 되죠.



일이나니까요. 어찌 됐든 재단의 역할 자체가

좋은 문화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면 점점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죠. 좋은 축제를 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부분으로라도 예산을 쪼개서 내려준다든지. 이런 게 되면 좋은 콘텐츠가 발굴이 되고 확장되는 건데...



네. 기업과 연결도 되고...



그런데 공모 사업의 구조 자체가 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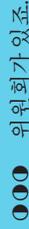
근본적으로 변해야 되는 건, 초기 중기 그리고 후기에 는 아예 정착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로 밀드-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지역 축제를 지자체에서 주도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끼리 해요.



위원회가 있죠.

자체적으로 회비를 모은다는 거 아니냐

진통을 계속 이어가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화 콘텐츠 자체가 공모에 맞춰서 예산을 따려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결 없애려면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는 다음에 잘하면 계속 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해요. 처음 하는 분들에게는 자유도를 높인

사업을 주고, 거기에 개발된 사업 중에 좋은 것은 또 다음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지원사업이 변화했으면 좋겠네요.

보통 정부에서 시범사업이라고 그러는 데,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단체나 회사가

많지 않으니 없애지기 전에 시범사업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나아가 공모 사업을 정식으로 낼 수는 확정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지원공모 제도에 숙박되는 게 아니라 열려 있도록.



그죠. 단체들이 지원금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항상 안타깝어요. 거기에 못 벗어나요.

지원사업이라는 게 한번 들어가서 받으면

내년에 또 받고 지원이 끊겼을 때 상황이

어려워지고. 마치 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단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사실

인천에 살릴 게 많잖아요. 역사적인 것도 많고, 바다도 있고, 공항도 있고, 섬도 있고, 가지고 갈 수 아이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먼저 치고 나가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 전문가가 붙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특히 열린 지원 같은 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인천에 독보적인 지원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저기예요.



아~

무지개 프로젝트?

무지개 프로젝트가 예산은 적지만 되게

특색한 거예요. 필 하라고 하는 게 없는

지원사업이에요.

다 해도 돼요.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사업은 남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업을

하면서 수익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는 건데,

고시 공고란 사업자 모집 보면 10% 자부담을 두고 이걸 다 증명하라는데, 회사 운영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은 넣으면 안 되는 형태로 이렇게 내버려둬

●●● 그니까요.

이것부터 우선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30% 정도는 사업의 운영 주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확보를 해야죠. 1억이면 3천 정도는 운영자가 가져가는 비용이고, 나머지 70%는 사업 운영비로 사용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내수가 생겼기 때문에 이 70%로 최선을 다할 거 아니에요.

210520 14:31

이렇게 때문에 프리랜서가 계속 늘어난다고

느끼거든요. 결국에는 인건비를 받아야 하나니까요. 사람들이 몸쳐야 단체가 되고 맞아요. 그래서 단체를 못 만드는 거예요. 기업이 되고 문화 산업이 되는데, 이 사업을 따도 대표자가 인건비를 못 가져가잖아요. 같은 단체 안에 있으면 인건비를 어차피 못 줘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만 양성하는 거죠.

●●● 문화예술분야는 굉장히 한정된 예술 정의를 가지고 지원사업을 세팅을 해놨어요.

◆◆◆ 초기 설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 네.

◆◆◆ 전시기획 공모만 하더라도 기획자가 기획료를 챙길 수 있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 네. 아주 최근이에요.

◆◆◆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진행했을 때 대표자가

자기의 인건비를 못 받았듯이 전시기획 공모로 신청을 했는데 그 기획자가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210520 15:15

지원과 사업을 분리하고, 사업에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 금액만 증명하는 정도로 해도 인친의 문화 산업이 엄청 살아나요. 그러면 굳이 여러 단체가 생길 필요 없이 다 뭉칠 거예요.

210719 14:02

저는 재단 지원의 한계 그리고 스케일-업 지원의 필요성,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재단 지원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금액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거의 바뀌는 게 없어요. 예술가들의 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 결국 방식이 바뀌면 예산에 대한 논의도 바뀌어야 하는데...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결국 지원 방향이 같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똑같고 개요가 같으니까 매년 콘텐츠만 살짝 바뀌어서 지원금을 노리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수인계 형의 지원사업에 있어 변화가 필요하고,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지원기관이 이런 변화를 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 (웃음)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과 ‘사업’ 이렇게 붙이지 말고,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아가 정량적, 정성적인 평가가 좋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단과 시에서 관심 가져서 해줘야 되고요. 그런 프로젝트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성과로 가지고 가는 단체나 기업을 보고 동기부여 돼서 생겨나는 문화기업이나 단체가 많아질 거거든요. 결국엔 예산을 제대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2010년도부터 지원금의 변화가 거의 없다. 지원 분야, 지원 금액, 사업 유형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하신 거죠.

▶▶▶ 그런 부분이 있고, 인천의 문화 생태계가 저는

되게... 폭이 넓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천의 청년 기획자나 청년 예술가도 대부분 수도권 쪽으로 서울이나 이런 데가 오히려 텃세가 적으니까 수도권으로 많이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지원의 형태나 지원을 둘러싸고 있는 심사라든지 규제 같은 것 자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세로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원래 있던 거를 버릴 수도 없는 그런...

▶▶▶ 스케일-업 지원 필요성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것을 따라가는 단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가 살아 있어야 생태계가 살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의 변화 없는 지원제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많은 것들이 차단되고 있다.

그다음에 단체의 재정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문제도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고, 매년 반복되는 지원 규모 때문에 오히려 신수들만 키운다. 타성에 젖게 하고 혁신과 성장의 기회가 차단되고 있다. 이견 되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210719 15:01

▶▶▶ 지원으로 보지 말고 투자로 봐야 된다고 하는 건데,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를 찾았습니다. 경제학에서 찾은 건데요. 산업사회와 다르게 지금 세로 도래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지식사회'라고 하는데, 여기는 운영 원리가 다르다는 거죠. 이제 필요한 거는 지역 공동체, 사회 시스템이다.

이런 사회 시스템은 매개자와 문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효과는 인간 유대, 구성 간의 신뢰, 공동체 가치, 사회적 자본인 것이죠. 문화재단은 이를 사회 안정망이라고 보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된 성과는 시민의 역량으로 이어져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제 '나옴'이론인데요. 이렇게라도 남들 가능한 논리를 찾아내서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0719 15:19

▶▶▶ 지원을 통한 재생 시스템을 연구를 해야겠어요. 계속 지원하는 기관도 밀빠진 득에 물뭍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담당자가 바뀌면 외르르

탐사 지도 비교하기

무너지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작가들이 지원을
통해서 자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부터 필요하다는 생각이예요.
그래서 지형적인 예술지원사업은 지양하고,
단계적이며 장기적인 지원사업으로 변화를
도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책에 왜 관심이 있는지 각자 돌아가면서 얘기를 한번씩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술의 정의가 계속 바뀌면서 외연이 확장되고 있잖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미술에 한정지어서 얘기하자면, 미술과 비-미술의 경계가 흐려진다던지, 미술과 일상의 경계가 흐려진다던지 하는 식으로 정의가 요동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한계를 느껴요. 주로
진사를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공모제도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즉, 과거 미술은
작가가 완결된 오브제를 만드는 임장이었고
기관이나 정부에서 완성된 결과물이 전시되는
과정을 공적인 자금을 투입 해주고, 그렇게
되면 작가의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작품이
판매되거나 이런 식으로 순환 과정을 구성해서
정책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중앙에서 정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작은 지역 단위의 단체들이 중앙에서 만든
정책을 베껴다가 쓰는 식으로 공모제들이
만들어져있다 보니까 이 시스템에 맞지 않는
예술 활동을 포용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될까요? 그러면
예술을 지원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과거
예술지원정책의 틀이 지금 변화하는 예술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건가요?
●● 과거의 제도에 포괄되지 않는 움직임들이 현재
많이 있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서울문화재단도
아르코도 계속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기고
있잖아요.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긴다는
기존의 제도에 포괄되지 못했던 예술
활동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변화가 인천문화재단의 공모와
시스템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 ◆◆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예술 장르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 생겨요. 공통점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장르별, 행사별, 기획 사업별로 색깔이나 예산은 다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정교하게 나눠서 분석해보는 그런 단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살펴보고...



예를 들면?

- ◆◆ 예를 들면, 축제나 지역의 문화산업과 시각예술장르는 다르거든요. 작가한테 가는 게 다르고, 비평가 그러니까 전시기획하는 사람한테 가는 계도는 또 다르고. 지금 당장 일일이 세분화해서 볼 필요는 없겠지만, 큼직한 분류 정도까지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10719 15:07

- ◆◆ 제가 한 2년 전에 연구했던 거에 모충해서 아직 내용이 좀 부실하긴 하지만 오늘을 계기로 열심히 보완해서 다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미술 생태계에 관심이 있어서 지켜보니 예술가가 자신의 자본으로만 창작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창작 지원금이거나 창작지원제도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인천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그다음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제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대 미술계에서 예술지원사업의 존재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중요성이 대두되고있고요. 따라서 예술지원사업의 정책을 얼마큼 세심하게 설계할 수 있는가에 의해 그 지역미술 생태계가 건전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인천문화재단에 의해서 많은 창작물이 발표되기 때문에 인천문화재단 중심으로 살펴보고, 작년에 서구문화재단 경우도 시각예술분야에서 원래 청년 예술인만 지원을 했다가 스펙트럼을 넓혀서 이제 중견까지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연수는 조금 다른 결이긴 하지만 지원체도가 있고, 부평구문화재단은 시각예술파트에서 단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제도밖에 없어서 부실하긴 하지만 인천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지원제도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이 무엇인지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예술 공모사업 같은 경우 연말이나 연초에 공지가 나오는데요. 보통 한 해에 지원사업이 30개에서 60개 정도로 편차가 굉장히 큼니다. 지금 살펴봤을 때 2019년도에 60개로 제일 많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변동 사항이 있었어요. 인천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을 보면 주로 창작물, 결과물 발표가 되는 곳이 중구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은 정말 눈 찌고 찾아봐야 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애기를 나누고자

했던 것은, 인천문화재단이 중구에 있지만, 너무 중구에서만 소모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시하고 싶었어요. 또 지금은 사라진 공간이지만 2019년도 같은 경우 거의 30건 정도의 전시가 한 갤러리에서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관리의 소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사업으로 인한 결과물이 발표되었을 때 데이터화가 체계적으로 되어있지 않아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어딘가에서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사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관심

없으면 볼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과연 지원사업이라고 공모를 하고 지원금을 주고 거기서 사업을 펼쳤을 때 생산하고 증명하면 그냥 끝인가? 아니라면 그 절차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지도에서도 나왔듯이 지원사업의 주체, 주관, 기관에서 가장 많은 사업들이 펼쳐졌다. 거기에서 사업의 선정 기준에서의 모호함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원사업이 예술가에 대한 지원인가? 아니면 공간에 대한 지원인가? 혹은 지원인가, 복지인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세 번째는 인천문화재단 사업의 수혜자에 대한 모호함이 있었어요.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시키고 시민들이 쾌적하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스스로 누릴 수 있도록 해서 인천을 국제적 수준의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이라는 정확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원사업들을 펼침에 있어서, 특히 시작예술퍼트에 있어서 정확한 목표 지점을 가지고 결과물이나 수혜자에 대한 명확한 지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미래 지향적이고 공공적인 성취 목표에 대한 설정이 미흡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 또한 관리 소홀에서도 나오는 결과이기도 한데, 시각에 불요야가 아닌 다른 지원사업을 보더라도 장기적인 빌드-업 부족하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빌드-업 할 수 있는 것을 마련을

해야 된다. 사실 시각예술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거든요. 사업과 선정위원들이 매년 중복돼요. 그렇다면 이것을 전반적으로 훑고 살펴서 지역미술 발전과 생태계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빌드-업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작가가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자생성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작가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생각을 해봐도 답이 없어요. 그렇다만 정책 기관이 사망관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고, 담당자가 바뀌고 나면 두 가지의 유형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예 다른 색깔의 사업이 나타나서 생뚱맞아지거나 아니면 잘 모르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해왔던 거

그대로, 그래서 포맷 그대로, 선정 위인 그대로, 결과물도 그렇다면 비슷하게 나오겠죠. 이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예술가 지원과 복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예술인복지재단이 생기면서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현실을 직면해서 제대로 바라보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사업의 내실을 위한 제안은 지원사업 담당자들의 인력 충원이예요. 결국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운용하는 건 각자 다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원사업은 굉장히 많은데 민원 업무이기도 하고 정말 내실 있게 진행하려면 보면 현도 끝도 없거든요.

거기에 지치지 않게끔 팀가 시스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을 제대로 체계화 시키고 거기에 맞는 담당자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지원 체계의 균형과 정교함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고요.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시스템의 자생성과 지속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물론 정책 연구는 연구자들이 수많은 리서치를 해서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계별로 아니면 논의할 수 있는 사람 별로 테이블을 많이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 문화재단의 역할이고,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지역미술행태게는 단단해질 수 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0719 15:23

아까 중구랑 강화도에 많았던 게 어떤 거예요?

지원사업이예요, 공간이예요.

지원사업이요. 시각예술지원사업. 시각예술은 진실을 해야만 그게 증빙이 되잖아요. 2019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거의 절반이 한 공간에서 진행이 됐어요.

발표를 거기서. 그러면 전시장이 여기에

물렀다는 얘기도 되네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전시장... 전시장이 사실 별로

그렇지. 없어서(웃음)

미술의 도시네. 중구는.

저도 궁금하던 지점을 표로 보여 주셔가지고...

강화도는 시각예술 발표할 만한 데가 있나요?

강화, 제가 그때...

강화도는 약간 생활문화 쪽이네요?

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예술, 그러니까

화이트 큐브랑 생활문화 공간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는 갤러리뿐 아니라

카페형 갤러리에서도 (전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포진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너무 한 곳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가가 전시를 하려면 공간

사용료를 지불하잖아요. 서울문화재단에서도

시각예술지원 공모 사업을 하면 보통 발표가

5월, 6월쯤 나오는데, 서울에 있는 많은 전시장소가 박 터지는 이유는 작가가 공로로 선정이 되었어도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가들이 공고가 발표되기 전에 아예 예약을 해놔요. 예를 들면, 지원금이 이 정도니까 공간에 얼마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미리 예약을 해놓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한 공간에서 전시가 거의 수십 번이 이루어졌는데, 수레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논리적인 맹점이나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엔 갤러리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

●●● 결국 공간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로 그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8월, 9월까지도

작가 선정을 하는데 11월, 12월 이내에 결과 발표를 해야 되니 그야말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지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이라면 이미 한 해 전시 스케줄이 꽉 차 있을 거라 공간에 선정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만들어진 곳도 있는 듯합니다. 근데 그런 곳들이 연말에만 유희공간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2 10719 15:28

중구는 워낙 인친 미술인들이 많이 활동했던 동네라 역사가 길어요. 예를 들면, 락이나 밴드가 관공동이면 미술은 신포동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우라처럼 있기 때문에 못 떠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강화가 뜨거워진 이유는

다 거기로 갔어요. 그리고 선배들이 거기 가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미술인분포 자체가 중구랑 강화도에 있어요. 그래서 지역 편중으로 하기에는... 그리고 거기가 도시 체게발이 되지 않은 데예요. 쫓겨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유희처럼 작업실과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중구에.

●●● 그것은 아마 세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걸 기억하는 세대가 있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역사를 모를 테니까.

◆◆ 맞아요.

●●● 급하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그나마 중구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아마 중구에 집중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 전시장이 많다고 보다는 그 동네 자체 아우라가

그렇게 통용되다 보니까 카페는 식당이든 막 해도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와서 덕담도 해주고 젊은 작가가 같은 경우 여기에서 미술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네트워킹도 생기잖아요. 소개받고 인사하고 하다 보면 거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거기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거기에 상관없이 독단적인 장을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니면... 그렇겠네요.

●●● 네. 두 가지 문제가 다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 맞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가장 취약한 문제는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점. 결과물에 대한 관리가... ◆◆ 그거는 예. 저도... ◆◆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인친문화재단에서 매년 보고서를 발간할 때 제가 시각에술 파트를 썼었는데 정말 당황했거든요.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윽 했다는데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아카이빙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인력 총원도 말씀드렸던 것이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는 거.

그런데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전담이 아니면 회전을 할 텐데, 오히려 이것은 미술협회라든가 미술인이 만든 자발적인 결사체에서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 관리해 나가고 측정해 나가야 계승이 되고 역사도 생기면서 누적되지 않을까. 기관이 재단에서 과연 담보가 될까...

◆◆ 그런데 저는 그것 또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저도 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에 동의를 하는 편인데, 어느 정도 인친문화재단도 노력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참여하는 예술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결과 보고서라는 서류 양식을 제출을 할 때 그 안에 리플렛, 포스터같은 인쇄물이 있으면 실물을 동봉해서 제출하도록 요구 받거든요. 시각예술가들은 사실 다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출한 리플렛이든 포스터 이미지는 아니면 결과 보고서 파일이라든가 재단이 그 자료를 다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럼 아카이빙은 기록물 보관소처럼 따로 전문 파트가 있어야하겠네요.

●●● 네. 근데 그게 없으니까. 어떤 특정한 단체라든지 특정한 그룹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위에 한 번 언급된 갤러리의 경우에도 전체 사업에서 절반에 가까운 진사를 그곳에서 행했다고 하고면, 분명히 심의하는 단계에서 배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마 필요했을 텐데, 그런 거를 의식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될 수 있거든요. 분명히 지원서 상에는 진서는 공연이든 발표하고 싶은 장소의 이름을 미정인 경우라도 예정이면 '예정' 이렇게 써서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제출한 항목은 심의 내용에 반영이 돼요. '이 정도 규모의 전시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작품이 걸릴 것이다. 이 정도 공연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 관객이 수용될 것이다.'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장소는 중요한 평가 항목이예요. 근데 절반 가까이 한 장소에 집중이 됐다고 하면 분명 본배의 문제를 놓쳤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정리가 한 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IT 강국에서 못하는 건 말이 안 되죠.

●●● 그렇죠. 제출은 다 했는데...

검색이 안 돼. 이진안 한 거지.....

●●● 왜냐하면 사진 같은 경우도 10점 이상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이 다 있거든요. 작품 설명 이런 거 다 넣었는데, 냅으면 누군가가 갖고 있어야... 컴퓨터에 그게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진 뒤 스캔을 받은 윽하는 갖고 있어야죠.

000 저는 타 시 도에 어떤 공모 사업이 있는지
 쭉 봤어요. 큰 기관부터 보자면, 잠시만요.
 지금 오세 핫한, 경기도에서 예술인 창작자를
 내년부터 분기별로 25만 원, 연간 100만 원씩
 기본 소득에 맞춰서 '예술인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게
 뉴스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예술인들
 사이에서 다리 건너면 경기도인데 작업실 이사
 갈까... 이런 여담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세 곳을 봤는데, 사실 문화예술위원회랑
 예술경영지원센터까지 넣어야 되는데 그 두
 곳은 누락한 상태이고요. 경기문화재단이나
 서울문화재단처럼 큰 광역재단에서는

문화예술, 순수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이름은 다르지만 이런 파트가 있고, 생활문화를
 지원하는 파트가 있고, 그 외에 각 단별로
 특화된 사업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이 ABC
 트랙을 나눠서 지원을 시작했는데, 인천도
 비슷한 시기에 '생애 주기별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유망 지원, 중진 지원, 이런
 식으로 트랙이 생겼고요. 창작 지원금의 규모가
 다르긴 한데 인천문화재단도 한 1500만 원
 정도 선에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창작 활동비라고 해서
 이거는 정산을 하지 않는 부분이예요.

210719 15:47

무정산 액수가 300만원으로 고정이 되나

보네요, 지금?
 000 예술인복지재단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는 예술인생계 지원...
 이런 게 판례가 중요해서 300만 원으로 고정이
 되면 확산이 금방 되더라고요.
 000 네. 이제 인천문화재단과의 차이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발 지원에
 대한 항목이 아무래도 조금 더 커서요. 임차료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예술가는
 시각예술가든 본인의 작업실로 쓰고 있는
 공간의 임차료를 지원받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경우 임차료의 50% 정도를 지원받는
 트랙이 따로 있고요. 예술 전문서적 발간
 지원이라든지 연구모임 지원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망예술지원이라고 하는

파트가 사실 서울에는 '99'c 유망에술지원'이
 따로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다면,
 똑같은 신진인데 유망에술지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NCAS,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안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검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이 사람이 국공립
 재단의 기금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할 거거든요. NCAS에서 본인의 이름이
 검색되지 않는, 그러니까 큰 규모의 지원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망에술지원의
 경우에는 단연 지원이 특정이고, 1년 차에
 쇼케이스로 평가해서 2년 차까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예술창제작 지원’은 과거 서울문화재단이 ‘다빈치 프로젝트’라고 예술과 기술 융합 파트가 있었는데, 그 파트를 10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 새로 손을 봤고요.

210719 15:49

●●● 이제 한 가지 차이라고 하면 부산문화재단도 서울문화재단도 경기문화재단도 강예예술인 창작 활성화 지원사업이 파트가 있는데, 인천문화재단은 없지 않나요? 강예예술인과 관련됨?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 없어요.

●●● 그래서 부산문화재단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창작준비금 지원하는 부분이

신설됐고요. 이제 아무래도 중앙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우수에술지원이라고 해서 인천문화재단의 예술표현활동지원에 해당하는 건데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보통 개인의 경우에는 한 400만원 정도. 다음으로 차이가 있는 지점을 보자면 유통, 홍보, 지원 파트입니다. 서울문화재단도 예술경영지원센터도 부산문화재단도 이런 유통, 홍보를 위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래서 자꾸 인천도 이런 걸 준비해야 한다는 식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타 기관에서 하는 걸 그냥 따라하는 것과 다르게 사람들이 실제 클릭을 해서 그 콘텐츠를 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하지만 인천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지 않아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까지는 자료를 다 못 모은 상태라서 조금 더 모은 다음에 정리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시. 다들 힘드실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인천도 광역이기 때문에 지금 비교하신 도시가 사이즈가 맞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우리에게 시사점이 많이 된다. 남 얘기가 아니다. 일단 그런 새로운 지원제도가 생긴 이유라든가, 혹은 기대하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과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제안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인천 문화, 아카이브?

문화예술조사와 아카이빙

그 많은 아카이브는 누가 다 먹었을까?

160

210509 11:12

☑☑ 엄체 내지는 용역에 넘기고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심 혹은 항구에 대해서 정말 15년 동안 계속

조사와 아카이브를 해왔던 대학의 관련학과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들과

용역 업체와 어떤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봤을 때 거의 진무합니다. 결국 인천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국세로 좋은 자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결과가 지금 어촌뿐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들. 저는 그런 걸
주로 얘기하고 싶어요.

210509 11:20

♥♥♥

저는 지금까지 문화의 영역보다는 예술의

영역에서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왔고, 그

‘예술’이라는 영역은 어쨌든 일종의 ‘불운한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불편함을 던져주는 게 그나마 예술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술가라고

지칭하면서 아카이빙의 방법이나 소재를

누군가 계속 쥐고 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깊고 넓은 아카이브, 심연에서 수면 위로...

김종현

아카이브(Archive)는 개인 및 단체가 활동하며, 남기는
수많은 기록물 중 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하여 보관하는
장소 또는 그 기록물 자체를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아카이빙(Archiving)은 아카이브 중 유의미한 것을
골라내어 새로운 아카이브를 만드는 행위라고 한다. 문화적
삶이 인간의 삶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항상 아카이브와
함께 살고 있으며 이런 삶의 과정이 아카이빙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다윈(Charles Robert Darwin, 1809-
1882)의 진화론에 의하면 모든 생물은 바다에서 시작되어
수많은 시간과 진화의 과정을 거치며 적자생존에 의해
현재 존재하고 있다. 보관된 아카이브가 아카이빙에 의해
새로운 아카이브를 만들고 그것이 유용한 아카이브로
진화하듯 아카이브는 바다와 같다는 생각을 해 본다. 지난

☑☑ 지금까지 섬에서 한 활동이나 아카이브들이 왜 일정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도시민을 위한 섬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섬에 마을기업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 법인이 생겼는데, 여전히 4차산업혁명 얘기를 하면서 6차산업을 하라 마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섬에 사는 분들은 1차산업혁명이 된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여태 글을 못 읽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분들한테 6차산업을, 더군다나 60-80대 된 분들한테 6차산업을 하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다양성 차원에서 도시 사람들에게 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 돈이 많이 들어가고 큰 사업이면 사업일수록 밀어붙이는 힘이 많고, 소위 말하는 하드웨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업자와의 연결이 있고, 이제 리더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휘둘러 버리고, 특히 군수 같은 사람이 한 번 왜가지고 휘둘러 버리면 그대로 진행이 돼 버리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도록 처음부터 정책을 세워줬는데도 여전히 주민들은 리더리를 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채워지지 않으면 똑같은 사업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9월 27일 열린 인천문화포럼 성과보고정책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신 구모룡 교수님의 토론 내용 중에 “바다를 규모에 따라 나누면 OCEAN, COAST등으로 나누는데, 인천이 접하고 있는 황해는 COAST이다.” 라고 말한 것이 생각난다. 인천이라는 도시를 이야기 할 때 중요한 부분인 바다는 인천의 중요한 아카이브이며 아카이빙의 대상이다. 2010년부터 우연인지 필연인지 인천 적적군도의 문갑도를 드나들면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했던 나이지만 정작 바다라는 아카이브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즉 ‘COAST(해안 혹은 연안), OCEAN의 구분과 그에 따른 특징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는가’, ‘심도 있게 들여다보기 위해 그 분야의 전문가와 교류를 갖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던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환경활동가, 지질전문가, 철새전문가, 식물전문가, 해양전문가, 문화활동가, 공동체활동가 등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인천의 바다에서 그 중요성만큼 다양한 아카이빙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많은 아카이브는 다 어디에 있을까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대부분 아카이빙 주체의 책꽂이 혹은 컴퓨터 안이다. 이 현상은 바다 아카이브에 국한한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주민자치, 지역활성화, 도시재생, 문화재생 등의 사업들이 왕성하게 진행되면서 아카이브의 중요성이 지역자원발굴과 활용이란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다. 아카이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마을코디네이터, 마을기록가, 마을교육활동가 등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카이브의 가치와

210627 10:46

++ 저는 무언가를 실행하기에 앞서 개념 정리를
위해 관련 책 『아카이브 콘텐츠 아카이빙』을
읽어봤어요. 서두에는 아카이브의 정의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남겨진 연구 기록물
또는 연구 기록물을 보존하는 장소’라고
북미 영어권에서는 이해한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현재 사용 목적의 레코드, 장기
보존 레코드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라고
이해를 하고, 호주에서는 조직이 기관이나
개인에게 지속적인 가치를 주는 레코드 전체를

아카이브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좀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부는 콘텐츠의 이해로 넘어가서, ‘기록 관리
아카이빙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공신력 있는 기록의 특성은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 기능성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아카이빙의 과정은 생산과 등록,
선별과 평가, 기록의 조직화의 과정을 거친다.
이제 그다음에 ‘마을 기록관’ 얘기가 나와요.
계속 아카이빙, 아카이브, 섬 이야기 해 주시고
저번에 손동유 선생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면서
왔던 과정들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왜 누군가
외치고 있고, 왜 중요하고, 당연한 건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는데,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도시는 물론 농촌의 새로운

활용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형성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사업을 하기 위한 아카이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유용한 아카이브를 찾아가는 여정’으로의 아카이빙,
가치 있는 아카이브를 만들기 위한 협력과 공유의
아카이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거둘 수
없다.

아카이브의 깊이는 인류 역사만큼, 아니 지구의
역사만큼 깊다고 생각한다. 그 깊이를 이해하는 것이
유용한 아카이브를 만들어 가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한다. 분과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만난, 개항장
일대의 아카이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지역 후배의
말이 생각난다. 아카이브에 대한 이해 없이 내가 생산한
아카이브가 절대적으로 유용한 것이라 생각하며 공유하지
않고 폐쇄적, 적대적인 아카이빙을 하거나 단기적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아카이빙만을 요구 당하는 일이
안타깝다. 다양한 연구와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아카이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수행 연구자나 단체에 귀속(?)되어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보다는 아카이브의 수준과
적절성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형성하여 인천 지역문화
발전에도 도움이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는 일을 자주 본다.
아카이브와 관련한 진지한 담론이 형성되지 않은 과도기적
현상이었으면 좋겠다. 지금부터라도 모여서 논의하고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 2021년 인천문화포럼 ‘인천 문화,
아카이브?’ 분과의 활동이 그 자그마한 겨자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록보관소를 제안하고 아카이브 관련

분위기를 진진 시키며 문화 변방으로서의
 농촌이 아니라 그것을 문화 중심지로써 새롭게
 인식하게 해야 한다. 제가 책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첫 번째 선정됐던 책이 『전국
 축제 자랑』이라는 책이었어요.

♥♥♥
 ───
 저 책 요즘 많이 읽으시더라고요.(웃음)
 네. 부부가 전국에 있는 축제를 다니면서
 재미있게 쓴 책인데, 각 축제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하는 책이에요. 읽으면서 지역의
 존재 자체로서의 기록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 책은 이거였어요. 『런던에서 만난
 도시의 미래』. 도시재생의 출발지인 런던이
 그동안 어떤 문제에 마주쳤고, 어떤 해결안을
 모색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는지 서술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들을
 찾아보니 공공 공간, 보행 중심, 그리고
 ‘시민’이라는 기조. 살아가면서 진정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공간, 우리가 결을 수
 있는 길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인 시민이라는
 기조. 그래서 도시는 필연적으로 쇠퇴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법을 찾는 것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핵심이라는 생각이
 적힌 책이었습니다.

210627 10:55

☑☑☑ 학문 혹은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 말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말 아카이브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기록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나요?

문화강좌들을 촘촘히 기획하고 지역 현장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협업을 통해 지역 아카이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일. 이를 위한 시민, 전문가, 행정의 협치가
 요구되어 진다.

바다는 그 깊이와 넓이만큼 많은 것을 포용하고 많은
 것을 정화해준다.

아카이브와 아카이빙을 둘러싼 불편한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는 인천문화현장이 진일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본다.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통해
 심연 속에 잠겨 있는 유용한 아카이브를 수면 위로 올려
 함께 나눌 수 있는 아카이빙. 문화예술을 본캐(‘본래의
 캐릭터’의 줄임말)로 생각하는 나에겐 실로 가슴 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유쾌한 소통, 아름다운 연대’를 문화를 통해
 즐겁고 행복한 인천시민의 삶에서 만끽하고 싶다.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소박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논의는 인천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논의가 되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세삼 들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이런 자리가 마련된 이상 금한
 마음에 서두르지 말고 준비를 잘 해봤으면
 하네요. 많은 지역에서 아카이빙을 한다고
 그러지만 중간에 후 시작하는 거는 좋은데 장기적인
 그렇게라도 시작하는 거는 좋은데 장기적인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
 지자체에 가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이렇게
 뜻을 모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치를 관에서 마련해야 한다. 그게 문화재단이
 되었던 지자체가 되었든, 주민들 스스로 장기
 지속 가능한 환경을 갖출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그것만큼은 관에서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것이 주민들의
 몫이다.

☑ 시민들의 아카이빙은 왜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반대로 왜 이렇게 폼퐁되고
 있을까. 지금도 보면 마을미디어활동가,
 문화해설사, 마을해설사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아카이빙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관에서
 어떤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만들어져서 주민
 중심이라기보다는 행정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형태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210713 11:51



지 같은 경우는 미추홀 마을지도 만들기에 참여

각 분야에서 히스토리를 탄탄하게 쌓아오신 고수분들과의
 토론은 ‘앞으로 문화예술이 가야 할 방향성은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가’를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인천에서 이미 아카이빙을 시도한 것들 중
 대표되는 다양한 섬 이야기, 그리고 이미 이전에 관(官)
 중심의 사업으로 건축된 마을박물관 이야기 등의 사업
 배경과 결과보고 및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을 했다. 더불어
 다른 지역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삶 속의 아카이빙
 형태가 매우 흥미로웠다.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이 각색한
 기록이 아닌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기록이 얼마나
 의미 있는 활동인지 깨달았다. 예술가의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아카이브라는 개념에서는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새롭게 개념부터 접근해야했고, 여러 차례 되물고 사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눈물 흘리는 자영업자, 소리 없이 죽어가는 예술가

인간이 디지털 기술로 현실 세계를 초월해서 만들어낸
 여러 세계를 메타버스(metaverse)¹라고 한다. 코로나19

1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로, 1992년 미국 SF 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 크래시』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메타버스는 5G 상용화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추세 가속화로 점차 주목받고 있다. (pmg 지식엔진연구소, 네이버 지식백과, “메타버스”, 2021.10.24)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기 보다는, 행정 담당자를 거쳐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시민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함께 차도 마시고 밥도 먹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어야 했는데, 그런 시간 없이 짧게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되게 많아요. 어떤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행정 담당자의 실적을 위해서 예술가나 주머니 소비되거나 회생당하는 정황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2

10713 12:39

++ 우리가 어떤 사례를 이야기하던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아요. 아카이브는 기록이다.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거를 판단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 앞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조금씩 야금야금 전파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210804 09:32

☑☑ 도시는 좀 팬츠인데 특히 농촌이나 어촌으로 가게 되면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뭘 하든 간에.

☑☑ 하나, 최근에 진해하고 서천이 '근대역사 문화 공간'으로 지정됐잖아요. 인천도 상당히 많은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언택트 세계를 의미한다. 김상균 교수의 『메타버스』에서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배달의민족, 에어비엔비, ZOOM 등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은 생소할 수 있으나 이미 우리 일상에 많은 시간을 메타버스 세계에서 보내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온라인 강국으로 어디서나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인터넷 세상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술가들이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서 많이 무너졌다. 실제로 실기 교육을 해야 하는 악기 수업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지만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현실'에서 의식주 뒤로 밀리는 아픔도 겪고 있다.

기록이 왜 중요한가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찾아올 것이라고.'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경각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 지점에서 아카이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과정과 그것을 바로 경험해보는 장(場)이 필요하다. 무분별하게 난발하고 있는 아카이브 말고 담백한 정의와 표현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인천 문화, 아카이브?' 분과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집중했다.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을 천천히 접근하며 알아갔고, 실제 지역에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도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제자리인 반면 주변 지역은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 개항장은 지금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진해나 서천의 경우 근대역사 문화 공간으로 지정이 됐고, 몇 주 전에는 신안하고 다른 세 군대가 유네스코 개별유산으로 지정이 됐대요. 조금 전에 섬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안은 섬 살리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인천은 여전히 과거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해법이 뭘까. 결국은 유 무형의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해서 그 활동의 결과물이... 섬진흥원도 목포가 확정이 됐고, 섬의 날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인천 사람은 별로 없었던 상황을 보면서, 인천을 인천다운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개별 얘기도 그렇고 송도도 랍사르 습지로 지정됐다가 아파트 짓고 있죠. 다 없어지고 있고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 ■ ■ 인천은 어떤 것들이 한번 쭉 나왔다가 다시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잊혀지고...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렇죠.

210804 09:54

■ ■ ■ 피드백을 받지 않은 프로젝트가 지워

목적 을 위해서 반복 수행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반복되는 아카이브라는 의제를

이루어지는 아카이빙을 탐구했다. 앞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아카이빙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도 했다.

앞으로 아카이빙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이 운영하는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²⁾에 방문하면 문화예술 자료들이 모두 보관되어 있어서 1930년대 자료도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인천만이 가질 수 있는 아카이빙 플랫폼이 있으면 어떨까? 켜켜이 쌓인 각종 사업들과 기획안이 반복되어 선택되거나 소멸되고 있다. 선택적 기록이 아닌 온라인 상의 양적 저장에 필요하다. 전문가도 필요하겠지만 일반 시민도 언제나 접근 가능한 인천문화 메타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혹자는 “권리에 대한 고민은 쓸데없다. 원래 네 것과 원래 내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야 하기에 가상세계와 같이 자유롭지 못하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기록되고 그 기록이 활용되고, 그로 인해 보다 신뢰 있는 문화 상호작용이 가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봤어요. 파정보다는 결과물만 바라는 제도. 그리고 아카이브에 끼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내부에서 짧은 시간에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예술가의 입장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정하기 전에 내부의 지원이나 제도를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 에진 인 천문화재단 지원사업 내용 중에서 아카이브와 관련된 사업들, 예를 들어서 연구사업? 4-5년 전에는 없었던 연구 관련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 ■ ■ 네.

☑☑☑

그걸 보면 연구사업이라고 하는 몇 백 만원 단위의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기존에 지역문화 활성화라든지 공공예술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내지는 연속지원이 거의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라면 조사를 해서 펼쳐놓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연구사업은 왜 다년간 지원이 되지 않느냐라든가. 보통 연구사업같은 경우는 연구해서 책자나 보고서나 결과물 내면 끝나잖아요. 한 권의 책으로 남는 그런 상황이 많죠. 물론 다른 영역에서는 연구사업도 몇 년씩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지만 문화예술 관련한 지원사업에는 왜 없을까라든지. 있다면 왜 그렇게 적을까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만인만색의 아카이브! 잊지 말아야 할 것!

손동유

“아카이브는 유행인가?”

많은 사람들이 아카이브를 이야기 하는 세상이 되었다. 1999년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고 국내 대학들에서 기록관리학과를 개설하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아카이브(Archives)’는 참 낯선 단어였다. 그 후 20여 년 동안 세상도 많이 변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기록을 어떻게 만들고, 유통하고, 관리하고, 보존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법이 ‘공공기록물관리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면, 공공기관의 기록과 정보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법이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다. 이 두 법은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공공업무를 하는 곳에서는 기록과 정보를 관리해야하고 사람들이 요구하면 보여줘야 하는 것이

평장히 적절할 것 같은데요.
준비 해보겠습니다.

210804 10:00

♣♣♣ 예산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누구보다도
공감하는데 신불리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불만과 비판은 얘기할 수 있겠는데 대안 제시가
힘들더라고요. 이런 황당한 경우를 보면 비판할
수 있고 너희의 생각이 잘못됐다 얘기할 수는
있는데, 어떤게 합당한 거냐고 질문을 해 오면
그 점에서 막히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 이 질문도
선생님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178

210804 10:25

十一 제가 고민하고 싶은 건 일단 일상 속, 생활
속에서의 아카이브고, 지금 마을박물관 얘기해
주셨는데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려운 부분들은 의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미션을
주시면 가서 그 당사자들을 만나보고 그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가서 보고
싶습니다.

210902 11:14

☑☑ 모든 것의 시작은 아카이브에 있고, 아카이빙의
결과가 조금 더 발전된 또 하나의 아카이브로
남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똑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역이 됐는

인천 문화, 아카이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다.

디지털 환경은 누구나 기록을 만드는 세상을 만들어
줬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등을 통해 무수하게
생산되는 텍스트는 물론이고 PC와 스마트폰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록의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만든
기록을 손쉬운 방법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통할 수도 있다. 게다가 사람들은 양질의
기록과 그렇지 않은 것, 혹은 나에게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어렵지 않게 선별하면서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굳이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현재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기록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기록을 유통하고, 선별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제
기록은 과거처럼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소유되고 그것이 힘이 되는 세상이 아니다. 오히려 공유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달아가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
운동’은 한국 현대사에 대한 성찰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권위주의와 국가주의에 힘없이 동원되었던 삶의
모습, 파편화된 채 그저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무한경쟁에 내몰려 ‘사람’을 잊고 살았던
과거에 대한 성찰은 흐릿하나마 앞으로의 삶에 대한
해답의 단서로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다.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좌충우돌을 스스로 기록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179

유용한 아카이브를 만든다면,

문화계가 뒀든 반박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카이브의 정확한 위치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론은 아카이브에 대한 베이스 없이 그 다음 아카이브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문화자원아카이빙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문화자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창작과 기록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활동들이 연결되지 않아서

중복작업을 한다거나,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도

그것이 마치 기록인 것으로 인식되는 여러

있다. 개인의 삶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남기려는 발로이다.

이렇게 법과 제도, 디지털 환경, 공동체적 삶의 지향은 아카이빙에 대한 관심과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 기술문명, 시민의식의 변화발전이 낳은 아카이빙이라는 현상은 일시적 유행이라기보다는 시대정신이 담겨있는 행동양식, 즉 문화현상이라고 본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카이빙이 유행처럼 보이는 이유는 저마다 자의적으로 아카이빙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좋게 말하면 ‘만인만색’이라 할 수 있겠지만, 때론 ‘중구난방’으로 보이기도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카이브(Archives)란 ‘가치 있는 기록’을 말한다. 아무 자료나 많이 모아놓았다고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기록을 수집, 관리, 보존, 서비스 하는 기관을 아카이브라고 한다. 물론 ‘가치’는 주관적일 수 있다. 단, 개인의 기록일 경우에 공공의 기록으로 사회적으로 공유될 때에는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아카이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점검 지점이 바로 ‘가치’이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기록을 다루고 있는가?

다음으로는 기록의 요건이다. 아카이브로서

가지 시행착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진단 속에서 인원은 문화자원 분야에서도 관례와 질서를 갖고 아카이빙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아마 인친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와 관련한 연구조사가 있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지역문화자원을 디지털라이징(digitalizing)하는 부분에 대한 웹플랫폼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역에서 이런 걸 한다고 하면 단순한 페이지나 블로그를 아카이브처럼 소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아카이브가 남용되고 오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문화와 아카이빙이라는 게 중요한 의제이니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제-정의와 방법론을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10509 10:52

☑☑☑ 현재 인친을 기반으로 산재되어 있는

아카이빙 주체들, 내지는 그것이 있는 장소를 찾아본다던지, 그 다음에 왜 시민, 전문가, 활동가나 예술가와 연결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요.



아카이빙을 하는 것도 꽤 중요한데, 그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술분야에서는 평창동에 미술아카이브 전문미술관이 올해 문을 열거든요. 그 곳은 정보시스템을 잘 연동해서 만들었더라고요. 반면에 인친연구원에서 ‘아카이브랩’이라는

요건을 갖추려면 내용(contents), 구조(structure), 맥락(context)를 확보해야 한다. 아무리 멋진 사진도 언제, 어디를, 왜 찍었는지 모르면 기록으로서 활용할 근거가 미약하다. 내용과 구조는 갖추었지만 맥락이 없기 때문이다. 표지 제목을 보면 매우 중요한 문서이지만 안전하게 보존되지 않아 내지가 바스라져서 읽을 수 없다면 그 또한 기록으로 활용할 수가 없다. 구조도 중요한 요건이다. 이들 3요소를 확보하는 일은 아카이빙의 기초이다.

간혹 ‘사진으로 기록한다’, ‘영상으로 기록한다’, ‘책으로 기록한다’는 경우를 접하곤 한다. 많은 경우 기록의 3요소를 놓치고 있다. 영상과 책의 경우에는 굳이 ‘아카이빙’이라는 이름을 왜 붙이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많다. 그냥 영상, 책이라고 부르면 될 것을.

백서가 대표적이다. 백서라는 책자형태로 원가의 기록을 남겼다고 하는데, 백서는 대부분 기획된 내용을 작성자의 주관과 편집자의 주관이 합쳐져 만들어지곤 한다. 게다가 백서에 사용된 원자료(문서, 사진, 인터뷰 내용 등)는 기록물로 확보해서 정리하지 않고 백서라는 책만 남는다.

모름지기 아카이빙이라고 하면 개별 기록물을 위의 3요소와 함께 확보하여 기록의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고, 기록물 간의 형태적 내용적 관계를 반영한 기술, 분류 등의 작업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보존관리체계를 갖추는

단체와 함께 만든 시스템은 일반인들한테 접근이 안 되고 아님 아예 다 닫혀있어요.

210509 11:01

♣♣♣ 아카이브를 표방하면서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정작 ·아카이브스러운·건 잘 보이지 않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면 ·아카이브·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각자 다른 해석을 하고 서로 교류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카이브를 마치 대단한 보물을 모아둔 것처럼 폐쇄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요. 또 단기 프로젝트나 어느 시기까지만 운영하는 걸 목표로 하는 시각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즉 다른 영역의 아카이브와의 연관성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카이브를 새롭게 접하려는 사람들은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뭐가 아카이브야?” 이런 혼란을 주고 있다고 봐요. 인친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아카이브가 최근 새롭게 시작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210509 11:17

♣♣♣ 먼 미래에 잘됐을 때 모습이겠지만 각 분야의 아카이브들이 자기 역할 잘 하면서 네트워크가 잘 되어있다는 것은 이용자와 시민들이 원활하게 각 분야의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건데요. 그때는 좋은 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한다. 당장 실현할 수 없는 부분은 과제로 삼더라도 아카이빙을 하려면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다.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록물을 둘러싼 사람들의 권리이다.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초상권 등은 날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인권의 또 다른 모습이다. 아카이빙은 기록을 다루는 일도 포함하지만 결국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일이다. 즉, 아카이빙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람은 빠져있고 ‘기록을 위한 아카이빙’을 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곤 한다.

민주주의, 공유의 정신, 공동체 정신 등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아카이빙을 위해서는 부디 기록의 가치, 기록이 갖추어야 할 요건, 지속가능성, 인권이라는 중요한 점검지점을 놓치지 말았으면 한다.

일지만 동시에 어디가 어떤 자료들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갖고 있지 않든지, 갖고 있으면서 안 보여준다든지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요.

210627 11:21

♥♥♥ 최근에는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거는 사실 활용 부분입니다. 아카이브를 사유화할 것인가 아니면 아카이빙을 한 활동가가 오롯이 이를 자기 거라고 주장한다면 그걸 용인해야 될 것인가. 예술가의 경우에도 주된 인터뷰를 해서 그 사람의 작업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작업은 예술가의 것이니까 그 사람만 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죠.

■ ■ ■ 저작권 하고 뭐...



구술을 제공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카이브가 없어도 되고요. 사실 오롯이 따지면 그 예술가가 거라고 말하기가 어렵기도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런 식의 아카이빙을 할 때 저작권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한편, 아카이빙을 하는 순간 모두의 것이 돼버릴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얘기가 덜 되어있다고 봅니다. 특히 예술영역을 보면 아카이브를 예술가가 사유화하거나... 이런 방식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210713 11:19



지금까지는 그냥 사진으로 찍으면 기록이 되고 그게 아카이브라고 생각해왔는데, 아카이브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광활한, 좁고 깊게 진동하는 아카이브

채은영

2021년 인천문화포럼에서 지역문화예술 아카이브 소모임에 참여하면서 개인적 목표는 작지만 분명했다. 지역문화, 혹은 시각문화예술에서 풍성하다 못해 오남용되는 아카이브의 생산과 유통 구조에 대해 알고 싶다는.. 모임을 위해 자료를 뒤적거리다 보니, 영미나 동아시아 중심의 국제교류에서 벗어나 발칸반도의 세르비아-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미술 활동을 소개하고자 했던 심포지움 <누가 지역의 현실을 생각하는가? Who cares the local realities?>가 떠오르며, “Who cares the Local archives?” 라는 질문을 마주했다. 그리곤 내내 ‘광활한, 좁고 깊게 진동하는 아카이브’를 생각했고, 예술과 예술가의 역할과 의미가 어떻게 지역 아카이브와 만나고 있는지 알고자 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료가 선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민이 주체가 된 프로젝트는 그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아카이브에 대한 문제 제기. 지역을 기록하는 게 몇 년도에 한번, 몇 년도에 다시 해서 한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카이브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
그래서 작년에 제안을 한 게,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을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문화원에서 물리적 보존 공간을 갖추기에는 예산이나 운영 면에서 많이 힘들니까요.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서라도 주민 활동의 결과들을 장기 지속적으로 안고가고, 소통하면서 새로운 콘텐츠를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해요. 인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주민과 문화예술활동가, 전문예술가를 대상으로 문화 아카이빙을 한다고 할 때 직접 아카이빙을 하거나 수집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요. 인천 안에 크고 작은 아카이빙 활동들이 있고, 이들을 네트워킹하면서 시 차원에서 해야 될, 그러니까 직접 수집도 하지만 네트워킹도 하는, 시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거든요. 시 차원에서는, 다시 말해서 현장과 직접 만나는 기관들에서 지금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장기 지속 가능한 아카이빙 활동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일 수도 있는데, 교육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누구는 교육받고 누구는 교육하고 이런

문화도시,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문화 기획에서 지역 주민 구술사, 기록 등을 중심으로 아카이빙 작업과 프로젝트가 풍년이다. 대부분 원도심 장소성과 공동체의 역사성에 주목하고 거대 역사가 아닌, 작은 역사로서 생활구술사가 기존 지역성을 확장하고 풍부하게 하는 기반으로 찾고, 만들고, 쌓이고 있다. 분명 이는 의미 있는 지점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지역 아카이빙의 대부분이 과거지향적 시간성과 장소성을 강조하고 토박이나 정주자 중심으로 비슷한 결과물을 반복하고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지금 여기의 시공간 속 다양한 공동체와 장소성이 과연 토박이, 노포, 향토사, 역사성 등으로만 한정 될 수 있을까. 왜 선행된 아카이빙을 참고하지 못하고 매번 반복하는 걸까.

지역미술과 아카이브 : 제도화 연구

여전히 예술과 미술을 못 읽는 입장에서 세미나 과정에서 좀 더 집중했던 건, 지역에서 미술 아카이브의 지형도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지역연구보다 좀더 지역미술과 아카이브로 생각해보니, 공공예술과 연구비평을 위한 아카이브가 있다. 공공예술은 지역연구와 밀접하게 관계 맺으며 전시, 출판, 영상, 조형물 등 결과물을 만든다. 2020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가를 지원하기

구도 자체에 위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교육이라는 표현을 그냥 쓰는 걸로 할 때 교육
프로그램이 대부분 일회적인 게 참 한계라고
생각해요.

210713 11:34



이제 '활용' 부분인데, 연구자나 예술가가
아카이브를 작업의 일부로 사용하면서
시유화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동배를
찍었으면 그걸 소유하고 자신의 작업으로만
쓰는 거죠. 반면 이걸 어떻게 공유하고
확장할 것인지, 지역문화정보기본법인가
이기에 따라서 '인천문화 정보화 진담기구'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 인천문화 정보화
진담기구는 재단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별도의

독립 기구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어쨌든
지역문화를 정보화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지역문화아카이브의 주요한
역할이 될 수 있어요. 허브 혹은 네트워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 정보화 진담기구가
있어야 파편화되어있는 정보들이 모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진담기구에 허브와
네트워크 기능을 어떻게 넣을 건지 저희가
제안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교육을
짚어 주셨는데, 교육으로 들어가면 그 과정이
모듈화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몇 가지의
과정을 이수하면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것처럼
쉬운 말로 인력 양성을 한다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모듈화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카이브 교육도 사실은 좀 이럴 수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은 인천에서 20개가 진행되었다.
우리동네 미술은 설치형, 공간전시 및 전시형, 도시재생형,
프로그램형, 기록형 및 복합형이 있는데, 기록형이
아카이브 형식과 과정을 가진다. 지역미술 연구를 기초
자료는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인천문화재단이 비공개로
진행했던 원로작가 구술사 이후, 2020년 역시 코로나19의
온라인콘텐츠 지원사업으로 진행한 인천아트아카이브³에
중견 원로 작가 40명의 인터뷰와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스페이스빔이 이철명 작가에게 기증 받은
'이철명아카이브'를 전시와 『시각』 100호로 연계하거나,
우문국의 다음 카페와 같이 개인적 차원의 아카이빙이
되었거나, 특정 기관이나 단체 자료 혹은 『작가들』,
『황해문화』 등 지역 매체에 일부 연구자 자료가 쌓이는
정도이다.

누가 지역의 (예술) 아카이브를 생각하는가?

아카이브의 대상, 주체, 생산, 활용의 과정에 주목한다.
아카이브의 대상으로서 공동체가 대상화되어 있거나
과다 대표성을 갖고 있진 않는지. 생산의 주체가
기획자인지, 작가인지, 행정인지 시민인지. 생산물은
물리적인지 비물질인지, 공공화된 생산물인지 사유화된
생산물인지. 활용에선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공유화

3 <http://www.inartarchive.kr/>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10713 11:52

■ ■ ■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많은

아카이빙들이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10713 12:37

♣♣♣ 아카이빙이 참 고무줄 같아서 이렇게 적용하면 이렇고 또 저렇게 적용하면 저렇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잘 만들어진 결과물보다 일단은 단서를 잘 남겨 놓자. 그리고 포착한 단서를 개인이 갖고 있지 말고 공유하자.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맥락을 잘 확보해서 갖고 있자. 이런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민간 차원에서 의지만 갖고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일종의 아카이브 객체들, 기록물이라고 그레도 좋고요. 그게 사진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것들을 저장해 놓는 공간과 시설이 반드시 필요해요. 잠깐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양이 많아지거나 시간이 갈어지면 오래 담당해 줄 수 있는 무언가와 협력해야 합니다. 이게 항상 고민거리고, 선생님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210804 09:27

♣♣♣ 저는 이런 요구를 해요. 그냥 단순하게 요약해서 자료내고 성과 위주로 하지 말고,

확장이 가능한지. 얼마 전, 큐레이팅 워크숍 강의에서 한 참여자가 큐레이터의 리서치 아카이브와 작가의 리서치 아카이브의 차이가 무엇인지 물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공공 자본과 제도 안에서 큐레이터의 리서치 아카이브는 적어도 참여자들 사이에는 공유되어야 하고, 그 활용은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작가의 리서치 아카이브는 해당 프로젝트 과정에서 쌓인 것이 예술가의 작업으로 활용되고 저작권 등이 생긴다. 하지만 그 콘텐츠를 제공한 시민과 공동체, 협력자들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공공 자본과 제도가 확장되고 그 안에 예술가가 시민으로서 예술가, 예술가로서 시민의 역할을 다시 고려해본다면, 지역 연구와 아카이브에서의 과도하게 예술가가 해당 아카이브를 창작을 위해 사유화하는 점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아카이브-다시쓰기

인천이란 지역에서 문화아카이브에서 인천미술아카이브로 한정할 때, 파편화된 인천 미술 아카이브를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인지라, 기존 아카이브를 다시 쓰기 위한 연구와 비평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미술이 공공 자본과 제도 안에서 결국 지역의 문화 자산으로 시민들과 만나야 할 때, 예술은 예술가는 지역 아카이브의 생산과 유통의 구조에 대해 좀 더 솔직해야하고, 좀 더 전문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흥미로운 지점은 2017년

이야기들을 잘 다듬어서 편집된 영상과 핵심 텍스트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들자. 처음에는 소속기관 홈페이지 어디에다가 그냥 카태고리를 하나 만드는 정도의 이설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는 활용도가 되게 떨어지고 되게 박제화된 콘텐츠밖에 안 된다. 계속 활용될 수 있게 아예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면 좋겠다.

210804 09:46

♣♣♣ 재가아카이빙 관련해서 강조하는 건

‘재활용’이에요. 기록물 하나하나의 내용, 형식, 맥락을 잘 확보해 놓으면, 이를 가지고 씨줄과 날줄을 엮어서 기획자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창작자들이 새로운

창작 활동의 소재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기록물의 이야기를 잘 다듬어서 교육현장에서 지역의 교육 교재로 활용하고,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학생들이 지역의 원기록을 보고 엮을 수 있고, 하여튼 학생들이 이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카이빙으로 책자, 확보집을 만든다든지 영상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할 때 기존의 원천 데이터들이 잘 관리되지 않다 보니까 다음에 작업하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비슷한 수고를 해야 되는 일이 여러 지역에서 계속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인천만큼은 문화재단 또는 시 차원에서 인천문화재단의 원천 자료들을 잘 모아내고 간직하는, 그야말로

뮤지엄파크 설립계획으로 인천시립미술관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지역에서 인천미술관련 전시, 프로젝트, 포럼, 출판, 아카이브 등 역사화 작업이 여기저기서 활발(?)하다. 공공 미술관에서 지역 미술을 연구하고 전시,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나 소수 기획자나 비평가들의 연구와 입장이 수십 년 째 반복하고 있고, 여전히 지역 미술에 관한 이론적이고 비평적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설부른 지역 미술 아카이브와 연구 작업의 위험성에 대해 그 어느 성찰과 비평은 찾아보기 어렵다.

요즘 2016년부터 실패와 좌절과 함께 하며 자의적으로 진행하던 ‘인천 미술의 역사’⁴를 2021년 연말 작은 출판으로 마무리하며,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아카이빙 프로젝트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카이빙은 개인 특히 작은 비영리전시공간에선 할 수 없는, 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천은 여전히 내게 연구와 추억과 진정성을 강요하는 ‘고향’도, 한양과 비교당하며 부정과 힐난의 대상인 ‘마계’도 아닌, 제 2의 정착지로 긍정화되는 ‘도시’가 아닌, 기획자로서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금 여기의 ‘현장’이기에 다시 뭔가를 할 거 같긴 하다.

4 인천 미술의 역사와 인천미술사는 다른 개념이다. 인천미술사가 기존 미술사의 방법론과 이론으로 기존 지역 미술 생태계 안에서의 계보화를 따른다면, 인천 미술의 역사는 현장 리서치를 기반으로 하는 큐레이토리얼 프랙티스(curatorial practices)를 지향한다.

공공의 문화아카이빙을 했으면 좋겠다.
 인천의 문화자원아카이브가 필요하다. 그
 아카이브에는 원천 자료도 들어있고, 생산된
 콘텐츠도 들어있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고, 이런
 체계를 조금 어설프지만 '문화자원은행'이라고
 저는 부르곤 해요. 많은 사람들이 비용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자원은행을 인천은 좀
 가져가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저도 동조해서요.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왜 바꾸세요. 좋은 거 하신다고 그레놓고.
 (웃음)

'원천 데이터'라든지 '어딘가에 모여져야 되는
 것' 그리고 '교육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100배 공감하고요.
 2014년 당시에 마을박물관 친구 최초라교
 애기를 했었던 사례가 있어요. 미추홀구랑
 같이 교육부 인문도시 사업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3년 동안 지속을 하면서
 미추홀구에 있는 지역에 마을박물관을 하나씩
 만들었던 말이죠. 그 박물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카이브를 수집하고 기술 채록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한 곳 있고, 나머지는 그냥 간판만 있는
 상황이예요. 벌써 6-7년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월이 흐르고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보고
 싶네요. 지금은 마을박물관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많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이



나에게 아카이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최열

인천에서 태어난 나는 사진 작업을 하면서 아카이브에
 대해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사진은 첫 번째로 그 사진이 좋은 싫든 기록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 기록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보는 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나중 문제로
 하고, 우선은 기록이 된다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카메라의 발명으로 인해 사진은 첫째로 증거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많은 역사적 자료 안에서 사진이
 가지고 있는 힘은 간단명료하며 역사적 사실을 시각적으로
 빠르게 보여주는 특성을 지녔다.

또한 사진분야 중 다큐멘터리 사진은 주변 생활사나
 특정 인물의 삶을 많은 시간의 노력과 열정으로 1명의
 사진가가 현장의 리얼리티를 가장 충실히 보여주는 사진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 네.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일 것 같아요. 특히 김중현 선생님은 전국 상황을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이니까요.

☑☑ 그러면 마을박물관으로.(웃음)

210804 10:16

■ 디지털라이징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공유하고, 시간대가 맞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나중에는 소감을 나누는 플랫폼이 생기면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 여전히 60대 이상 은퇴자를 위한 강의나 마을 현실사의 영역은 지금처럼 유지하고 대신에 디지털 관련된 부분을 준비해서, 이제부터라도

만들어 가는 움직임이 있지 않으면 이대로 20년, 30년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면 좋겠네요. 디지털 아카이브의 필요성. 다들 느끼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면서, 여기에 또 하나 더해지면, “그거 돈 돼?”라는 거.

(웃음)

■ 제일 중요한 부분이네요.

☑☑ 플랫폼 만드는 것, 디지털 아카이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겠네요. 돈을 받아야죠. 인제까지 그냥 회생과 봉사라고 할 거예요.

■ 그렇죠. 좋은 프로그램이면 확실하게 받고 돈 낸 만큼의 감흥을 가져가야죠.

장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와 함께 언제부터인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유행의 흐름이 변화하여 각 지역의 특성 즉 로컬이 부각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 지역에서 역사를 다시 보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현재에는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 주민자치 등에서도 마을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나 또한 사진작가로 지역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여러 아카이브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는데 함께하고 있다. 최근에 참여한 프로젝트는 자신의 동네의 역사를 알고자 하는 장소성에 기반을 둔 작업이다.

대개 문화예술 기획자들이 하는 장소에 기반을 둔 아카이브는 자신의 동네 주변 지역을 가지고 작가들이 생각하는 동네를 새롭게 보여주거나,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마을 풍경을 천천히 걸으며 현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에서 보지 못했던 숨겨진 모습을 다시 바라보는 방식으로 예술과 아카이브를 적절히 가져간다.

하지만 관이나 간단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아카이브는 결과물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가 많다. 담당자 중에는 일의 과정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 위에서 내려오는 업무로 비슷한 사례의 결과물을 검색해서 사업의 레벨을 정해놓고 그만큼의 결과물만을 바라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인천문화포럼의 ‘인천 문화, 아카이브?’ 분과에

광활한, 좁고 깊게 진동하는 아카이브

200

210509 10:32



기록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관공서에서 만들어내는 행정 기록, 이진 우리나라 진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이 범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 외에 많은 의미 있는 기록, 이진 법적 의무도 없을 뿐 더러 잘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천의 문화자원을 대상으로 아카이빙 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록법에 의해 의무로 만들어야 하는 연구기록관은 지금 서울과 경남에만 있습니다. 많은 광역 지자체들이 안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인천은 작년엔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연구기록관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하여튼 연구기록관이 만들어지면 그 외 민간영역의 다양한 기록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 텐데, 아마도 당위만 갖고 될 해야 될지는 잘 모르는 상황일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천문화재단의 정의도 새롭게 하고, 대상이 될 만한 기록은 무엇이 있는지 기증하고 기록화 하는 걸 자발적으로 시작하면 인천광역시 연구기록관 설립과 맞물려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요.

인천 문화, 아카이브?

참여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각 영역에서 아카이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다. 또한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게 마을을 아카이브 하는 많은 단체나 훌륭한 사례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의 희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보았다. 현대 사회에서 아카이브라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카이브의 가치를 알고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또한 만들어진 아카이브를 잘 정리할 수 있는 툴이 생기고 쉽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다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 창작활동이나 프로젝트, 프로그램, 역사적, 교육적 자료로 가치 있게 쓰이길 바란다.

나의 경우 참여하는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도록 잘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주변의 기획자 예술가 등과 힘을 합쳐 아카이브를 어떻게 정리 분류하여 보관할지 생각해야겠다. 그리고 만들어진 아카이브 새롭게 볼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거나 편집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활용 가능할 수 있는가도 고민해 보아야겠다.

부모님이 사용하던 장롱 속 필름카메라를 젊은이들이 재사용 한다고 한다. 편하고 빠른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바로 확인 할 수 없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다. 인천에서 만들어진 많은 아카이브들이 현재는 별 의미가

201

♥♥♥ 아카이브가 사실 그 도시가 지닌 과거의 시간성이나 역사성만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의 시간성이나 장소성은 거의 배제되고 있거든요. 또 한편 아카이빙을 하면서 지역의 역사가 대표적인 사건이나 공동체로만 집중되는 것들이 아쉽다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아카이빙의 주체가 예술가가 되는 게 아쉬운 지점이 있어요. 시민이 아카이브의 재료를 제공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고 예술가들이 사진을 찍거나 해서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은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10509 11:18

♥♥♥ 지역만을 강조하는 예술인을 의심을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지역을 계속 본인의 활동으로 소비하거나 대상화하면서 권력화하거나 제도화하는 부분. 그러면서 오히려 지역의 문화자원을 단선적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아카이빙의 경우에도 새로운 영역이면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해줄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210627 10:37

♥♥♥ 지역의 아카이브, 아카이빙 작업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했던 사람과 그다음에 들어오는 사람 사이의 연결이 잘 안 되거나, 경쟁관계가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일종의 배타성? 사실 완전히 학문적으로 하는 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음 세대에게는 분명히 귀중한 자료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보다 바로지금 잠들어 있는 문화예술활동의 결과물을 꺼내서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과 소통을 시도하며, 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아니라면 결을 달리해서 문화예술 쪽으로 접근하는 아카이브는 훨씬 더 다양할 수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요.

210627 10:57

☑☑ 어떻게 보면 사진과 영상은 굉장히 강력한 기록 수단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의 알맹이가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알맹이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훑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기록이라는 게 다양한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알타미라 동물 벽화처럼.

210627 10:59

++++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물건을 더 이상 사지 않고, 있는 물건을 매일 버리는 모임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중에 가장 마지막에 버리는 게 사진이래요.

■■■ 마지막이에요.

++++ 그걸 버릴 수 없는 거죠. 그걸 경험한 사람은

다음부터 인화를 안 하던지 블로그를 만들어서 인터넷 상으로 저장을 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저장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만약에 다 버린다면 나는 사진을 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 사진은 기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니까요.

추억이나 그런 것도.

☑☑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주 우울하고 기분

나쁠 때 밤새서 사진을 보거나 옛날에 썼던 편지랑 일장도 다시 읽거나 그러는데...

♥♥♥ 저는 개인의 기록이 많이 남겨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기록이 되게 과잉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스스로도 일에 대한 건 기록을 남기지만 개인 생활은 사실 기록을 거의 안 남기는 편이긴 해요. 반려동물 사진도 거의 잘 안 찍고, 이제 공공에서 기록이 의미를 갖는 건 당연하지만, 사적 기록이라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저는 그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집에 뭔가 물건의 기록이든 사물로 계속 쌓아놓는 거든 아니면 그게 이미 지든 텍스트든 그런 거는 좀 많이 버리는...

■■■ 그냥 확 버려요?

♥♥♥ 그냥 갖고 있다가 주거나, 버리거나...

■■■ 정리를 딱딱 하시네요.

♥♥♥ 공공의 기록이나 공공의 아카이브로 의미 있는

기관이 있으면 제가 그동안 못했던 도록이나 자료가 도음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런 기관이 없는 이상 개인이 어떤 기록물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떤 때는 한계가 느껴지기도 하고, 특히 책이나 도록은 물리적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잖아요.

☑☑ 아, 맞아요.

♥♥♥ 그래서 기록을 갖고 있다는 거, 아카이브를 갖고 있다는 건 일종의 물리적 공간이

확보돼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딱 들었어요. 개인 기록의 의미는 사실 20세기

초까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1세기에 와서 개인의 기록이 갖는 의미... 우리가

시민아카이브를 하는 것들이 다 과거잖아요. 반면 지금 우리의 기록이 과연 그런 기록과



‘지역문화예술과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주제에서 제가 관심 있거나 잘 아는 부분은 시각분야여서, 시각분야에서 아카이브 이슈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조만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의 큰 틀에서는 아마 ‘지역연구’가 될 것 같아요.

기존의 향토사나 이런 중심이 아니라 그 지역의 공간과 장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장소성의 아카이빙을 누가 하느냐. 예술가가 하느냐. 문학가가 하느냐. 문화기획자가 하느냐. 사진가가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섬세하고 다양한 맥락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이게 지역연구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의 경우는 공공미술 쪽에서 많이 하죠.

유사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기록이 과잉되는 시대인데, 만약에 10년, 20년 후에 2021년 시민의 생활사를 아카이빙 할 때, 우리가 지금 섬에 들어가거나 70년대 공간을 찾는 아카이브 방식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의 기록이 근미래에서 어떤 식의 아카이빙이 될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과거의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빙 하는 단계잖아요. 하지만 지금 생겨나는 자료는 이미 디지털화가 되어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를 나중에 다시 아카이빙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지역의 예술, 특히 지역의 미술에서 어떤 걸 자산과 가치라고 생각하고 어떤 걸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어떤 거를 소장하고 어떤 거를 할까? 이런 질문에 관한 기준이 많이 생겨나야 돼요. 한편에서는 트랙에 맞춰서 인천미술을 다 같이 연구하자는 데, 사실 논의가 잘 되고 있지도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안에 지역미술을 연구하는 연구자나 비평가가 너무 없다는 거요...



아카이브의 대상이 누구인가. 누구를 아카이빙 할 것인가. 누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맥락이 될 수도 있고, 주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미술에서는 특별히 리서치 베이스 큐레이팅이라든가 리서치 베이스 작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의 공간이나 장소성을 너무 인간 중심으로 보지 않고, 식물, 지역, 리서치, 지역아카이빙이라는 게 대부분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이와 달리 비인간적인 요소로 지역을 아카이빙을 한다면 지역이 어떻게 다르게 보일 수 있을까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인팅, 조각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지역에 대한 논평을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하는 리서치 베이스 큐레이팅. 시민문화에서도 인천의 공장 시대, 근대 건축물 등을 연결하는 부분에도 사실은 지역연구가 있고 그 안에도 지역에 대한 역사, 사람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과연 아카이브를 활용하거나 보여주는 단계에서 또 다른 대표성을 획득하는가. 그리고 주제, 누가 이것을 만드는가. 아카이빙의 주체가 기획자인지 예술가인지 행정인지 아니면 스스로 아카이브를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식의 자기 주도성이 아카이브에서도 가능할 것인가. 나아가 생산의 형식과 생산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카이브를 왜 만드는 것인가라는 부분, 도시계생을 위해서 혹은 상업적인 결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관광이 될 수 있고 공공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술가의 자기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을 때 생산의 배경, 그다음에 아홉까지 나올 있긴 하겠죠.

♥♥♥ 공공영역이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불편함을 느끼는 쪽이긴 해요. 민간영역 또는 자율영역에서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될 것이 다 채달이나 공공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되는 순간 시민의 자율성, 예술가의 자율성, 창의력 이런 것들이 표준화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공공 자본, 공공 시스템이 아카이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특히 공공영역으로만 얘기를 하면 나올 수 있는 의제나 내용이 너무 단순화되곤 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속가능성이나 자본이나 시스템이나 기관이나 인력이나 인력양성...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한정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행정과 거리를 두면서 할 수 있을까. 아카이브도 그렇고.

♣♣ 의제에 적합한 건지 모르겠는데, 각각의 전문분야 외에도 아카이빙을 해야 되는 대상과 범주는 무엇인지. 이것만 가지고도 꼭 얘기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인친의 문화분야에서 어떤 것을 아카이빙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열해보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 말씀하신 '무엇'을 아카이브 할 것이냐고 했을 때는 저는 비인간 혹은 인비지블(invifible)을 리(re)-아카이빙하기 아니면 아카이브를 다시

♣♣ 아카이브가 활용되는 상에 대한 기대까지 그러보면서, '인친문화와 관련한 아카이브의 대상과 범주' 이렇게 하면 이게 어디까지 일지. 굉장히 넓어서 생기는 막연함이 있는 거라서, 아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나씩만이라도 하면 그게 또 전체를 그러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 그러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지역에 사는 것들을 한번 아카이빙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꼭 국내의 좋은

쓰는 거죠. 기존에 있는 아카이브를 다시 아카이빙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제 최근의 관심사인 거 같아요.

사례가 아니어도 이걸 봤는데 이런 건 진짜
해보니까 정말 되게 좋더라. 우리가 바라고
있는 아카이빙의 모습에 힛트가 들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210713 12:18



저는 예술가이기도 하지만 예술가가 특히
공공영역에서 활동을 할 때 유념하는 게 저의
활동이나 기획이 지역을 ‘아트위싱’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지역만 내러오면 모든 예술이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되고, 착해지고, 지역의 긍정성을
보여주고 화합해야 되고, 재미없는 예술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지역 혹은 공동체랑
관계하는 예술 중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도서

『모든 것은 노래한다』처럼 비인간 혹은 다른
대상에 대한 아카이빙의 사례. 그것들이 잘
활용되는 사례, 잘 만들어지는 사례, 그러면서
지금 인천의 문화가 어떻게 아카이빙 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일종의 방향성. 이런 것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210902 11:32



공급한 점은, 아카이빙을 누가 어떻게 시작을
했든 어떤 과정을 거치든 본질적인 가치가
중요한 게 맞나요? 결국에는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건가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이 아카이브에 과잉된 대표성이나 의미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한 기록이랑

다큐멘테이션(documentation)이랑
아카이빙을 구분하는 이유는, 아카이빙은
분명히 선택적인 다큐멘테이션이에요.
생산자가 특정 의도를 갖고 만드는 게
아카이빙이거죠. 그 의도 없이 모든 걸
기록했다는 종합박물관식의 기록은
다큐멘테이션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아카이빙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지역에서 과잉 해석되었을 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알못

시름 ×

씨름

인천 청년과 문화예술

인천에서 나고 자라면 인천 청년 맞나요?

218

210610 21:20

~~~~

내가 생각하는 청년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내 주위에 청년은 누가 있는가. 내 주위의 청년 중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 고민은 나랑 어떤 관련이 있는가. 기타 동등의 질문들을 몇 개 가져와서 다음 시간에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의 관심사들이 조금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질문커티들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보고, 다음 시간에 그런 고민들을 나눠보면... 우리 안에서도 생각의 차이를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

청년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같이 한번 열어놓고 그걸 잡아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키워드는 ‘청년의 범위’인가요?

◆◆

저희가 얘기한 것들은 지금 의미 없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청년의 범위에 대해서 분류를 깊게 해보는 작업도 당연히 좋긴 한데, 분류 자체가 너무 힘을 쏟기보다는 저희가 분류한 전체 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조금 더 이야기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류는 그거를 위한 기초 작업 정도이고, 분류를 뭐가 저희 대표

# 인천 청년과 문화예술

권근영, 윤미경, 이종범, 전승웅, 전효정

들어가며

우리의 분과명은 ‘청알못 시름 × 씨름’입니다.

- 청년 문제에 있어 비전문가인 우리가 인천 청년문화에 대해 함께 시름하고 씨름했습니다.
- 20대부터 50대가 모여 청년 관련 답을 찾아가는 방식이 아닌 고민할 수 있는 지점부터 논의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앞으로 ‘청알못 시름 × 씨름’에서 제안한 의제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의제를 제안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청알못 시름 × 씨름’에서 제안한 의제입니다.

1. 인천에서 나고 자라면 인천 청년이 맞나요?
- 인천 청년들은 인천에서 나고 자랐지만, 많은

<<< 사실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고민이 되는  
 지점이, 지역을 한정 지어서는 안 되지만  
 지역 안에서 의제가 발굴되어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 모임에서 인천이 그냥  
 어떤 방식으로든 어쨌든 소비되는 상태가 좀  
 속상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천을 어떻게  
 하면 아끼고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는 건가. 근데 또 청년의 특성이라고  
 하면 꼭 여가에 주거가 없어도, 만약 축제  
 같은 게 있다면 지역을 떠나들면서 구성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실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잖아요. 청년의 시기라는 것이. 꼭 인천

안에서만 활동해야 된다? 이진 아니니까요.  
 인천과 청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끌고 가야  
 되지?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

최근에 인천문화재단에서 ‘예술인 이음카드’
 발금 조건이 변경됐더라고요. 이전에는
 기본적으로는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예술인
 증빙이 되어 있어야 되고 부가적으로 인천
 거주자여야 했어요. 저는 그게 기존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예술인의 분포도를 파악하는
 방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인천에서 공연예술활동을 두 번 이상 한 사람도
 카드를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이제 주거지가
 인천이 아니더라도 인천에서 공연예술활동을
 하거나 창작의 영역을 지역 안에서 펼치고
 있는 대상자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 시간을 서울 혹은 인터넷 공간에서 보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인천 청년’의 범주를
 만들 수 있을까요?
2. 젊은이들은 건강할까요?
 - “젊으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 이십대면 뭐...”
 이런 말들이 청년들의 ‘건강권’ 보장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 품의가 품위를 지켜주나요?
 - 문화관련 지원사업에 ‘이제 막’ 진입한 청년들이
 맞닥뜨리는 행정언어. 그 낯선 어려움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위의 세 가지 의제를 정리하는데 그동안 고군분투한
 ‘청알못 시름 x 씨름’ 위원님들과의 회의 내용을 에피소드로
 엮어보았습니다.

‘청알못 시름 x 씨름’ 1차 회의

일시: 2021.6.10.(목) 21:00-22:00 / 비대면
 참석자: 권근영, 이종범, 전승용, 전효정 / 불참: 윤미경

Episode 1. 학구적인 청년분과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 인천아트플랫폼 내
 인천서점 2층에서 인천문화포럼 오픈테이블이 개최됐다.

아닌가. 노동을 인천에서 하는 것. 거주지와 관련이 없더라도 생활을 인천에서 한다면 이런 대상까지 청년으로 포함하는 어떤 의제들이 나오면 좋겠다. 그게 청년들의 유동성과도 연결이 있을 거 같아요.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울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인천에 와서 일하고, 대륙도 인천에서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 결국은 교통을 따라서 청년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이 편해야 돈도 덜 들고, 그렇게 되면 그 곳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청년들이 모일 것이고요. 이제 교통의 측면은 현재 시점에서 (인천은) 많이 극복이 된 거죠. 1호선도 생기고, 2호선도 생기고... 2호선 생기기 전까지 서구는 너무

다른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 2호선이 서구를 연결해서 인천 도심으로 한 15-20분이면 전철 타고 오거든요. 굉장히 순환이 좋아진 거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여건은 됐는데, 콘텐츠가 없는 거죠.

210628 08:44

○○○ (지역 기획에서) 핵심 멤버는 사실 인천에 거주하거나, 인천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 해야 그런 경험들이 자산으로 인천에 남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나머지 친구들과 네트워킹하는 거는 확 열어서... 사실 지도 한편으로는 항상 텔레마인 게, 너무 '인천'하면 촌스럽고요. 그렇죠? 인천을 열어버리면 약간 허한 게 있어요.

당시 분과를 나누고 청년분과 위원들끼리 잠깐 인사를 나눈 후 갖는 첫 모임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비대면(온라인) 회의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직 서로 잘 모르는데 비대면 회의라니 낯설다.

“카톡”(5월14일):

분과 팀장님 선발, 만장일치로 전효정 위원 추천되었습니다.

“카톡”(6월10일):

1차 분과 회의 일정은 6월 10일 목요일 저녁 9시입니다.

효정: 안녕하세요. 저녁 9시라는 늦은 시간이지만 반나서 반갑습니다. 첫 모임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어 아쉽지만, 곧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앞으로 함께 많은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용: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분과에 청년이 두 분 계시니 이 두 분의 위원님들이 청년입장에서의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다른 위원들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근영: 안녕하세요. 저희도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년 전체의 입장을 대변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인 분들과 함께 청년에 관한 이야기는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정: 오늘 첫 회의이니 앞으로 우리가 논의할 주제는

한국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유럽 청년도 좋아하고 아시아 청년도 좋아하듯이, 인천도 꼭 인천 사람만 좋아하는 곳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핵심 인력이 인천

청년으로 구성되면 능력을 발휘할 때 자산으로 남지 않을까. 나아가 그런 청년들의 활동이 잘 정리돼서 자료로 남는 것도 지속 가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요. 10년 전에 뭘 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5년 전에 뭐가 있었는지 정리가 안 돼 있고. 이런 게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에서 어떤 청년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또 어떤 청년이 주체가 돼야 되는지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굉장히 다양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청년 예술가들만의 축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취창업에 관심 있는 일반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좀 더 폭넓은 무언가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의 무언가 인지... 그런 것들이 우선 정리되면 좋지 않을까요.

<<< ‘청년문화’라고 했을 때, 저는 꼭 예술가나 창작자만 한정 짓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좀 더 다양하게.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대상들이 자유롭게

부담없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각자의 생각을 풀어내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용: 오픈테이블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청년 고독사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데요. 이러한 것을 포함하여 시 차원에서 청년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한 번 같이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범: 청년의 기준이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의 연령대를 하나로 생각하는 것 보다는 20대, 30대 등 청년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어느 특정 연령대를 선정해서 그 청년들의 상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용: 인천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 관련 사업들이 연령대를 구분하고 시행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분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영: 내가 생각하는 청년의 범위, 내 주위의 청년은 누가 있는가, 그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 고민은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등의 문항을 각자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은 어떨까요?

승용: 다음에 질문 문항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오늘 좀 더 우리가 제안할 의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음 모임에서 각자 관심 있는 의제에 대해 자료 조사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문화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210628 08:55

~~~~ 문화를 포함해서 전부 다 그 안에 집중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예술활동을 더 펼쳐질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더 향유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천 지역 안에서는 꼭 인천 청년뿐만 아니라 “나 인천 사람 아닌데 좀 소외감 느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소외감을 느낄까?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은 뭐가 있을까? 지원사업에서 그들이 수혜를 입지 못하는 그 미묘한 차이는

뭐가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발굴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고민거리들을 계속해서 질문으로 발굴해내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안의 어떤 목적성 혹은 목표를 가지면 좋겠다.

<<<< 지회 모임의 목표는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고민거리들을 질문화해서 좋은 의제를 발굴해내는 게 이 모임의 목표이기 때문에 목적은 분명한 것 같아요.  
~~~~ 저는 함께 활동하는 친구들이 다 인천에 이사 와서 살면 좋겠거든요.  
<<<< 왜냐하면 활동을 하다 보면 거기로 가게 돼 있잖아요. 문화재단 사업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여기 거주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걸어서 하지 않기

종범: 청년 창작자들이 본업으로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부업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업과 부업의 비중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긴 합니다.

효정: 승용 위원은 문헌에 기반한 조사를, 종범·근영 위원은 직접 발로 뛰는 인터뷰 위주의 조사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용: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한 청년 작가가 얼마나 있는지,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청년 예술인 비율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전에 인천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한 활동을 했던 그룹들을 먼저 인터뷰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예로 정예지, 최환, 문지혜 등 기존에 ‘인천 청년’이라는 그룹으로 활동한 흔적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정책추진단의 활동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효정: 밤이 늦었으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땀 보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청알못 생각

- 승용 위원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교수님이라서 그런지 회의에 참여했는데 갑자기 대학 재학 시절이 생각났다. 과제인가? 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청알못

때문에 다 열려 있으니까 콘텐츠가 좋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로 몰리게 되는 거죠. 지원 체계도 좋고, 맡겼을 때 운영되는 모습들이, 지원의 장벽도 낮아서 활동하기 수월하고요.

210628 09:05



○○○ 인천에 연고는 있지만 지금 활동은 다 서울에서 해요. 왜냐하면 사실 어떤 분야들은 인천에서 활동을 할 수 없는 분야들도 있어요. 서울이 그런 게 더 잘 돼 있어서... 계도의 혜택을 완전히 받는다고 보자,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원하는 지향점과 관에서 원하는 것들 사이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저도 계속 일하면서 고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존 행정이란

청년문화의 중점을 잘 견인해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분이 있으면 저도 한결 수월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원하는 것들이 시에서 지원을 더 많이 받는 일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하고...

210701 08:34



○○○ 어떤 청년이 인천 범주의 청년이나 했을 때, 생활이 인천이나, 학교를 인천으로 다니나, 직장이 인천이나. 이런 거를 논의로 놓어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기를 계속할 수 있으니까, 사실 경계는 애매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경계 주변은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되게 막연한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지원의 범위나, 이게 항상

시름 x 씨름' 단독방이 "카톡카톡"하며 쉬지 않고 올린다. 승용 위원이 관련 자료를 단독방에 열심히 올린다.

- 청년분과가 너무 학구적인 분과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라며...

“카톡”:

다음 회의는 6월 23일 저녁 9시입니다.

“카톡”(6월 22일) :

분과별 대표자 회의 다녀왔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신호진 대리님 섭외하였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의 사정상 내일 모임은 저녁 9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청암dot 시름 x 씨름’ 2차 회의

일시: 2021.6.23.(수) 21:30-23:00 / 비대면

참석자: 권근영, 윤미경, 이종범, 전효정 / 불참: 전승용

초대: 신호진(인천문화재단 대리),

정예지(인천청년네트워크)

Episode 2. 우주인 아이돌 청년을 만나다

효정: 오늘 회의는 신호진, 정예지 두 분 인터뷰를

21:30부터 22:30까지 1시간 동안 진행하고

22:30부터 23:00까지는 분과 위원님들과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

◆◆◆ 청년에게 지역문화가 어떤 의미이고 왜 필요한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사실 요즘 시대는 어떤 지역이나 동네에 딱 국한해서 교류하는 시대가 아니고, 인터넷 망을 통해 세계적으로 교류가 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저만 해도 저희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누구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인터넷 안에서 생판 모르는 남이 저희 옆집 사는 분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지역이라는 게... 꼭 청년에게 지역문화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된다면 왜인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청년한테 지역을 말할 때 그 범위가 자신의

동네만 말하는 건지, 아니면 넓은 인천이라는 전부인지. 저는 가끔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게, 저희 집 기준으로 사실 교통이런 거 다 따져보면... 홍대가 송도보다 가깝거든요.

<<<< 서구도요. (홍대가) 여기(인천 중구)보다 가까이요.

◆◆◆ 네. 근데 그렇다고 하면 부평에 사는 청년 예술가가 홍대에서 활동하는 게 맞나, 송도에서 활동하는 게 맞나를 따져봤을 때, 인천이라는 행정구역이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송도에서 활동하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210701 09:00

○○○ 생활권 지역이라고 하는 '인천'을, 그리고

분들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위원님들 먼저 각각 소개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진: 안녕하세요. 인천문화재단 신희진입니다. 저는 2017년도 인천문화포럼이 처음 출범할 때 담당자였습니다. 청년분과 팀장님께서 그동안 인천문화포럼 운영 경험을 중심으로 대화를 요청하셔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천청년네트워크에서 문화예술과 분과장을 맡고 있는 우주 아이돌 정예지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인천문화포럼 청년분과 위원장을 맡아서 이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청년분과의 질문

- 이전 문화포럼 청년분과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
- 당시 제안했던 정책들 중 무엇이 있는지
- 최근에 청년정책과 관련해 가장 짜증났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 현재 인천의 청년문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2021 인천문화포럼 청년분과에 바라는 점

효진·예지 응답

- ① 인천문화포럼
- 2017년도가 인천문화포럼 원년해입니다. 문화정책, 콘텐츠개발, 생활문화, 문화가치확산, 문화환경,

‘청년’을 어떻게 분류해 볼 것인가. 인천에서 생활하는 청년, 학교를 인천으로 다니고 있는 청년, 직장을 인천으로 다니고 있는 청년이라고 했을 때 청년과 지역문화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의제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청년에게 지역문화가 꼭 필요한가? 혹은 청년문화에 영향을 주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인천 청년에 대해 얘기해 볼 수 있는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청년에게 과연 지역이 중요한가 아니면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가? 청년이 지역에 요구하는 것은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이 소주제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 네. 그렇다면 이제 지역과 관련해서 덧붙일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〳〳〳 그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지원사업을 쓰기 위해서 인천 출신이거나 나와 자랐거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어떤 한 분야에서는 그런 게 다 없어도 되겠다. 그냥 인천에서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

<<< 사업 자체가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고 활동 지역이 인천으로 규정이 된다면, 지원 자격에 대해서는 좀 더 열어두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〳〳〳 그런 게 있으면 어떨까. 그러면 인천에서 뭔가를 진짜 하고 싶은 사람... 예를 들어, 우연히 오토바이 타고 율미도 왔는데, 율미도 너무 좋네. 나 여기서 뭐 하나 하고 싶어.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할 수 있게 됐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문화 등의 의제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 첫째 청년문화창작소 설립 관련 부지도 보러 다니고 의제 발굴 컨퍼런스, 분과 워크숍(원주 청년마을, 청년자치 모임 등)도 진행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규모를 키워 분과를 늘리고 인원도 150명으로 진행했습니다. 청년분과도 50명 이상으로 참여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참여하는 분만 참여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문화정책 교류 환경 소통 청년문화 분과가 진행했고, 총 40회 넘게 진행했습니다. 유유기지와 협력해 의제 발굴 컨퍼런스를 진행했고, 강화도 및 신포시장 청년몰 답사 등 청년 자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논의했습니다. 청년 관련 예산 수립은 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한계가 있었지만 관할이라 청년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19년도 담당자가 바뀌고 분과가 개편되면서 청년분과가 폐지되었고, 인천문화포럼의 규모도 축소되었습니다. 총 30회 정도 진행되었고 청년들은 각 분과에 흩어져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분과 폐지 시 기존 분과 위원들에게 아무런 상의나 통보 없이 폐지된 부분은 무척 아쉽습니다. 청년정책이 수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연속성도 단절되었고 또한 당시 다른 인천 내 청년활동도 축소된 상황이 발생하여 어려모로 아쉬움이

◆◆ 다른 지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지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ⅴⅴⅴⅴ 맞아요. 그래서 인천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 인천에서 실행해 보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을 지원해주는 거.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 인천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이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단지 이것만 하고 빠지는 느낌은 되지 않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인천으로 올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천에서 활동을 한 타 지역 사람을 우리가 계속 붙잡아 줄 생계적인 지원을 해줄 거 아니면,

◆◆◆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인천에 살았어도 사실 참만 자고 왔다 갔다 하기 쉬운 동네니까요. 교통도 서울과 가깝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보다는, 거주하지 않아도 인천에 대한 자기 생각, 추억,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우선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저번에 예지님이 서울 연고의 팀이 한 인천의 문화축제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지역에 대한 생각은 서류를 위해서 얼마든지 자료 조사해서, 단순히 조건이 좋아 보이면 인천에 아무런 연고나 정체성이 없어도 꾸며낼 수는 있는 거잖아요.

◁◁◁ 꾸며내는 게 나쁜 것인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지만요.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저도 생각으로는 거주지 같은 물리적인 조건보다는

남았습니다.

- 2020년도에는 재단의 조직 변화,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으로 인천문화포럼은 공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백 기간 동안 인천문화포럼 TF(Task Force) 형태로 4회 정도의 회의가 진행되었고, 그 논의 결과에서 2021년도 인천문화포럼 운영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인천문화포럼으로 재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② 당시 제안했던 청년정책으로
- 기존에는 갭이어 교육캠프, 예술인 창업지원, 청년시민 종합생활상담 및 교육 등 많은 이야기가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뮤지션 두레 (공연 품앗이),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세대 소통 축제 등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참신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 ③ 인천청년네트워크
- 인천청년네트워크는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했습니다. 예지님이 문화예술 분과장으로 1·2기에 이어 활동 중입니다. 문화예술을 비롯해 4개 분야를 운영 중이며 나머진 청년정책이 일자리, 창업, 시험 등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 관련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자리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천청년네트워크 또한 1기와 2기

청년들이 무언가를 저질러 놓은 것들이 분명
 흔적으로 남아 있고, 그 흔적들이 변화의
 시작이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항상 제가
 ‘콩나물 범칙’이라고 그러는데, 콩나물에 물을
 쭉 뿌려놓으면 그 물은 밑으로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콩나물은 한 뼘 자라고. 그러니까 그
 청년들은 흘러가는 물과 같은 거죠. ...그래서
 지역의 부분에서 담벼락이 너무 높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더 많은 청년들에게
 인천이 여러 가지 실험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결국은 아까 얘기한 지점은 ‘기여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청년들이 와서 인천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미묘한 지점이 있지만,
 그 기여도의 수준을 너무 거창하게 세우지
 말자는 거죠. 작은 시도를 하나하나가 결국은

의미 있는 흔적으로 남아져 있을 것이다. 그런
 흔적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그게 인천 문화로
 형성이 되고...

~~~~~  
 <<<< 몇있다!

<<<<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떠오른 건  
 인천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 마음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하나 떠올랐어요. 청년들이 인천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 기준을 ‘참여  
 기준’이라고 해야 되겠죠. 참여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기여도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210701 09:12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청년들한테 “이거 해

간 연속성 부재로 아카이빙은 잘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 (청년들의 고민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중간다리 역할이 필요하진 않은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게 많습디다. 유유기지,  
 마음심리터, 월세지원사업, 별별학교, 부채조사,  
 유유기지 청년프로젝트, 유유기지 청년학교  
 등이 인천청년네트워크 1기의 제안을 통해 실제  
 반영된 정책입니다. 2기에서도 각 분과별 1개씩  
 정책이 제안되어 실제 정책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청년예산학교도 진행을 했고, 우선순위 투표나  
 정책발굴, 민관협치단이 제안한 정책이 어떤  
 과와 맞는지 조율을 해서 직접 해당 부서 과장 등  
 실무자를 만나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부처 간 떠넘기기...
- (최근 청년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인천청년문화대제전이 3회 개최 이후 여러  
 갈등으로 사라졌습니다. 당시 청년축제학교를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도 했었습니다. 지역에서  
 기획을 하는 청년들끼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입니다. 인천청년네트워크 1기에서  
 이를 정책으로 제안했으나 시에서 표류하다 결국  
 청년문화창작소로 이관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존  
 기획자들 가운데 네트워크링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던 형태의 기획학교로 변화하게 되어 그

출태니까 이런 기여를 해”를 바라는 것보다,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머물고 싶을 만큼 재미있는 토양을 만들어줄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신촌을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서 계속 활동하는 게 재미있다고 느껴야 아무것도 한 끝도 안 줘다고 해도 알아서 일로 모이는 거고, 앤드씨어터 극단 청년들이 극단 활동을 더 잘하고 싶어서 (인천에) 온다잖아요. 이사도 오고, 그러니까 잘 키운 청년 창작집단이 또 다른 청년들을 유입하게 하는 거죠.

◆◆◆ 그렇다면 오히려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단체랑 같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준다면 어떨까요?

<<<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 ‘장(’)이 될 수 있겠죠. 축제라고 해서 페스티벌 형식이

아니라, 단어를 좀 조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축제’라고 하면 신입견이나 이미지가 너무 강하니까, 그 어떤 판? 판을 만들어주면... 사실 판이 여기에서는 공연이고 저기에서는 출판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창작과 무관하지 않다. 그 판은 문화예술과 밀접한 거죠. 이것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210701 09:29

○○○ 인천 청년은 어디까지인지, 인천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학교를 다닌 사람인지. 경계를 명확히 하긴 어렵지만, 이런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생각을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해요. 여타 사람이 모여서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④ 인천의 청년문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효진: 생각보다 청년문화가 폐쇄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청년들의 가치로 잘 살려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지: 활동을 하면 할수록 더 잘 모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청년네트워크의 결속력이 낮고 연속성이 없어 그런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⑤ 앞으로 바라는 점

효진: 청년정책을 주도하는 주인공은 바로 당사자인 청년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지: 전 어른들의 목소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만 있는 것보다 이러한 목소리를 더 잘 전달해주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청년들이 좋은 활동들을 해도 연속성이 없으니 그 맥이 끊기고 다시 청년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끊기고, 이러한 반복되는 상황이 아쉽습니다.

정리

미경: 21세기 시점의 청년문화라는 것은 지역을 벗어나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SNS 등 세계 관계망을 통해 모든 지역의 청년들이 만나고 교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인천 지역의 청년문화에

이야기를해보면 좋겠다는 거요.

~~~~~ 그러면 그것들로 인해 지역의 어떤...

◎◎◎ 정체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역문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 인천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떠드는 게 아니라

인천에 관심 있는 사람, 인천에서 뭔가 해보고

싶은 사람들,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10729 08:54

◆◆◆ 사실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도 잘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청년 세대는 물론이고

그 외 세대에서도 공감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의제로

정리했을 때, '인천에서 나고 자라면 인천 청년

맞나요?'를 제목으로 하면 어떨까. 이를 통해

청년 세대가 인천 안에서 문화적 동질성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아니라고 하면 그제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아가 문화 정체성이 서울이나 아니면

타 지역, 혹은 요즘에는 꼭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온라인상의 커뮤니티에서 형성이

됐다면 그들에게 로컬과 지역문화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 될까. 여기까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210915 09:52

◆◆◆ 인천 청년은 어떻게 인천 청년이 되는가.

중간 중간 물어나오긴 했지만 더 깊게 얘기가

대해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청년만이 할 수 있는 청년의 축제가 계속  
정기적으로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경험으로  
응축되어 지속적으로 모이는 행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청년으로서 먼저 시행했던 것들을 이후  
함류하는 청년들도 앞선 이들의 흔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등도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범:** 지속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년문화가  
20대 또는 그 아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청년들이 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정:** 효진님은 오늘 백신접종도 하셨는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인 아이돌 예지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알못 생각

- 인천문화포럼 초기 운영자였던 효진님과, 우주인 아이돌로 활동하고 있는 예지님을 만났다. 인터뷰 결과 고민 지점이 그때나 지금이 큰 변화는 없는 듯하다. 그러나 '지속성', '연결성', '네트워크' 이 부분은 계속 숙제인 것 같다. 우주인 아이돌도 이젠 청년이 아닌 청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청년들의

됐으면 해요. 왜냐하면 인천 장년으로 자립할 수 있게 정책으로 떠먹여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꼭 정책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만큼 얘기하신 그렇게 선배들과의 교류가 됐든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가 되었든, 떨어져 나감을 줄이고 어떻게 잘 정착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조금 논의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추가로 다뤄졌으면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요즘 사회에서 MZ세대란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MZ라는 게 80년대 초반부터 00년대 초중반까지를 다 아우르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80년대 초반이랑 00년대의 공감대가 있기 어렵잖아요. 근데 왜 MZ라고 묶어서 말하는지가 화두 중에 하나고, 기성세대가 편하자고 아랫세대는 다 특이하고 개별적인

존재들이야 라고 대상화해서 하나의 상으로 낙인찍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이 있어요. 세대만의 성향과 문제가 다 다른데 그거를 너무 하나의 범주 안에서 그냥 ‘청년 문제’라고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희 분과 안에서 다루기는 너무 크고 긴 얘기여서 그걸 다 다루기는 어려웠지만, 청년 내부의 소통의 문제나 혹은 청년과 다른 세대들 간의 소통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취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나 고민이 꼭 저희 불과가 아니더라도 차후에 어디선가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종결된 것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좀 더 고민하고 가져가야 될 문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상이 실현되려면 우주로 가야하는 것인가...

“카톡”:

(승용) 앗 오늘 줌 회의... 종료 되었나요?

- 승용 위원이 컴퓨터에 앉아 있으면서도 입장을 못했다고 한다. 다행이다. 오늘은 승용 위원의 학구적인 요구사항과 라떼는 말이야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어서...

“카톡”:

3차 회의는 6월 28일 월요일 오전 8시30분입니다.  
장소는 미경 위원 사무실인 다인아트입니다. 분과별 예산 사용관련 서류작성도 필요하고...

‘청알못 시름 × 씨름’ 3차 회의

일시: 2021.6.28.(월) 8:30-10:00

참석자: 권근영, 윤미경, 이종범, 전효정 / 불참: 전승용

장소: 다인아트

Episode 3. Early Bird 청알못

미경: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제 사무실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만에 대면으로 만나니 더욱 반가워요.

효정: 근영·종범:

네, 모두 반갑습니다.

# 젊은이들은 진강할까?



사실 청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예술가나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들 자기 작업 이외에 부업이나 ‘사이드 잡(side job)’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인천에 있는 청년과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본업이랑 생계를 위해서는 부업?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들

사이의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고, 본업으로 돈을 버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니면 창작자들이 하는 부업의 종류가 학원 강사와 같은 특정 직업에 편중이 돼 있는지, 전혀 색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조사를 통해서 청년을 포함한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작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를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는 편이에요.

<<<

창작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는지. 또 다른 사이드 잡으로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경:** “어느새 시작했는데 어느새 끝났는지 몰랐다”라는 예지님의 이야기가 뇌리에 남습니다. 청년을 도구처럼 생각하는 기성세대의 나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정:** 근영·종범:

특히 청년의 이슈가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미경:**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축제, 최근 유행어인 ‘본캐’, ‘부캐’처럼 청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하며 그 안에서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축제. 이런 축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효정:** 저는 분과장이다 보니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분과의 의제를 발굴해야 되는데... 다만 청년을 이야기하면서 거주 지역과 활동 지역을 인천이라는 곳으로 한정해서 생각해야 하나? 근영 위원님도 신촌에서 공연하지만 사는 곳은 인천인데... 청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여러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근영:** 청년들이 직장 또는 생활영역이 주로 인천이라면 꼭 거주지가 인천이 아니더라도 인천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대상까지 청년으로 포괄할 수 있는 청년 의제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미경:** 인천광역시 혹은 문화재단이 청년축제를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아요. 부캐로 즐기고 참여하고 소통하는

◆◆ 네. 아니면 반대로 사이트 잠을 하지 않고도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 그럼 통계적인 접근이 될 수도 있겠네요.

◆◆ 통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냥 몇 명을 저희가 선별해서 인터뷰를 진행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는 후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10701 08:43

◆◆ 청년 창작자가 창작만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없다면 자기의 부업이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청년 창작자들은 무슨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요새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기도 한 주제인데요. 청년 창작자의 범주도 순수 예술가만으로 국한할 수도 있고 더 넓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들이 창작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건 청년 세대만의 문제는 아니고 예술분야 자체의 문제도 있겠고요.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창작을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도와줘야 하는지가 지금까지는 창작을 위한 지원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어차피 돈을 부업에서 버는 게 보편적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차라리 그 일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비숙련분야의 일을 부업으로 삼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떤

인천 청년축제.

효정: 지역 안에서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는 부분은 고민이지만 에너지 넘치는 청년들은 당연히 거주 지역 이외에도 다른 지역을 넘나들며 활동하니깐 여기에 주거가 지역을 국한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영: 최근 인천문화재단에서 '예술인 이음카드' 발급기준이 바뀌었는데 인천에서 공연예술을 2년 이상 했으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효정: 음... 그런 유동성... 축제... 유동성=축제...

미경: 청년들은 활동 여건 중 교통의 편리성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인천의 교통 여건이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지만, 청년들을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콘텐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지원은 일관성을 갖고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식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인천 연고 청년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도 중요하고 이렇게나 청년문화에 대한 아카이브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 결국 지속성도 낮고...

효정: 청년이 새로 유입되면 결국 지역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한계.. 이런 부분에서 앞서 활동한 사례들에 대한 아카이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종범: 인천연고 청년들을 위한 지원, 그리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축제도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왜 지금 지속되지 못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경향성이 있는지도 파악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 창작자는 어떻게 돈을 버나.

210701 08:47

- ✓✓✓ 내 안전은 누가 보장해 주는가.  
◁▷▷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 '청년 창작자들이 무슨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가'와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 생계, 요즘 생각하는 건 안전, 성평등, 돈, 생계, 건강..... 저번에 건강 얘기 안 했었죠?  
◁▷▷ 안 했어요.  
✓✓✓ 요즘 엄청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  
◁▷▷ 어찌다가 건강을 생각하게 됐어요? 일 하면서?  
✓✓✓ 예술가로 창작자로 생활하면서 내 건강도 못

챙기고, 주변 사람도 못 챙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그렇게 사람을 못 챙기면서 살아야 되지?(웃음)

- ◁▷▷ 나는 지금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청년이잖아요. 그때는 진짜 왕성한 때니까 건강이란 단어를... 막연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직접적인 고민으로... 딱 압박으로 나올 만큼의 이슈가 아니거든요. 내 경험상.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건강을 살필 때가 한 3년 전이었어요. 내 에너지와 모은 것이 소비되고 나니까 그제야 '날 챙겨야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권근영 위원이) 인천에서 문화 기획자나 공연 일을 하며 청년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많이 소진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너무 급속도로

같습니다. 청년문화를 다룰 때 어떤 것들을 다룰 수 있을지 범위를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년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넓은 범위의 청년들을 언급해야 하는 것인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스펙타클 유니버시티'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직장인입니다. 인천에 살지만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는 청년들이 다수입니다. 이들은 기존 지역문화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럼에도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하고 싶은 니즈가 있어서 민간에서 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어떻게 제도권 내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이 고민입니다.

**근영:** 지금 앤드시어터에 들어온 신입단원들도 인천에 살지 않는 청년들이 대다수입니다. 반대로 이를 계기로 인천으로 이주하게 된 청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천에 살지 않는, 그리고 지원사업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청년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효정:** 서울은 타 지역에 비해서 지원의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자신만의 콘텐츠가 있으며 기회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첫발을 내딛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로 낮은 분위기, 어색함, 그리고 정보의 부재 등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알아가려면 만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소진된 거 아닌가.

~~~~ 이제 친구들이 하나 둘 아프더라고요.

<<<< 벌써...

~~~~ 데. 예전에는 만나면 지원정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중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이 있잖아요. 그런데 스무 살 이후에는 아무도

개인의 건강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반면 일하는 청년들은 보건증을 받아오라고 하고 채용이 되었을 때 건강검진 이런 것도 받고.

<<<< (학교에 출강사는) 의무적으로 어쨌든 1년에 한 번씩은 검사서를 내야 돼요.

~~~~ 공무원은 검사하잖아요. 직장에 다니면 건강검진 이런 거 받을 수 있잖아요.

가족들까지. 근데 내가 예술가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연극인복지재단에서 예술가의 복지인가?

<<<< 예술인복지재단 말고? 연극인?

~~~~ 네. 연극인복지재단에서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주는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고 왔는데, 누가 내 몸을 검사해 주고 챙겨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처음인 거예요. 제 친구들도 가서 받았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몸 어디가 아프고..... 그래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예술가들은 사전 예방도 안 돼 있고 사후 건강 지원해 주는 것도 안 돼 있고. 왜 이렇게 건강에

**미경:** 예전의 '좋아요 인천'은 매력적인 청년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신포동 일대 지역은 청년축제의 명맥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과 같은 규모의 예산이 청년축제에 지원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 신포동에서 청년들이 개최한 축제의 경우 상인들과 청년 간의 갈등도 있었고, 관 차원에서의 지원도 유연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네요. 일상을 살고 있는 청년은 있는데 청년의 이슈를 발언하고 해결하고자 청년, 즉 청년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 연결자가 부족한 것 같아요.

**효정:** 서류 작업, 기존 행정과 청년문화의 중점을 잘 견인해줄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이 필요하고, 청년 내에서도 과대대표되는 청년들과 문화적으로 소외된 청년들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도 필요해 보입니다.

**종범:** 서밀장, 웨스트그루브란 이름으로 인천의 창작자들이 모이는 축제형태의 마켓을 기획했었습니다. 매번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며 지역 청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문화행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행사 준비와 운영과정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준비하는 것부터 많은 일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과의 간극을 좁히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디. 즉 청년언어 그리고 행정언어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 대체서 무심하게 살았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 정말 현실적인 것 같아요. 생계 이전에 생명이잖아요. 한 생명으로서의 그 존엄이 피부로 지금 와 닿는... 내용이 진짜...

210701 08:56

<<<< 이진 중요한 의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존의 범위 안에 아까 종범씨가 얘기했던,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잡(job)으로서의 가치. 창작자들의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창작자들이 좀 더 소외되어 있죠. 사실 청년 고독사 기사에서 제가 본 청년은 취업을 했는데 주로 공사 현장에서 가다 보니까 다치게 되고, 한 번 다치고 나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지고 점점

자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그냥 삶의 끈을 놓아버린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존은 꼭 다뤄야 하는 문제 같아요.

210721 09:21

○○○ 생계와 안전의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껏 우리가 생계와 안전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왔었는데, 사실은 생계가 안전을 굉장히 담보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차별이 있어서도 우리 분과에서 같이 고민하거나 거론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아가 이 의제가 조금 더 투화됐으면 좋겠다. 청년 당사자들에게는 안전의 문제와 생계의 문제가 굉장히 다가올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서로 연관되어 있는 구조로 만들어본다면,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경:**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일관되게 추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재단의 문턱이 더 낮아지고, 청년문화관련 논의할 수 있는 전담창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경직된 서류 양식에 청년이 맞춰야하고 그 과정에서 청년들은 맞춤형 인간으로 변화되어 가겠죠. 또 청년들이 관련 정보가 부족하니깐 어떻게 진입해야 되는 지 그 과정을 모를 수도 있겠지요. 청년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를 조직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청년들도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선배 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하거나 검색하는 것으로 얻는 정보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청년 이슈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도 자료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청년들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영:** 축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판단을 시의 관련부서에서 결정하는데 그들의 시선과 잣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로 마계라는 말은 쓰지 마라, 빨간색은 쓰지 마라 등. 그리고 청년단체라고 주장하지만 포장만 청년인 경우도

파생적으로 그것과 관련된 공모의 문제 혹은  
지원의 문제도 함께 엮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우리의 의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10729 08:43

○○○ 제가 청년의 생계와 안전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그냥 '이런 일이  
있었네' 하고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료들을 잘 분석해서 생계와 안전, 그리고  
건강의 부분들을 정리하고 그 정리가 반영될  
수 있게 만드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 같기도 해요.  
◁◁◁ 이제 제 딸이 청년으로 진입하는데, 엄청  
무서운데요. 안전하지 못하다는 불안감이

갑자기 생기네요. 부동산 사기에도 표적이 되고  
있고...

○○○ 검색하면 기사는 많은데, 이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누군가가 혹은 어디선가 이거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20대  
건강검진도 좀 의무화하고요. 그리고 특수한  
경우의 진료나 상담도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다. 사실 젊은 친구들이 암, 당뇨, 이런  
병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것 같거든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다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 갔더니  
혈압이 높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창구를  
만들어서 건강에 대한 상담을 언제든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나아가 성병이라도  
정신적인 병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쉽게  
상담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증법:** 사실 청년 세대에서 단체를 만들거나 서류에서  
원하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알못 생각

-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고 했던가  
이른 아침 모인 청알못 위원들, 저번 인터뷰 내용을  
곱씹으며 인천에서 청년들이 본캐와 부캐 등 다양한  
모습으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축제를 꿈꾼다.  
근데 예술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야행성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분과 위원들은 아침형  
인가보다.

**“카톡”:**

7월 1일 목요일도 아침 8시 30분에 다인아트에서  
만나요.

‘청알못 시름 × 씨름’ 4차 회의

**일시:** 2021.7.1.(목) 8:00-9:30

**장소:** 다인아트

**참석자:** 권근영, 윤미경, 이종범, 전호정 / 불참: 전승용

필요해요.

<<<< 그러게요. 의무적으로 건강검진 받으라고 나오는 게 40대부터잖아요.

◎◎◎ 그쵸요.

<<<< 젊은이들이라고 예외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생계와 안전과 관련해서 자료 조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56

210729 08:47

~~~~ 생계와 안전 관련해서 최근에

에술인복지재단에서 나왔던 뉴스레터를 봤는데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예술인 건강권,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 풍성해져야 한다'는 이 기사가 좋았어요. 지금까지 예술인복지재단은 사후 지원에

많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병이 발생했을 때, 암에 걸리거나 아프거나 이러면 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예방에 대한 건강권을 미리 공부할 수 있고, 챙길 수 있고,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냥 눈 검사, 시력 검사, 치아 검사 이런 게 아니라 피 검사, 혈액 검사, 암 검사 이런 식으로 해야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건강하다는 착각' 이런 거를 의제명으로 적어봤어요. 막 "젊으니까, 나이 어리니까, 20대면 아직 썩었다고...", 이런 말들이 오히려 건강권을 지키려는 생각과 시도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Episode 4. 우리의 의제는?

미경: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에도 제 사무실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효정·근영·종범:

네, 안녕하세요.

미경: 저번 회의 때 제가 너무 축적 이야기만 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청년지원사업도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종범: 오늘은 제가 먼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기관과 청년 창작자가 만났을 때 행정의 언어와 청년 창작자의 언어의 간극은 왜 발생하게 될까요. 이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다음으로 청년 창작자가 창작활동으로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면 청년 창작자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가? 끝으로 청년에게 지역문화는 어떤 의미이며, 왜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의제로 제안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영: 음... 난 왜 불안한가? 나는 왜 희망이 없는가? 내 안전은 누가 보장해주는가? 이런 것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성평등, 생계, 건강검진 등 이러한 기본적인 것에서도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정: 그동안 회의에서 나는 우리의 이야기들을 생각하며 떠오른 질문들은..

~~~~~ 좋은 소식! 인천문화재단에서 청년 예술인  
진강김진이랑 의료비 지원사업을 곧  
시행한다고 합니다.

<<<< 우와~ 어째서죠?(웃음)

~~~~~ 담당하시는 분이 하반기 사업으로 적극  
시행한다고 진화 오셨어요.

<<<< 그렇군요.

~~~~~ 그래서 언제부턴지는 모르겠지만...네.

<<<< 혹시 우리의 의제 발굴과 성과인가요.

~~~~~ 모르겠습니다.(웃음)

<<<< 그건 아닌가요?

~~~~~ 우리 함께 연구하고 얘기했던 그 시간이 담겨  
있는 것으로(웃음)

<<<< 연결되어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고생하셨습니다.

210915 09:21

~~~~~ 문화포럼을 하면서 각자 다른 위치 안에서  
청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인천문화재단에서 예술인 건강  
관련한 지원사업이 나와서 너무 반가웠고, 많은  
창작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챙기면서 건강하게  
작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수두룩한 문제들이 많은데 이게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결국엔 내가 가진 언어 말고 다른 언어가 좀 더

- » 인천 청년들이 문화를 소비하는 방식은 어떠한가?
- » 인천 청년 창작자들은 어떤 정책에 기대어 있는가?
- » 인천 청년의 의식주는 어떠한가?
- » 인천 청년의 문화 기여도는 어떠한고, 인천에 끼치는 상관성, 영향은 어떠한가?
- » 청년들이 주로 만나는 기성세대는 누구인가?
- » 청년들이 생각하는 기성세대는 어떤 이미지인가?
- » 청년들이 되고 싶은 기성세대는 무엇인가?
- » 잘 살기 위해 청년들이 익혀야할 삶의 적정기술은 무엇인가?
- » 청년들의 다양함과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우리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까?
- » 중년인 나는 청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효정: 앞에서 말한 질문거리를 토대로 우리의 의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① 지역 연고에 대한 논의
  - 거주 지역 상관없이 인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청년
  - 공모사업에서 선정되기 위해 지원서를 꾸며낸 스토리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외부 지원자가 지원하더라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 품의가 품위를 지켜주나요?

필요하겠다.

<<<<

~~~~

그래서 정책적으로 좀 안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었던 계기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름답네요.

<<<<

듣고 보니깐 결국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꼭 청년이라서 뭔가 특화된 계층이라기보다 모두가 다 연결된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260

210628 09:18

◎◎◎ 정말 재단이 청년에 대한 특별한 영역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후배들이 하는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단에 문의하잖아요.

되게 힘들대요. 친절하지도 않고, 재단

안에서도 부서별 칸막이가 있어서 청년들이

뭔가 하고 싶은 기획이 있을 때 그걸 전화로

진하면 그렇대요. 그래서 조금 더 친절하거나

- 꼭 그들을 붙잡아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 그들이 활동을 하고 빠지더라도 분명히 그 활동의 결과는 지역에 남아 토양이 될 수 있음.
- 오히려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음. 물론 기여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너무 거창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말자.
- '인천에서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의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기여도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 ② 행정언어와 관련한 논의
 - 행정언어 맞춰 예술과 창작을 하게 됨.
 - 지원사업이 정해놓은 방향성에 무조건 따라야함.
 - 공고의 용어만이 아니라 증빙 방식, 절차 등 전반적인 지원사업 절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일반 사무직, 행정직에 있는 이들도 어려울 것 같은 용어와 절차가 예술가들에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충분한 교육도 없이 모든 것이 설명회로 진행됨.
- ③ 청년 창작자의 안전과 생계는 어떻게 보장되는가
 - 사업의 연속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음.
 - 문화예술은 시설 인프라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유지해야 하는 영역.
 - 성평등, 생계, 돈...
- ④ 청년지원사업(의제에 포함하지는 조금 더 고민)
 - 기초문화재단과 청년일자리 연결.

쉽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다.

~~~~~  
◎◎◎ 청년문화 관련해서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네요.

◎◎◎ 상담이 아니라 총체적인? 그러니까 창구가 이렇게 통일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 청년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누구한테 설명을 들어야 되는지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게 어느 분류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게 무슨 정책인지 혹은 지원인지, 이게 청년분과가 맞는 건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생활, 주거, 직업 이런 분류를 했을 때, 그게 재단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분류되는지도 모르고 또 다르잖아요.

저는 청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범치 국가기 때문에 법에 맞아야 된다. 그럼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그 법과 제도에 맞아서 어필이 돼야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지원금도 받는다. 저는 청년이 지원금을 받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청년 기본 수당도 주는 시대잖아요.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면 물건도 사야 되고 공간도 빌려야 되잖아요.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의상도 사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행정이 경직돼 있으니까 결국 실현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경직돼 있으니까 그거에 딱 맞춰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춤형 인간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

-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

효정: 이 네 가지 의제 중 ‘지역 연고에 대한 논의’, ‘행정언어와 관련한 논의’, ‘청년 창작자의 안전과 생계는 어떻게 보장되는가?’ 이 세 가지를 청년분과의 의제로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알못 생각

- 네 번째 분과모임. 드디어 우리 분과의 의제가 조금씩 구체화 되고 있다. 비대면 두 번과 대면 두 번, 역시 사람은 만나서 소통해야 되는 것 같다. 회의에서 의논할 청년 문제들. 보다 많은 이들과 우리가 제안한 의제를 함께 만나서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카톡”:

다음 회의는 7월21일 수요일 아침 9시에 인하대에서 만나요.

“카톡”:

「인천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2020-2024)」

“카톡”: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7월 21일 수요일 회의는 비대면 온라인회의로 변경하겠습니다. 아침 8시에 만나요.

○○○ 청년들에게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요. 생각은 많은데 어떤 식으로 스템을 뽑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고. 한편으로는 청년도 이런 일을 조직할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한 거 아닌가.

210701 08:42

◆◆ 저 먼저 얘기할게요. 저는 전에 얘기했던 것들의 연장선에 있는데, 일단 행정이란 청년 창작자의 언어의 간극이 어디서 벌어지는가. 이 질문이 파악이 된 뒤에는, 그럼 그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게 저는 같이 얘기해 보고 싶은 질문 거리였고요. 사실 방금 얘기하셨던, 지원사업들을 한 군데서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이미 있거든요. 이런 사이트의 홍보가 부족한 것도 청년들의 정보 부족에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공고는 수백 개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어떤 걸 지원할 수 있지,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 몰라요. 이게 사실 처음 보는 입장에서 오히려 막막하게 느껴지기 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원사업이 적절한 게 없거나 발견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 공고를 보고 청년들이 행정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청년들의 교육이 부족해서 라면, 그 교육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 행정이 청년의 언어랑 괴리된 무언가를 썼다면 그건 행정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간극에서의 문제들을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시: 2021.7.21.(목) 8:00-9:30 / 비대면

참석자: 권근영, 윤미경, 이종범, 전승용, 전효정

Episode 5. 우리는 청알못입니다.

효정: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다시 비대면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 어제 분과 대표자 회의 내용 공유하겠습니다. 각 분과별로 진행상황을 공유했고, 앞으로 카드뉴스 제작 관련하여 분과의 의제를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분과명도 작명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우리 분과명과 의제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미경: 스타트업이라는 키워드에서 착안해서 분과명을 지어보면 어떨까요?

승용: (쭈 채팅창으로) 인천 청년드림 분과 / 인천 청년네트워크 분과 / 청년 커뮤니티 분과 / 청년들이 분과 / 청년들이 잡소리 분과 / 인천 청년시름 (심음=심장소리) / 인천 청년 시므다 / 인천 청년드리 준소리

효정: 분과명은 단독방에서 추후 정리하고, 카드뉴스 형태로 의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논의하겠습니다. 행정언어, 생계-안전, 인천이라는 지역 세 가지 화두...

미경: 명확한 언어로 전달할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제가

~~~~~  
 얘기하다 보니까 아가 행정언어? 이런 거랑 생각이 닿아지는데, 축제나 판 등등 뭐 어떤 형태로는 다양한 문화에 술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행정언어가 바뀌지 않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맞춤 예술'을 하게 되는 거죠.

<<<< 동의합니다. 방향성을 행정과 청년이 같이 정하지 않고 그들이 먼저 정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행정에 좀 맞춰 가게 되는 건 있죠.

~~~~~  
 맞춤 예술, 맞춤 기획, 예산에 맞춰서! 언어에 맞춰서! 그러니까 인생도 맞춤으로 사는 거예요.

<<<< 그림 이것과 관련해서 그런 의제도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청년

창작자와 행정 사이의 언어의 간극. 특히 행정언어. 행정언어와 청년언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는지. 이거는 좋은 의제인 것 같아요.

210701 09:15

<<<< 행정에서의 언어와 청년 창작자의 언어의 간극을, 그건 어디에서 생기며 어떻게 좁힐 수 있는가.

◆◆◆
 '언어'라는 게 단지 공고문의 단어만이 아니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증빙을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것도 오히려 사회의 표준이랑 괴리되어 있는 것도 많잖아요. 행정을 위한 행정들도 많고요. 심지어 일반 회사의 사무직에서 일하는 분들도 불편해하는데, 청년

결정되면 자료를 모으고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정책까지 제안할 수 있도록.... 각자 파트를 나눠서 진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용: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언어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은 공부야 필요한 것이지 이걸 단순히 '어렵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정: 이해의 간극이 존재한다면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의 문제라면 그걸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종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예술가 입장에서 진입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걸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편의주의를 위해 예술가가 일방적으로 맞춰야 하는 행정이라면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경: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들이 끊임없이 들어올 텐데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기관에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너무 강조되면 균형, 배려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정: 우리들 간의 대화에서 행정언어를 대하는 태도에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받을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을 하려면 행정 업무를 감자기 어디서 슬쩍 습득해야 되니까요. 절차를 습득을 하는 것 자체도, 정말 습득을 하는 게 맞는지 따져봐야 돼요.

○○○ 매뉴얼이 있는지

♣♣♣ 하지만 “매뉴얼이 있든지”라고 하면 아마

행정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것도 완전 두껍게 해서 1조1항...

○○○ 그러면 일단 언어의 간극을 해소하는 게 첫 번째네요.

<<< 네. 언어는 상호이해의 기본이니까요. 소통의 기본이구요.

<<< 제가 다른 분과 대표님들을 만난 모임에서

행정언어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이게 반드시 청년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것은 신생

단체나 혹은 꼭 청년이 아닐지라도 처음으로

이런 사업에 도전하는 단체, 성인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그리고 어떤 분은 차라리 청년들은

한두 번 하면 더 빠르게 적응한다고 하셨어요.

행정언어는 경험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어르신들이 어려워한다.

○○○ 저 의견 있습니다.

<<< 네.

○○○ 행정언어의 문제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동의하지만 우리는 지금 청년에

있어서 서로의 간극이 보이는 것 같아요. 행정언어 관련 의견은 잘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카톡으로 공지하겠습니다.

청알못 생각

- 역시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다. 같은 고민으로 청년분과에 모인 위원들 간에도 경험과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따라 의견 차이가 확실하다. 승용 위원은 역시 학구파, 미경 위원은 이상적, 그래도 중간에서 팀장인 효정 위원이 의견 조율도 잘 하고 잘 정리한다. 세 명의 선배 청년을 바라보며 문득 십년 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십년 뒤에 이분들과는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우리 분과명이 무엇이나고...

“카톡”:

(효정) [다음의 이야기거리], 각자 정한 의제의 자료조사 후 질문 만들기

- 1) 행정언어(전승용, 전효정)
- 2) 생계와 안전(권근영, 윤미경)
- 3) 지역연고(이종범)

7월 29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에 만나요

“카톡”:

(효정 7.22) 분과명 관련 의견 주세요

- 1안) 청년문화관 시름X씨름
- 2안) 청년의 시름X씨름

대해서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 세대까지 연구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청년 말고도 다른 중장년층, 세로 단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제단에서 따로 알아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는 청년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의제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반면 청년의 범위는 느슨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범에서 말하는 청년의 범위와 문화 사회에서 말하는 청년의 범위와 정치적인 견해에서 보는 청년의 범위가 각자 다르잖아요. 그래서 ‘청년’을 우선으로 두고, 이에 대한 범위는 느슨하게.

◁◁◁ 네. 감사합니다. 범위를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었고, 다른 분과를 통해 들은 이야기를 전해드린 거였어요. 이 의제를 논하기 위해서, 행정언어로 인해 청년이 어려움을 겪은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마지막에 나온 거죠. 행정언어의 낯설음으로 인해 어려운 게 있다면 적절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의제가 발굴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

한편으로는 행정언어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위안이 되는 게 있어요. 다른 세대들도 어려워하는구나. 청년 세대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다른 세대와 같이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다는 희망도 보이는 것 같아요.

시름: 마음에 걸려 풀리지 않고 항상 남아 있는 근심과 걱정.

씨름: 어떤 대상을 극복하거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 힘을 쏟거나 끈기 있게 달라붙음.

분과명 의미: 인천 청년문화의 고민들에 끈기있게 달라붙어 의제를 발굴하겠다는 의미.

“카톡”:

(종명) 안녕하세요. 카드뉴스 구성안 보내드립니다.

“파일을 각 분과에 공유해주시고, 30일까지 안에 [각 소모임] 부분 확인하셔서 작성 후 공유해주세요. 공유는 어떤 파일이어도 관계없으나 드라이브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라고 전달 받았습시다.

“카톡”:

(호정): 분과 이름 10자 내 작성 / 분과 이름 설명 > 출판팀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작성 (추후 편집시 참고용) / 소모임 의제(의문형) 15자 내, 3-5개 안으로 설정 / 소모임 의제 설명 > 출판팀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작성 (추후 편집 시 참고용)

‘칭알못 시름 x 씨름’ 6차 회의

일시: 2021.7.29.(목) 08:30-10:00

참석자: 권근영, 윤미경, 이종범, 전승용, 전효정

저는 어떤 부분에서의 행정언어가 어려운 건지  
공감해요. 공모 사업의 언어인지, 아니면 재단  
직원을 만났을 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어려운 건지.

◆◆  
예술가가 행정을 익숙하게 다루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잖아요. 배워본 적이 없던 영역이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행정언어가 어려워서 세로  
진입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까지 품고 가려면 어떤 측면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할까를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가  
팩라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키워드가  
‘행정언어’로 정리가 돼서 좁은 의미의 용어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저는 행정의 언어뿐 아니라  
모든 절차와 방식을 포괄한 거예요. 물론  
지금의 방식도 여러 고민 끝에 나온 최적의  
방안들이겠지만, 하다못해 정산을 하는 방식도  
그래요. 단순히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편한 방식이고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서류  
작업이 너무 많아서 정작 자기 작업을 할  
시간이 줄어들곤 하거든요. 예전보다 많이  
간소화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어떤  
부분은 여전히 불필요하다는 것이 논의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Episode 6. 청알못 시름 × 씨름의 의제는요.

- 효정:**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카톡으로 제안한  
분과명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청년문화판  
시름 × 씨름 / 청년의 시름 × 씨름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 근영:** 효정 위원님 아이디어에 한 표. 전 분과명으로  
‘청년문화판 시름 × 씨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종범:** 전 분과명으로 ‘청알못 대잔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분과가 청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채로 청년문화에 대해 고민하고자 분투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 종범:** 분과의 의제로 ‘인천에서 나고 자라면 인천 청년  
맞나요?’ 제안합니다. 청년 세대가 인천 지역  
내에서 느끼는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질문으로  
인천에서 나고 자랐지만 모든 문화적 정체성은 서울  
혹은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형성되었다면...인천  
청년 맞는 건가요?
- 승웅:** 분과명은 종범 위원의 ‘청알못’과 효정 위원의  
‘시름 × 씨름’를 합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과명은 ‘청알못 시름 × 씨름’ 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의미는 청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해결하려고 시름하고 씨름하는 위원들... 결국  
우리들도 청년 비전문가 인데...
- 효정, 근영, 종범, 미경, 승웅:**  
청알못 시름 × 씨름 - 청년 문제에 있어 비전문가인

○○○ 사실 '용어'라고 하는 단어 뒤에 있는 많은  
 뒤임스들이 중요하거든요. 청년들이 지원의  
 영역, 공공 프로젝트의 영역에 진입할 때  
 갖는 어려움이요, 앞으로 더 다양한 청년들이  
 진입하게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슈가

‘행정언어의 불편함’으로 제목을 달더라도  
 그 뒤에는 지원제도, 지원서 등에서 느끼는  
 뒤임스적인 불편함, 내지는 처음 겪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 그걸 통해서 생기는 상처,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문화재단도 인천광역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처라는 말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원제도는 떨어지고  
 불고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잖아요. 불으면 상처

안 받고, 떨어지면 상처받고, 그게 어쩔거나  
 형평성에 따라서 공모라는 걸 하고 제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하는 건데요.

210721 09:55

○○○ 상처는 그냥 제가 붙인 단어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말씀도 다 맞는데 사실이  
 분과는 청년분과란 말이죠. 그러면 청년에게  
 집중해야 돼요. 설명 청년의 요구가 조금  
 무리일 수도 있고 때로는 비합리적인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온전히 잘 담아내는  
 게 이 분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공모의 평형성에 관한 의견은 좀 반대인데요.  
 투명성이 너무 전체폐쇄 세심함이 망가지는  
 게 저는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쁜: 행정언어에 대한 문제는 꼭 문화와 청년에 국한되어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며, 행정에 필요한 합리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꼭 하두로 제시해야 하는  
 문제일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행정  
 절차상의 불합리한 절차 등에 대해 다뤄보는 게  
 맞는 것이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 » 누구 편하려고 말한 소리야? (근영)
- » e나라도움이 무엇일까? / 품의가 뭐예요?  
(승용)
- » 예술가가 1인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서류  
 작업의 분량이 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짐. 진입 장벽 발생. 유도리가  
 없다. (근영)
- » 품위 없는 품의서 (근영)
- » e나라가 도움이 되나요? (효정)
- » e나라도움에선 품의를 지켜주세요? (승용)
- » 품의를 안 지키면 품위가 없나요? (종범)
- » 머니가 필요해요 품위를 지켜야하나요? (승용)
- » 품의가 품위를 지켜주나요? (효정)

효정: 젊은이들은 건강하다는 착각 이것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 » 질문형으로 정리할 필요

투명해야 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되고. 하지만  
공정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강요되면 균형,  
배려, 이런 게 다 깨진다고 생각해요. 공평,  
평등, 투명 모두 중요하지만, 전부 다 투명하게  
보여야 하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심사와 평가에서 충분히 배려되고 도와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 그걸 너무 투명으로 몰고  
가면서 “투명해야 하니까 다 공개해. 다 똑같이  
점수 내서 붙이고 떨어뜨릴 거야. 상처받으면  
너는 자격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우리는 청년분과잖아요. 청년이라는  
범위로 왔을 때 배려를 진체하기보다도 우리가  
어디에서 정확하게 목소리를 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행정언어가 어렵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어려운 건지. 추상적인 거 말고요.  
당연히 바꿔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청년의 힘인 거잖아요.  
◁◁◁ 네. 말씀감사하고요. 지금 벌써 행정언어와  
관련한 입장에서 그 간극이 느껴집니다.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간극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다시 어떻게 연결해 주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청년분과에  
있는 기성세대로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210729 09:03

◁◁◁ ‘음~ 개조식으로 기술해 주시겠어요?’ 이거를

» “젊은이들은 건강하다?” “젊은이들은  
건강할까?”  
효정: 인천에서 나고 자라면 인천 청년 맞나요? 이 의제는  
확정 짓겠습니다.  
효정: 분과명은 청알못 시름 × 씨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제는 ‘품의가 품위를 지켜주나요?’, ‘젊은이들은  
건강할까?’, ‘인천에서 나고 자라면 인천 청년  
맞나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청알못 생각

우리의 분과명이 정해졌다. ‘청알못 시름 × 씨름’ 청년  
비전문가들이 모여 청년 문제에 대해 시름하고 씨름하는  
솔직한 우리 분과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어 분과명이 매우  
마음에 든다. 다섯명의 청년 비전문가 모임 우리는 ‘청알못’  
이다.

“카톡”:

(효정) 의제 순서를 변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 1) 인천에서 나고 자라면 인천 청년 맞나요?
- 2) 젊은이들은 건강할까? 3) 품의가 품위를  
지켜주나요?

“카톡”:

(근영) 저는 이대로 가면 좋겠습니다! 몇 군데  
알아봤는데, 인천광역시에서 하는 천개의  
문화오아시스 사업과 마을공동체사업 등에서는

의제로 생각해봤습니다. 지원사업에 진입한 청년들이 서류에 개조식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하는 것에 대한 낯설함과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개조식 기술은 사실 문화영역뿐만 아니라 기업체든 어디를 가나 해야 하는 작업이고 청년들이 이것을 할 줄 몰라서 행정언어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정리가 돼버리면, 오히려 이전에 이야기기가 나온 것처럼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지 의체로잡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행정 편의적인 무언가 때문에 청년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서 정해져야 할 것 같아요. 개조식은 딱히 행정 편의적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말 그대로 폐이퍼에 적합한 서술 양식인 거니까요. 그런 거보다 전에 모였을 때 얘기했던, 행정 ‘불편’을

겪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 그래요. 저는 이제 뭔가 언어라고 해서 이렇게 잡아봤는데, 그러네요. 이거는 꼭, 문화, 청년 뭐 이런 데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요.

210729 09:07

<<<< 행정 절차상의 운용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를 행정언어라고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210729 09:10

~~~~~ 그냥 ‘누구 편하려고 만든 서류야!’ (웃음)  
 <<<< 조금 다듬어보면 어떨까요?
 ~~~~~ 아니야. 저 너무 막 말했어요.

품의서를 쓴다고 하네요. 지출결의서 뭐 등등 비슷하고 복잡한 서류가 너무 많아서 소규모 문화활동가에게는 버거운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청년들만의 의제는 아니지만, 개선되지 않는 행정시스템과 이 시스템의 높은 장벽 때문에 자꾸만 포기하게 되는 것을 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톡”:

(효정 7.30) 확정 의제

1) 인천에서 나고 자라면 인천 청년 맞나요?  
 청년 세대가 인천 지역 내에서 느끼는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질문. 인천에서 나고 자랐지만 모든 문화적 정체성은 서울 혹은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형성되었다면.

2) 젊은이들은 건강할까?  
 “젊으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 이십대면 뭐...”  
 이런 말들이 청년들의 ‘건강권’ 보장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3) 품의가 품위를 지켜주나요?  
 문화관련 지원사업에 진입한 청년들이 만나는 행정언어, 그 낯선 어려움을 들여다보기 위한 질문.

— “카톡”, “카톡”, “카톡”... ‘칭알못 시름 × 씨름’  
 단톡방은 오늘도 쉬지 않고 울린다.

<<< 그러니까 같이 다듬어 봐요.(웃음) 서류가 편한 건 아닌데... 고민이 많이 되네요. 떠오르는 질문 없나요?

‘품의’가 뭐예요.

✓✓✓ 아, 진짜 품의서 너무 쓰기 싫어요.(웃음)

아니 막, 사업하는데 요즘 소규모 사업체가 많잖아요. 근데 사업을 맡았으면 혼자 품의서 써야하고, 지출 결의서 써야하고, 혼자밖에 없는데 이런 거 다 써서 첨부해서 내야 되고, 그럼 서류만 이만큼이고. 사업보다 내야 하는 A4-용지가 더 많아요.

◎◎◎ 응통성이 없어...

---

210729 09:12

✓✓✓ 저는 근데 e나라도움 진짜 잘하거든요.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이라서 편리하게 썼던 것 같아요..그레서 막 ‘e나라 도우미가 되어야 되나?’ ‘새로운 어떤 직업 창출을 해야 되나?’ 고민도 했어요.





# 22번의 대화가 남긴 질문들

210426

여기 살아봐 좋아-

인천대학교 15호관 326호

- 1 1이제는 정책목표를 문화예술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로 구분해야 할 때가 아닐까?
- 2 인천의 투성을 규정할 수 있고, 그 필요가 있을까?

288

- 3 시민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의 진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일까?
- 4 예술작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예술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까?
- 5 인천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 6 인천시민에게 해양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210518

여기 살아봐 좋아-

인천대학교 15호관 326호

- 1 생활문화의 궁극적인 목표와

- 2 방향은 무엇인가?
- 3 시민의 문화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4 논의 과정에서 인천의 지역적 특성이 꼭 고려되어야 할까?

210531

여기 살아봐 좋아-

인천대학교 15호관 326호

- 1 인천의 시민문화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까?
- 2 문화예술 매개자의 역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 3 매개자 간의 인계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289

210429

예술 지원 탐사단

부평아트센터

- 1 지금의 예술지원정책은 확장하는 예술영역을 포괄하고 수용할 수 있는가?
- 2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아닌 실패를 용납하는 지원정책이 있다면?
- 3 수치화된 데이터로 나타나는 평가 기준을 바꿀 수 있을까?
- 4 나이로만 청년을 구분 짓는 것이 과연 옳바른가?
- 5 인천의 문화예술 생태계는 과연 건강할까?
- 6 경쟁이 아닌 단계별로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까?
- 7 심의위원 기본소양 교육용 칼 하키 위해서는?
- 8 장관의 변화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는 문화계 감시체계가 있다면?

210520

예술 지원 탐사단

부평아트센터

- 1 단기적인 수량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 2 인천의 문화 장르는 왜 더 다양해지지 않는가?
- 3 지원과 사업을 구분하고 그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가?
- 4 예술가의 노동이 노동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었을까?
- 5 문화예술 사업과 기업이 연결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 6 문화에 관심을 갖는 시장이 오기만을 기다릴 것인가?

22번의 문화가 담긴 질문들

210509

인천 문화, 아카이브?

온라인 Zoom

- 1 대표적 사건 혹은 공동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아카이빙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2 왜 시민은 아카이브의 제로블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는가?
- 3 아카이브와 시민을 연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이 있는가?
- 4 '아카이브'의 개념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남용되고 오용되고 있는가?
- 5 공공기관의 통계지표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210530

인천 문화, 아카이브?

임시공간

- 1 비-제도권 및 민간영역 내 기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 2 과잉 보조되는 지역과 비어있는 지역의 대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3 예술계 내부의 아카이브는 현재 잘 되어가고 있는가?
- 4 투명한 정보 공개가 가져올 가능성은 무엇인가?

210610

청일ատ 시를 x 세를

온라인 Zoom

- 1 # 청년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 2 # 청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 3 # 청년 창작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는가?
- 4 # 청년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가?

210623

**칭얼못 시름 x 씨름**

**온라인 Zoom**

- # 현재 인천의 청년문화는 무엇인가?
- # 청년은 소비되는 존재인가?
- # 청년의 활동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 과거의 청년 활동들이 갈수록 되어 자문화되어 있는가?

210627

**인천 문화, 아카이브?**

**입시공간**

- b 여태 섬에서 이루어진 아카이브가 왜 일정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 b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록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 b 근미래의 아카이빙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질 것인가?

- b 인간 중심 장소성을 확장하여

- b 아카이빙 한다면 지역이 어떻게 다르게 보일 수 있을까?

- b 지역 안에 지역미술을 연구하는 연구자와 비평가의 구분인가?

210628

**칭얼못 시름 x 씨름**

**다인아트**

- # 타 지역의 청년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 # 인천에 거주하지 않는 청년들이 인천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 # 청년과 관에서 각자 원하는 방향 사이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210709

**여기 살아봐 좋아-**

**온라인 Zoom**

- J 예술계의 실험정신과 참신함을 반영한 평가방안과 예산 집행 방식을 개발할 수 있을까?
- J 청년문화를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
- J 인천 청년의 문화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 J 인천에 청년 예술가와 매거지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는가?

210713

**인천 문화, 아카이브?**

**온라인 Zoom**

- b 우리 도시에 무엇이 남길 것인가?
- b 아카이브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b 아카이브의 제도를 사유화하지 않고 어떻게 공유하고 확장할 것인가?
- b 정형화된 아카이빙 교육은 변화할 수 있는가?
- b 시민에게 출가의 자용성과 창의력이 보장된 아카이브의 가능성은?
- b 서로 다른 영역의 아카이브들이 연결될 수 있는가?
- b 인천문화 관련 아카이브의 대상과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210719

**예술 지원 타사단**

**온라인 Zoom**

- J 문화예술 기입과 단체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 J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을까?
- J 인천의 유류공간에 실험적인 시도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은?
- J 경쟁에서 벗어나 연대와 협력을 향해 가는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까?
- J 문화예술정책의 결과물 관리(아카이빙)는 누가 하는가?
- J 인천에 장예예술인과 관련된 문화예술정책이 있는가?
- J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210701

**칭얼못 시름 x 씨름**

**다인아트**

- # 인천 청년은 어떤 방식으로 문화를 소비하는가?
- # 인천 청년 창작자는 어떤 정책에 의존하는가?
- # 청년이 주로 만나는 기성세대는 누구인가?
- # 청년이 생각하는 기성세대는 어떤 이미지인가?
- # 잘 살기 위해서 청년들이 익혀야 할 삶의 기술은 무엇인가?
- # 청년들의 다양성과 문화적 성숙 사회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
- # 인천 청년은 어디까지인가?
- # 행정과 청년 창작자의 언어의 간극은 어디서 벌어지는가?
- # 청년 창작자가 창작만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 # 청년 창작자는 무슨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가?
- # 청년에게 지역문화가 어떤 의미이고 왜 필요할까?
- # 청년의 안전은 누가 보장해 주는가?

◆ 210721

**청암문 시름 x 씨름**

**온라인 Zoom**

- # 나이를 기준으로 청년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 # 인천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의 정도와 기어오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 210729

**청암문 시름 x 씨름**

**온라인 Zoom**

- # 예술인의 건강권은 어디까지 보장받고 있는가?
- # 청년에게 로컬과 지역문화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

210804

**인천 문화, 아카이브?**

**온라인 Zoom**

- b 인천문화재단의 원천 자료들은 어디에 모아져 있는가?
- b 마을박물관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 b 아카이브 지원사업은 왜 연속성을 갖지 못하는 걸까?
- b 디지털 아카이브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

210902

**인천 문화, 아카이브?**

**인천아트센터**

- b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 210730

**여기 살아봐 좋아-**

**온라인 Zoom**

- ↓ 시민의 생활과 예술을 밀접하게 연결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 ↓ 모든 곳에 문화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 예술의 영역을 뛰어넘은

시민문화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닐까?

↓ 인천에서 바다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 현재 인천의 지도는 바다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

210831

**청암문 시름 x 씨름**

**온라인 Zoom**

- # 청년 예술인의 건강을 되돌아볼 수 있는 지원사업, 실현 가능할까?

◆

210915

**청암문 시름 x 씨름**

**온라인 Zoom**

- # 기성세대는 청년에게 어떤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
- # 비데민 안에서 옹바르게 소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 많은 청년들과 문제를 어떻게 공유하고 정확한 대안을 찾아갈 것인가?
- # 인천 청년은 어떻게 인천 장년이 되는가?
- # 청년은 어떤 방식으로 범주화 및 대상화 되는가?

봄의 기운이 가득 느껴지던 4월에 처음 만나 4개의 분과를 나누고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던 중 2021년 9월 27일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다목적실에서 '2021 인천문화포럼 성과보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그동안 논의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여기에 외부 토론자의 목소리를 더하여 다가올 미래로 나아갈 인천문화포럼의 방향성을 다층화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각 분과의 발표는 이 책에 수록된 글과 녹취록을 바탕으로 구성되었고, 이에 대한 지정토론자의 발제 및 참여자들의 질문과 답변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여기 살아봐 좋아~’ 분과는 한국해양대 동아시아학과 교수 구모룡을 지정토론자로 초청하였다. 지정토론자의 발제에 앞서 인천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실장 손동혁은

인천의 정체성으로 다양성, 포용성, 해양성을 강조하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문화정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반해 해양성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발제를 시작하며, 구모룡은 한국해양대가 위치한 부산과 달리 인천은 대도시(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이라는 사실을 언급했다. 서울을 바라볼 것인가, 혹은 독자적인 무언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의 문제가 언제나 뒤따르는 인천의 지리적 특성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체성보다 더 작은 단위의 ‘특성’ 그리고 ‘자산’을 살필 것을 제안했다. 광역을 단위로 잡을 경우 정체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다소 추상적이고 자칫 문화를 단일화시켜 문화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도시에 주어진 자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그 안의 간극을 생각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양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인천에게 그는 ‘대양(ocean)’과 ‘연안(coast)’을 명확히 구분하기를 제안했다. 대규모의 바다를 말하는 ‘대양’과 달리 ‘연안’은 바다와 육지가 맞닿아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및 해역을 뜻한다. 여기서 핵심은 ‘연결’이다. 인천의 바다는 대양이 아닌 연안으로, 육지와 해양을 연결하고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장소이다. ‘여기 살아봐 좋아~’ 분과에서 제시한 새로운 지도는 결국 인천이라는 도시가 해양과 영향을 주고받아 온 시간을 거치며 그 시간성이 육지에 어떻게 축적되어 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육지의 장소를 찾아서 기억하는 일에서 나아가 인천의 역사를 ‘새로 쓰고, 다시 쓰고, 나아가 두껍게 쓰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덧붙여 구모릉은 인천의 ‘강’을 놓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강은 도와 해역을 연결하며, 평화유역을 설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로 한정지어 생각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의미의 문화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제에 공감을 보였다. 이에 대해 문화재단도 결국은 ‘문화매개자’라는 시각을 제시하며 모든 구조를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부시장, 자생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미시적인 실천을 제안했다.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장소 중심적 시각에서 나아가 연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장소성을 다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예술 지원 탐사단’ 분과에는 인천YMCA 정책기획부 부장 차성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그는 예술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우리 시대를 형성하는 철학적 기반과 권력 지형을 살펴보고,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문화예술 권력 지형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어느 부분을 더 지원할 것이고 어느 부분을 강화할 것인가’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기반으로 인천의 권력 지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민이 자신만의 담론을 만들 수 있는 영역을 인천광역시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줄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차성수는 계획이 완벽할수록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은 착각이라고 말했다. 계획이 세밀하고 꼼꼼하게 설계될수록 민간참여자의 주도성과 자발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술 지원 탐사단’ 분과에서 고민한 새로운 심사제도를 예로 들며, 민간이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선 결정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원을 주는 행정과 지원을 받는 시민 사이의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전문예술단체보다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낮다. 그렇기에 그는 다른 영역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생활문화는 사람을 찾아내고 발굴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은 행정조직을 갖추고 있는 단체가 아닌 모두 다른 개별자이기에 누가 지원이 필요한지,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관에서 찾아내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분야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천문화재단에 신뢰와 용기를 갖고 새로운 정책을 시도해나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며, 지원 금액을 집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유동성’을 강조하였다. 작업 후 정산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새로운 방식을 도모해야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인천문화재단 정책협력실 담당자 이현식은 이전에 인천문화재단이 정산을 받지 않고 결과물만 확인하는 사업을 부분적으로 도입했었다고 말하며, 예술가와 관 사이뿐만 아니라 예술계 내부 신뢰도, 즉 전체 시스템의 신뢰관계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지정토론자 강희정은 공모(지원)와 용역의

차이점을 짚었다. 공모는 정산이 어려운 대신 결과물은 자유롭게 도출할 수 있지만, 영역은 정산을 하지 않아야 되는 대신 과정과 결과에서 행정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계 안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예술 정책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인천 문화, 아카이브?’ 분과는 도스토리 연구소 대표 강희정을 지정토론자로 초청하였다. 그는 ‘인천 문화, 아카이브?’ 분과의 발표를 들으며 공감하는 지점과 최근에 유행처럼 부상한 아카이브와 아카이빙에 대한 짧은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토론 발제를 대신했다. 해당 분과의 의제 ‘그 많은 아카이브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문제의식처럼 최근 민간 기록물은 공모사업을 통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기록이 대부분이며,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찾아볼 수 없다. 사업 관계자가 자료를 개인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때 기존의 완성된 자료를 참고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을 종종 목격해 온 강희정은 물리적인 공공의 기록 공간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요구했다. 더불어 기록은 민(민간) 관(관청) 학(학계)의 협력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관 학은 협의 과정이 있어야 하며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긴 시간이 요구되므로 꾸준한 소통을 통해 노력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이어서 기록은 지역에 공유되어야 하는 것이며 누구나 한 명의 기록가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점을 간과하게 될 때, 기록사업이 그저 하나의 실적으로 치부되고 처음의 목적에서 빗겨간 과정과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특정 기간에만 진행해 성공과 실패가 점수로 매겨지는 사업이 아니라 기록만큼은 지역 내에 지속 가능한 아카이브가 들어와야 한다. 또한 외부의 청년 혹은 예술가, 기록 전문가의 유입을 도모하는 프로젝트가 늘어나게 된다면 인천이라는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회성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사업을 통해 그들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성장하고, 나아가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

발제를 마치며 강희정은 아카이브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기에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인천문화재단에 전했다. 담당자 혹은 시장이 바뀌면 아카이브의 취지가 쉽게 흔들리는 경향에서 벗어나 꾸준히 공유되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누가 오든 지속될 수 있는 아카이브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지정토론자 구모룡은 아카이빙 사업이 막 시작되는 과정에서 중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강희정은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각 분야마다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권기영 위원은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강조하며, 인천광역시가 황해도의 해양문화자원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을 장기적인 과제로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알못 시름 × 씨름’ 분과에는 전 광주청년문화센터 센터장 문정은과 콜렉티브 뒀굴 연출가 성지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문정은은 현재 청년문화는 한 단어로 정의내리기 어려운 것 자체가 특성이라고 말하며 이 도시와 청년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이러한 고민을 더욱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다. 그는 이번 청년논의 안에 ‘인천 청년이 누리는 문화를 분석하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정책 살펴보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왜 시작되었는지 추적하기’의 문제가 혼합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청년 전반에 대한 고민은 중앙 정부의 보편적인 정책을 가져가는 대신, 앞으로 인천문화포럼에서는 정책의 측면을 거두고 인천이라는 도시에만 발생하는 인천 청년의 특수한 문화에 대해 다각도로 바라볼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바다를 접하고 있는 인천의 지리적 특성이 청년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정서적이고 물리적인 지역성이 약화되어 있는 도시에서 이 지역성을 청년의 생애 주기 안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게 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인천에 살아가는 젊은이가 직접 도시를 새롭게 기록하는 일, 자체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청년 네트워크 조직을 인천문화재단이나 인천광역시 측에서 함께 준비하고 운영해볼 것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단과 시에서 지역 청년들의 활동이 저조하다는 시선보다 그들의 잠재력과 비전을 다시금 바라보고 자율성을 어떻게 끌어

올릴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태도가 요구되는 시기라며 끝을 맺었다.

성지수는 청년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 청년은 ‘미래 세대의 불안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나이로 끊을 수 있는 것도, 경험치에 의해 나뉘는 것도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청년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결국 인천을 다시 바라보기 위해 모인 인천문화포럼에서 자유롭게 소통해 나가며 ‘청년’을 ‘같이 발맞추어 나아갈 사람’으로 본다면, 그 정의를 다채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시스템에 관심 없는 청년이나 다른 청년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의 활동이 있다는 김종현 위원의 질문에 성지수는 지역 청년들이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아주 작은 단위라도 지속될 경우 그 안에서 청년들이 서로 만나고 부딪히고 또 헤어지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해나가고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양이 쌓여야만 다음 청년문화를 위한 기반이 형성될 수 있다. 이어서 문정은은 일부 청년의 요구라는 비판을 넘어 청년 당사자가 그들의 학업과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이라는 한 단어에 수많은 개인이 포함될 때, 그 내부는 결코 단일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입장과 뜻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를 간과한다면 청년은 반드시 단일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사회적

억압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점은 도시와 미래 세대가 소통하는 방식이다.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성과보고 정책토론회는 막을  
내렸다. 6개월 동안 각자의 분과 안에서 이야기를  
발전시켜온 인천문화포럼 참여자들은 이 자리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마주하고 질문하며 각 논의 위에 다른  
이의 목소리를 덧대었다. 나아가 인천 뿐 아니라 그 외의  
다른 도시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지정토론자가  
인천이라는 도시를 바라보는 애정 어린 시선과 응원의  
말, 그 안에 담긴 제언까지 모두 하나의 2021년  
인천문화포럼이라는 원을 그렸다. 이로써 하나로 묶어진  
올해의 이야기들은 영원한 마무리가 아닌 인천에 도래할  
시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본 글은 지정토론자의 발제와 이어지는 질문 및 답변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분과 순서는 책의 흐름을 따랐다.

## 2017 인천문화포럼

문화예술계의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과 문화계가 소통할 수 있는 협력형 문화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화주권사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운영했다. 문화정책·콘텐츠 개발, 생화문화, 청년문화, 문화가치확산, 문화환경·국제교류 분과가 총 30회 세미나와 회의를 진행했다.

### 1. 문화정책·콘텐츠 개발

- 인천시민문화현장 제정
- 영상문화플랫폼 조성 기본방향 설정 및 고려사항
- 뮤지엄파크 설립

### 2. 생활문화

-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 생활문화동아리 양성 및 지원
- 기초문화재단 설립지원 추진방안

### 3. 청년문화

- ‘청년문화창작소’(가칭) 조성안 의견 개진
- 인천 청년 맞춤형 문화예술 지원사업
- 청년 정책 수립 및 지원제도 구상

### 4. 문화가치확산

- 효과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보 플랫폼 구축
- 인천실정에 맞는 지역 밀착형의 문화예술 홍보방안 논의

### 5. 문화환경·국제교류

- 인천아트플랫폼 활성화 방안
- 인천 섬 지역의 주요 이슈와 정책 방안

참여자: 강석필(인천영상위원회), 강선미(사물놀이 공감),  
곽경전(부평구문화재단), 권근영(작가)  
권기영(인천대학교), 권은숙(배다리 요일가게), 김미현(중구문화원),  
김상룡(인천TP)  
김상원(인하대학교), 김선찬(인천연극협회), 김자희(작가),  
김재업(인천사진작가협회), 김종영(동구)  
김종현(삶은 연극), 김주성(인천무용협회), 김진아(시민기자),  
김쓰구(활동가), 김창길(인권영화제)

김창수(인천연구원), 김현숙(주부), 노기훈(작가), 노형래(글로벌  
에코투어), 라정민(문예교육)  
류정아(문화관광연구원), 문계봉(인천민예총), 박주영(이벤트/기획),  
박준석(활동가), 박치영(영상이론)  
박푸른(축제기획자), 박혜란(활동가), 박혜민(작가),  
배성수(인천시립박물관), 백석두(재단 이사)  
백승기(꾸러기스튜디오), 백지훤(꾸러기스튜디오), 서덕현(서구문화원),  
서연호(문화관광연구원)  
서주선(인천미술협회), 성장훈(인천민예총), 송성용(콘트라베이스트),  
송인창(연수구)  
송인혁(인천영화인협회), 신현복(미추홀구), 안정호(활동가),  
양미선(음악활동가)  
양혜원(문화관광연구원), 오석근(작가), 유동우(인하대 학생),  
유세움(문화공작소 세움)  
윤종필(CCS525), 이강민(문스터레코드), 이관형(미추홀문화회관),  
이기영(활동가), 이대광(직장인)  
이배원(인천연예예술인협회), 이병직(중구), 이상훈(인천 사람과 문화),  
이선빈(청년인력소)  
이선영(활동가), 이성진(부평문화원), 이순희(인천국악협회),  
이옥선(사물놀이 공감), 이용덕(활동가)  
이의중(건축재생공방), 이재상(극단 미르), 이정민(계양문화원),  
이종관(인천음악협회), 이종현(부평구)  
이준의(영상연출), 이진경(사랑의 국악챔버), 이찬영(인천민예총),  
이창현(활동가), 이철영(서구)  
이현정(남구청), 임문자(활동가), 임병욱(스칼라합창단),  
임승관(시민문화), 임혜선(서구문화원)  
장한섭(인천의제), 전승용(인하대학교), 정선명(웅진군),  
정유천(인천밴드연합), 정하나(활동가)  
조상운(인천연구원), 조희철(작전도서관), 진나래(작가),  
차광윤(신시모도 회장), 채은영(임시공간)  
최경숙(시민문화), 최등영(활동가), 최성지(부평구문화재단),  
최수현(음악교육), 최연직(계양구)  
최영화(인천연구원), 최재효(남동구), 최제형(인천문인협회),  
최중기(인하대학교), 최해자(문화디자인)  
현광일(인천민예총), 홍정수(인천관광공사), 홍정화(시의회 교외위),  
황순길(강화군), 황순우(바인건축)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여러 사례를 연구하고,  
직접 타 지역 현장을 탐방해 문화생활 인프라 확충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고민했다. 예술인과 시민의 네트워크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보고자 방안을  
제시하며 운영했다. 문화정책, 문화활동, 문화교류,  
청년문화, 문화소통확산, 문화환경 분과가 총 40회  
세미나와 회의를 진행했다.

### 1. 문화정책

- 인천시민문화현장 제정
- 관내 문화조례 및 시책 사업 방향성
- 지역 문화자치 문화분권 방향성 설정

### 2. 문화활동

-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방안
- 기초문화재단 설립 매뉴얼 작성
- 현대 사회 도시문화정책의 방향성 모색

### 3. 문화교류

- 문화예술 국제교류 방안 연구
- 인천 지역 문화단체 협력 시스템 구축
- 인천 남북 예술교류 활성화 방안

#### 4. 청년문화

- 청년 예술인 종합 지원 전략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청년 예술인 네트워크 구성
- 청년문화공간, 청년정책 위원회

#### 5. 문화소통확산

- 인천 공연 전시 관객개발 방안
- 예술활동 홍보 전략 구상

#### 6. 문화환경

- 원도심 지역재생 현황 공유 및 제언
- 문화재단 협력을 통한 도시재생 사례 연구
- 인천 도서지역 문화 활성화 방안 도출

참여자: 강석필(인천영상위원회), 강선미(사물놀이 공감), 강천식(남동구),  
 고동균(청년음악가)  
 고진이(활동가), 고진현(활동가), 공주형(한신대학교),  
 광경전(부평구문화재단), 구윤이(동국대 학생)  
 권근영(작가), 권기영(인천대학교), 권영호(활동가), 권지혁(인하대학교),  
 김기민(활동가)  
 김다솔(인천차바르페), 김도연(활동가), 김동윤(활동가), 김문정(인하대),  
 김미현(중구문화원)  
 김사연(인천문인협회), 김상룡(항공대학교), 김상원(인하대학교),  
 김석승(무형문화재 연합회)  
 김선심(주부), 김선찬(인천연극협회), 김승희(아마티앙상블),  
 김용수(중구), 김유정(부평구문화재단)  
 김자희(작가), 김재업(인천사진가협회), 김종현(삶은 연극),

김주성(인천무용협회), 김지연(극단 미르)  
 김진아(시민기자), 김창길(인천인권영화제), 김창수(인천연구원),  
 김현숙(주부), 김혜영(근로자문화센터)  
 김홍종(계양구), 김효정(인천사랑운동), 나진식(브라스밴드),  
 나혜영(서울대 연구원), 남철우(활동가)  
 노기훈(작가), 노형래(글로벌 에코투어), 라정민(문화예술교육),  
 류정아(문화관광연구원)  
 문계봉(인천민예총), 문광영(경인교육대학교), 박성준(외부간사),  
 박소희(문화기획), 박승희(작가)  
 박영선(외부간사), 박준석(활동가), 박치영(영상이론), 박푸른(대중음악),  
 박혜란(활동가)  
 박혜민(작가), 배성수(시립박물관), 백성기(꾸러기스튜디오),  
 백지훤(거리울림), 서덕현(서구문화원)  
 서성식(장애인문화교류협회), 서주선(인천미술협회),  
 성창훈(인천민예총), 송성용(콘트라베이스리스트)  
 송인창(연수구), 송인혁(인천영화인협회), 신우영(인천평생학습관),  
 신현복(미추홀구), 신희철(외부간사)  
 양미선(활동가), 양행효(코리안트립넷), 양혜원(문화관광연구원),  
 오석근(작가), 원정희(외부간사)  
 유동우(인하대 학생), 유세움(문화공작소 세움), 유아름(외부간사),  
 윤종필(CCS525)  
 이강민(몬스터레코드), 이관형(미추홀문화회관), 이규천(서구),  
 이기성(무형문화재 연합회)  
 이기영(활동가), 이대광(시민), 이배원(인천연예인협회),  
 이상명(인천연예인협회)  
 이상훈(인천사람과 문화), 이선빈(청년인력소), 이선영(활동가),  
 이성진(부평문화원)  
 이순희(인천국악협회), 이영태(개항장연구소), 이옥선(사물놀이 공감),  
 이용덕(활동가)  
 이의중(건축재생공방), 이재상(극단 미르), 이정민(계양문화원),  
 이종현(부평구), 이준의(영상기획)  
 이진경(사랑의국악), 이찬영(인천민예총), 이찬우(인천미술협회),  
 이창현(활동가), 이태민(서구문화재단)이현정(남구청), 이화정(극단  
 아토), 임근목(홍익교회), 임문자(활동가), 임병욱(스칼라합창단)  
 임승관(시민예술센터), 임혜선(서구문화원), 임희숙(인천미술협회),  
 장한섭(인천의제),  
 전승용(인하대학교), 정상섭(청년기획), 정승렬(시민),

정예지(청년인력소), 정유천(인천밴드연합)  
 정창화(동구), 정하나(활동가), 조광욱(웅진군), 조상운(인천연구원),  
 조영숙(인천문인협회)  
 조인숙(부평여성오케스트라), 조화현(신포니에타), 조희철(작전도서관),  
 진나래(작가)  
 차광윤(웅진문화원), 차부희(은물탈출), 채은영(임시공간),  
 최경숙(시민문화센터)  
 최등영(인천평생학습관), 최법자(증구문화원), 최성지(부평구문화재단),  
 최수현(음악교육)  
 최연순(외부간사), 최영화(인천연구원), 최제형(인천문인협회),  
 최중기(인하대학교)  
 최혜자(문화디자인 자리), 한상정(인천대 교수).  
 허정선(버팀라인), 현광일(인천민예총)  
 홍성현(소파사운드),  
 홍정수(인천관광공사), 홍정화(시의회), 황순길(강화군), 황순우(바인  
 건축)

## 2019 인천문화포럼

문화예술의 의의와 정당성을 파악하고, 문화예술 감상교육,  
 예술인 복지, 유휴공간의 활용 등으로 인천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해 문화확산·활용, 문화예술교육, 예술창작,  
 생활문화 분과로 구성해서 00회의 세미나와 회의를 했고,  
 각 분과 연구의 성과를 공유하는 포럼으로 마무리했다.

### 1. 문화확산·활용

- 공공정책사업으로서의 문화도시 전개과정을 살펴  
 문화도시의 사회적 가치 확산 과정 재고
- 도시재생사업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공간  
 활용 사례 연구

-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문화예술영역의 가치와 정당성  
 재고

### 2. 문화예술교육

- 예술감상교육 사례를 통한 운영방향 연구
- 문화교육의 일환으로서 문화예술교육과 DBAE  
 교육이념의 활용

### 3. 예술창작

- 인천형 예술인복지 제언
- 유휴공간 예술적 활용의 필요와 의의 연구

### 4. 생활문화

- 인천 생활문화공간 조사결과 및 시사점 연구

참여자: 강영구((전)부평구문화재단), 공규현(인천문화재단),  
 공주형(한신대학교), 권은숙(달이네)  
 김경택(시민문화놀이터), 김상원(인하대학교), 김성경(공연연출가),  
 김용구(홍익경제연구소)  
 김은진(인천시), 김중현(젊은 연극), 김태은(교육정책연구소),  
 김현주(서구문화재단)  
 나봉훈((사)공정무역 인천광장), 류수연(인하대학교),  
 문계봉(인천민예총), 민경선(인천연구원)  
 박성희(학산문화원), 박혜경(인천무용협회), 손도문(비타건축),  
 안민규(문화발전소)  
 안희석(루체뮤직 소사이어티), 오영희(인천시), 우사라(부평구문화재단),  
 유미숙(문화갤러리 포엘)  
 유세울(인천시의회), 윤종필(CCS525), 이강민(몬스터레코드),  
 이미숙(부평구문화재단)

이재상(극단 미르), 이재필(마중물 샘), 이정미(가짜마을),  
이찬영((전)부평협동 사회경제협의회)  
이현정(미추홀구청), 이화정(극단 아토), 임승관(문화바람),  
장한섭(플레이캠퍼스), 전승용(인하대학교)  
전철원(미디어교육), 정윤호(문화놀이터 뜻), 조화현(1신포니에타),  
채은영(임시공간)  
최금예(인천자바르페), 최영화(인천연구원), 최환(인천빈집은행),  
한상정(인천대학교)  
허은광(인천문화재단), 현광일(인천미예총), 황순우(바인건축)

참고자료

## 2020 인천문화포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진행하지 못하다 하반기에  
2021 인천문화포럼을 위한 준비 회의 및 세미나를 총 4회  
진행했다.

- 인천문화포럼 내실운영 준비를 위한 기판
- 인천문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조건
- 의사소통의 성공 사례 공유
- 인천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거버넌스

참여자: 김중현(삶은 연극), 손동혁(인천문화재단), 윤미경(다인아트),  
임승관(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전승용(인하대학교), 정윤희(인천광역시), 채은영(임시공간),  
한상정(인천대학교)

여기 살아봐 좋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1권, [http://nationalatlas.ngii.go.kr/pages/page\\_1837.php](http://nationalatlas.ngii.go.kr/pages/page_1837.php), 2021.10.18.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GIS 플랫폼, <https://smart.incheon.go.kr/arcgis/home/webmap/viewer.html?layers=b3d61594a4904b7e9e0e2231b7cb3701>, 2021.10.18.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재단, 해양교육포털  
<https://www.ilovesea.or.kr/eduGarden/eduTemplet.do?menuCode=010203>, 2021.10.18.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팀, 「한국에 “인구·국토면적 비례해  
서해 EEZ(배타적경제수역) 정하자” 일방 논리」,  
조선일보, 2012.8.18., 정치면.

전병근, 『대만의 디지털 민주주의와 오드리탕』,  
스리체어스, 2021

에릭 포즈너, 글렌 웨일, 박기영 역, 『래디컬 마켓(Radical  
Markets)』, 부키, 2019

민경선, 「인천형 아트옥션 도입방안 연구」, 인천연구원,  
2020

### 인천 문화, 아카이브?

노명환, 『아카이브 콘텐츠 아카이빙』, HUINE, 2019

김흔비, 박태하, 『전국 축제 자랑』, 민음사, 2021

김정후, 『런던에서 만난 도시의 미래』, 21세기북스, 2020

데니스 우드, 정은주 역, 『모든 것은 노래한다』,  
프로파간다, 2015

스페이스 빔, 『인천 도시 문화 비평지 격월간- 시각』,  
2004-2019

인천작가회의, 『작가들』, 계간

새얼문화재단, 『황해문화』, 1993-현재

순창 방축마을 골목이야기 <https://youtu.be/JmbAeogax7U>

「인천문화정보화 전담 기관 지정 운영 연구」,  
인천문화재단, 2020 [https://ifac.or.kr/IFACBBS/board.php?bo\\_table=ifacbbs\\_dw2101&wr\\_id=158](https://ifac.or.kr/IFACBBS/board.php?bo_table=ifacbbs_dw2101&wr_id=158)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https://archive.ntok.go.kr/>  
인천아트아카이브, <http://www.inartarchive.kr/>

청알못, 시름 × 씨름

박해천 외 12인, 『확장도시 인천』, 마티, 2016

「인천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2024)  
수립 용역」, 인천문화재단, 2019 [https://ifac.or.kr/IFACBBS/board.php?bo\\_table=ifacbbs\\_dw5303&wr\\_id=2284&page=2](https://ifac.or.kr/IFACBBS/board.php?bo_table=ifacbbs_dw5303&wr_id=2284&page=2)

김영숙, 「“청년들의 발품에 마칩표 찍겠다” -정예지  
청년인력소 대표 인터뷰」, 오마이뉴스, 2017.06.28.,  
문화면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37864#cb](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37864#cb)

배영수, 「인천문화포럼, 청년문화분과 정책제안  
컨퍼런스 연다」, 인천in, 2018.07.12., 문화면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65>

김현철, 「박남춘은 ‘소통행정’, 문화재단은  
‘일방행정」, 인천투데이, 2019.07.04., 사회면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317>

「“예술인의 건강권,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 홍태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 인터뷰」, 예술인, Vol.51, 2021.06. <http://>

news.kawf.kr/?searchVol=51

이우성, 「경기도, 내년부터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추진...분기별 25만원」, 연합뉴스, 2021.07.14.,  
최신기사면 [https://www.yna.co.kr/view/  
AKR20210714111200061](https://www.yna.co.kr/view/AKR20210714111200061)

KBS1, 죽어야 보이는 사람들 - 2021 청년 고독사 보고서 ,  
시사 직격 72회, 2021.05.07.

청년정책추진단, <https://2030.go.kr/main>

제1회 청년의 날 기념 “인천 청년의 날 Live”, [https://  
youtu.be/vlu65nxkTB0](https://youtu.be/vlu65nxkTB0)

제28회 유재하음악경연대회 허정혁 - 알지 못한 채,  
<https://youtu.be/4X2US7IXEp0>

# 에필로그

# (불)가능한 대화(들)을 기록한다는 것

한 해의 절반, 물리적으로 떨어진 곳에서 귀를 가장 가까이 대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바지런히 쫓았다. 그렇게 따라간 목소리를 글자로 옮겨와 가시화하고 재구성하는 일을 묵묵히 행하는 동안 어느새 인천이라는 도시는 내 앞에 성큼 다가와 있었다. 먼 길을 가야해서 힘들지 않느냐는 지인의 걱정 어린 안부 인사에 볼멘소리 없이 인천은 이제 익숙하고 친근한 곳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다.

언어와 마찬가지로 도시는 배우지 않으면 감각할 수 없다고 한다. 2021 인천문화포럼은 인천에 발을 디딘 젊은 기획자로 하여금 편향된 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각으로 도시를 경험하도록 만들었다. 심리적으로 먼 수도권 혹은 과거 어느 시점에 멈추어있는 장소가 아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의 가능성이 구석에 새겨진 도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가능성은, 삶의 궤적은 각자 다르지만 함께 서 있는 이곳을 향해 품은 작은 마음 하나로 인천문화포럼에 모인 이들이 뿌려놓은 것이었다.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간 편집자의 소임은 바닥에 흩뿌려진 이야기를 모종삽으로 꼼꼼히 다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화(들)』은 그 시간 그 자리를 채웠던 목소리를 골라내고 (미)완성 된 글과 나란히 두어 독자로 하여금 각 분과의 질문이 만들어진 지난한 시간을 추적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미처 답지 못한 질문들은 ‘22번의 대화가 남긴 질문들’을 통해 내일로 넘겨주고자 하였다. 오랜 시간 곁에 두었던 이야기를 손에서 떠나보내며, 세 계절을 지나 모아진 ‘대화들’이 진정한 ‘넥스트 레벨(next level)’로 가는 도약이 되길 바란다.

박이슬

---

인천에서 활동을 시작하지 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적응이 안 되는 질문들이 있다. 고향이 인천인지, 인천에서 자랐는지, 인천에 사는지, 인천에서 학교를 다녔는지, 인천을 떠났다 다시 온 건지 떠나 본적이 없는 건지... 매우 개인적인 영역이지만 지역에 관한 진정성에 관한 선뎡이 깜빡이 없이 불쑥 들어오는 질문들에 매번 애매하게 대답하곤 한다.

2021 인천문화포럼의 기록과 출판을 하며 두 가지를  
고려했다. 하나는 몇 번의 참여로 예상가능(?) 했던 지역  
문화예술 기획매개자, 예술가의 파편화된 주장, 의견, 경험,  
생각, 욕망, 상상, 실천들이 다른 속력과 방향으로 뿔어가는  
상황을 시각화하는 것이다. 기록과 출판이 글과 정보를  
기반으로 설명과 설득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오래된 지속  
반복된 소통과 불통, 독백과 대화, 지연과 반복, 연대와  
독고다이의 복잡한 맥락이 공공기관 자료집이나 보고서의  
요약과 설명 형식보다 모든 참여자가 지역과 문화예술을  
말하는 상황과 과정을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  
두 번째는 기록과 출판에 참여하는 인천에 다른 관계와  
연고를 가진 20, 30, 40대 '여성' '예술' '기획자'가 2021  
인천문화포럼의 과정을 바라보고 정리하고 책을 만들며  
어떤 자기-전망의 가능성과 한계를 만날지 궁금했다. 요즘  
계속 맵도는 '광활하게 진동하는 지역성'을 위한 다른 관계,  
다른 속력, 다른 실천들은 가능할 것인가에 관한 과정인  
셈이다. 아직 서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진 못했고 어쩌면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 채은영

참여자 소개

권근영

수도곡산 달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가족과 복닥복닥 함께 보낸 시간이 개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가족사, 구술 인터뷰, 리서치 등을 바탕으로 글을 쓰고, 연극을 만드는 작업한다.

buntassi@naver.com

권기영

문화콘텐츠산업에 전공으로, 요즘 인천의 바다에 관심이 많아졌다. 재미있는 일이면 무조건 한다는 게 삶의 모토인데 해양문화가 무지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언젠가 바다 콘텐츠를 기획해 보는 것이 꿈이다.

quan86@hanmail.net

권은숙

넓고 허름한 것들이 깃든 오래된 공간을 보면 온몸의 세포가 꿈틀꿈틀한다. 호시탐탐 버려진 공간을 찾아다니며 함께 나눠 쓰는 공유개념으로 다양하게 공간 활용을 실험한다. 책방, 나눔 가게, 마을안내소, 동네사랑방, 요일가게, 창작실험실, 문화상점 등 공유공간을 통해 함께 살기를 꿈꾼다.

kesime@daum.net

김중헌

연극배우를 하다가 성이 차지 않아 연출을 했고 영화를 찍다 마음에 꽂혀 마을공동체와 문화예술이 함께 성장하는 다양한 시도를 시행착오의 반복에도 굴하지 않고 '존버'하고 있는 자유인이다.

asamesi@hanmail.net

박정하

시민, 엄마 그리고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시간강사로 다양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 '하루빨리 워드 코로나 시대'와 '양질의 인천 문화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jwhm1217@naver.com

손동유

일상, 지역 및 공동체 등의 민간 아카이빙, 구술채록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공기록에 비해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했던 영역의 아카이빙이 주 관심사이다.

www.archivingnet.org

안희석

클래식 기반으로 공연 콘텐츠를 제작발표하며, 자연스럽게 지역문화, 생활문화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인천시민의 삶과 이야기를 담은 클래식 작품과 다른 장르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종합문화예술을 알리는데 노력한다.

heesukan@hanmail.net

## 우사라

상업갤러리, 옥션, 비엔날레, 기업 갤러리, 공공기관 아트센터를 거치며 미술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최근에는 아름다운 것들로 지역문화를 어떻게 꽃 피울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ssarahda@naver.com

## 윤미경

20대엔 술, 30대엔 아기, 40대엔 일과 함께 했다. 30년 동안 책 만드는 일을 하며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열혈 아줌마이고, 인천이라는 도시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 여전히 책을 만들고 사람들 만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콘텐츠를 찾고 있다.

shinpo86@naver.com

## 이강민

문화란 인간의 흔적이다. 그 흔적들을 어떻게 풀어볼지 고민하는 한 사람이며, 세상 모든 것에 가능성을 열어 기획하고 실행한다.

master@monsterrecord.co.kr

## 이민하

시각예술가로 개인 작품 활동을 하지만, 동료 예술가들과 전시 기획을 하거나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며 사회참여적 예술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www.leeminha.com

## 이종범

한 도시에 살아가려면 취향에 맞는 공간, 하고 싶은 일을 할 일터, 마음을 나눌 좋은 동료와 이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길바닥과 남의 도시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한 억울함에서 출발해, 2016년부터 출판과 문화기획으로 인천에서 그것들을 찾기 위한 여정 중이다.

www.instagram.com/

incheon\_spectacle

## 임승관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수평적인 협동이 가능한 생활문화 활동에 매력을 느껴 글과 강의로 선전 선동하고 다닌다. 좋은 사회를 만드는 가장 즐겁고 빠른 방법이라 믿기 때문이다.

limsk4665@naver.com

## 전승용

미술을 공부해서 아티스트를 꿈꾸었으나 생계유지라는 현실과 직면하고 문화경영으로 진로를 변경했다.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정책 연구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k3119839@naver.com

## 전호정

연극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인생의 살 만한 가치'를 전해주는 매개자로 살아가기 중이다. 문화예술교육은 아름다운 공존과 사람답게 사는 일에 깊이 있게 관여하는 '삶을 위한 작업'이 된다는 믿음으로 예술로 꿈꾸는 배움터 예술꿈학교를 운영 중이다.

artdream.edu@gmail.com

## 차광윤

인천 지도를 해양 중심으로 바꾸자고 주장하며, 서해평화협력 시대를 열어 인천을 광내고 운내고 싶은 바다자랑꾼. 영종국제도시, 신시모도, 장봉도에서 에코+해양+공황과 더불어 재미있게 살고 있으며, 우리 동네에 지역문화가 활짝 꽃피기를 기대한다.

153cha@hanmail.net

## 채은영

도시 공간과 자본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가진 시각예술의 상상과 실천에 관심 많은 인터-로컬 큐레이터. 트랜스-로컬리티와 생태-정치를 주제로 리서치 기반 기획을 하는 '임시공간'과 웹진 '동무비행 삼사'를 운영한다.

www.spaceimsi.com

## 최철

도시의 산책자로 사진을 찍고 전시를 했고,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사진을 엿보고 있다. 프로와 아마추어 사이에 끼어서 좀 더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려 한다.

saillets@naver.com

## 한상정

인천대학교에서 지역문화를 고민하며 학생들과 호흡 중이다. 그러다보니 주 전공인 만화연구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뭐 흘러가는 대로 가자며 살고 있다. 친구들 약속은 꼭 인천에서 잡는다.

hsj870@inu.ac.kr

## 2021 인천문화포럼

후원

인천광역시

### 참여자

권근영, 권기영, 권은숙, 김종현,

운영

박정하, 손동유, 안희석

인천문화재단

우사라, 윤미경, 이강민, 이민하,

이종범, 임승관, 전승웅

전효정, 차광윤, 채은영, 최열, 한상정

2021 인천문화포럼 시민보고서

소모임 연구협력

기록출판

신효진(인천문화재단 대리),

이승원(송도 2동 주민자치회 회장)

발행

이애향(민중의 집 대표),

인천문화재단

정예지(인천청년네트워크

문화예술분과장)

진행

최경숙(문화바람 사무처장)

일시공간

오픈 테이블: 성과공유

편집

구모룡(한국해양대 교수)

박이슬, 채은영

강희정(도스토리 연구소 대표)

성지수(컬렉티브 뫼글 연출가)

기록

문정은(광주청년문화센터 센터장)

정다운

차성수(인천YMCA 정책기획부 부장)

사진

소모임 기록

송석우

안희석, 이민하, 이종범, 최열

디자인

진행

홍은주 김형재

인천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실장 손동혁, 담당 이현식

인쇄

세걸음

행정지원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인쇄일

팀장 정윤희, 담당 최유리

2021년 12월 17일

2021 인천문화포럼이 남긴  
“대화(들)”

발행인  
최병국

발행일  
2021.12.17

발행처  
인천문화재단

기획  
정책협력실

기록/출판  
임시공간

ISBN  
ISBN 978-89-92678-62-9

비매품

문의  
인천문화재단 032-455-7182  
E-mail. agiko3@ifac.or.kr  
www.ifac.or.kr

©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인천문화재단과 필자에게 있습니다.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출처를 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원저작물의 변형이용, 2차  
가공을 금지합니다.